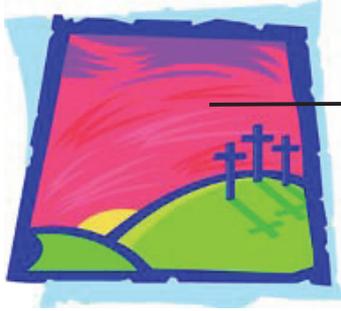


목 차



성경 공부를 들어가며	2
제25과 요나	5
제26과 미가.나훔.하박국.스바냐	10
제27과 학개	16
제28과 스가랴.말라기	21
제29과 침묵기-구약과 신약사이 400년	26
제30과 신약성경	32
제31과 사복음서	38
제32과 요한복음	42
제33과 사도행전	47
제34과 로마서(1)	52
제35과 로마서(2)	56
제36과 고린도전후서.갈라디아서	60
제37과 에베소서.빌립보서	65
제38과 골로새서.빌레몬서	69
제39과 데살로니가전후서(1)	73
제40과 데살로니가전후서(2)	77
제41과 디모데전후서.디도서	81
제42과 히브리서(1)	85
제43과 히브리서(2)	89
제44과 야고보서.베드로전후서	93
제45과 요한일서	97
제46과 요한이서.요한삼서.유다서	101
제47과 요한계시록(1)	105
제48과 요한계시록(2)	110

성경 공부를 들어가며

2014년 6월 기독교 연합신문은 교회학교 공과공부의 위기를 알리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절반에 가까운 한국 교회가 공과공부를 하지 않고 있으며, 학생들과 교역자들도 굳이 공과공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¹⁾

또한 최근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 현장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생들의 기초 학습 능력부진 문제가 상당히 크며, 기본적인 인성과 생활 태도 등을 지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 부분 학생들을 교육하는데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고충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회학교와 학교교육의 문제는 많은 원인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중에 가장 큰 문제가 학생들 스스로가 깊이 사고하는 능력을 점차 잃어 가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이미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무분별한 스마트폰 사용과 다양하고 자극적인 매체들 특히,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각종 오락 게임과 정신을 빼놓는 너무나 가벼운 TV 예능 프로그램들 그리고 선정적이고 현란한 음악들이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서 더 이상 청소년들이 다양하고 깊은 사고와 철학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중요한 방해물로 자리 잡았고, 청소년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세상의 더러운 문화적 도구로,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 강하게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사랑침례교회는 청소년들이 어릴 적부터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 받으며(엡6:4),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바르게 나누면서 연구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본 교재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재를 통해 사랑침례교회 주일학교가 교사와 학생간의 온전한 믿음의 교제와 삶을 나누는 소통의 장소가 되며, 학생들이 바른 말씀을 배워나가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는 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점차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서 바르게 성장하여, 많은 어려움과 유혹이 있는 젊음의 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맑은 정신의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네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디후2:15).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22:6).

“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딤후2:22).

“오 청년이여, 네 젊은 때를 기뻐하라. 네 젊은 시절에 네 마음이 너를 기쁘게 하고
네 마음이 원하는 길들로 걸으며 네 눈이 보는 대로 걸으라.
그러나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 자리로 데려가실 줄 너는 알라.”(전11:9).

1)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alrom0&logNo=220065606673>

본 책자 <성경편-2>²⁾는 사랑침례교회 중고등부를 위한 설교 및 주일학교 공과공부 교재로써 3년 과정(성경편-1.2, 인물편-1.2, 교리편-1.2) 중 한 학기 자료입니다. 따라서 성실하게 중1부터 고3까지 이 교재를 가지고 차례로 공과공부를 하시게 되면, 3년 과정을 두 번 반복 학습할 수 있으며, 교재에 나와 있는 주제와 내용을 바탕으로 좀 더 확장되고 세부적인 내용도 자유롭게 다루어 가며 공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교재는 사랑침례교회 이정원자매님이 번역해주신 미국 미들타운 바이블교회³⁾ 주일학교 교재에서 많은 부분 그 내용을 가져왔지만, <사랑침례교회의 믿음>과 <교회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많은 부분 어쩔 수 없이 내용 수정 및 편집 작업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경우 <사랑침례교회 각종 강해 설교> 및 <에스라 성경사전> 그리고 <에스라 성경 지도. 선도> 등을 참조하여 보충 설명 및 그림을 넣었으며, 성도님들이 개인적 필요에 따라 성경공부를 하시면서 성경 66권의 대략적 줄기를 빠르고 쉽게 이해하고 배우시는데 무리가 없도록 48시간 분량(성경편-1.2)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이 교재를 접하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지고, 세상의 어둠 가운데서도 성경 말씀의 빛을 따라 세상을 이겨나가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시편119:105).

2015년 6월 27일
장 용 철

2) <성경편-2>는 미국 미들타운 바이블교회(Middletown Bible Church) 주일학교 9학년 교재 <구약성경: 12과-13과> 및 <신약성경: 1과-13과>에서 많은 부분 그 내용을 가져 왔습니다.
3) <http://middletownbiblechurch.org/ssplan.htm>

<성경편-1.2>-교육과정 소개

순서	주제	분기	월	주	단원	제목
1년차	성경편	1분기	1	1	구약성경	구약성경
				2	구약성경	창세기
				3	구약성경	출애굽기
				4	구약성경	레위기
			2	5	구약성경	민수기
				6	구약성경	신명기
				7	구약성경	여호수아기
				8	구약성경	사사기
			3	9	구약성경	룻기
				10	구약성경	사무엘기
				11	구약성경	열왕기
				12	구약성경	역대기
		2분기	4	13	구약성경	에스라.느헤미야기.에스더(1)
				14	구약성경	에스라.느헤미야기.에스더(2)
				15	구약성경	욥기와 시편(1)
				16	구약성경	욥기와 시편(2)
			5	17	구약성경	잠언
				18	구약성경	전도서.솔로몬의 아가
				19	구약성경	이사야서
				20	구약성경	예레미야서.예레미야 애가
			6	21	구약성경	에스겔서
				22	구약성경	다니엘서
				23	구약성경	호세아
				24	구약성경	요엘.아모스.오바다
		3분기	7	25	구약성경	요나
				26	구약성경	미가.나훔.하박국.스바냐
				27	구약성경	학개
				28	구약성경	스가랴.말라기
			8	29	역사	침묵기-구약과 신약사이 400년
				30	신약성경	신약성경
				31	신약성경	사복음서
				32	신약성경	요한복음
			9	33	신약성경	사도행전
				34	신약성경	로마서(1)
				35	신약성경	로마서(2)
				36	신약성경	고린도전후서.갈라디아서
		4분기	10	37	신약성경	에베소서.빌립보서
				38	신약성경	골로새서.빌레몬서
				39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후서(1)
				40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후서(2)
			11	41	신약성경	디모데전후서.디도서
				42	신약성경	히브리서(1)
				43	신약성경	히브리서(2)
				44	신약성경	야고보서.베드로전후서
			12	45	신약성경	요한일서
				46	신약성경	요한이서.요한삼서.유다서
				47	신약성경	요한계시록(1)
				48	신약성경	요한계시록(2)

제25과 요나(Jonah)

이제부터 우리는 두 과에 걸쳐, 5권의 제2대언서(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 5권의 책들은 바빌론 유수 즉 바빌론 포로생활 이후에 기록된 것인데, 오늘은 그 중에서 요나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모든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쩌면 <요나> 만큼 성경에서 많은 공격을 받고 놀림을 받는 책도 없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의기양양하게 요나가 고래 배 속으로 들어가게 된 사실이 말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또 요나의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이며, 걸리버 여행기나 피터 팬 이야기처럼 인간이 꾸며냈거나 우화와 같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요17:17).

우리는 열왕기하에서 요나가 사약한 왕 여로보암 2세(이스라엘 왕) 시대에 살았던 실제 인물임을 배웁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 가드헤벨 사람 아밋대의 아들 대언자 요나의 손으로 하신 말씀대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여로보암 왕(왕하14:23)과 이스라엘 민족은 실제로 존재했으며, 요나는 가공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밋대의 아들이며, 실제 대언자였으며, 실제로 큰 바다 생물에 게 삼킴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요나와 고래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배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마12:40, 욥1:17 비교)

예수님은 요나의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났다고 믿으셨으며, 요나가 실제로 니느웨로 가서 그 백성들에게 설교를 했다고 믿으셨습니다(마12:41).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해결되었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놀랍고 흥미진진하며 재미있는 이야기일 뿐 아니라 사실인 것입니다!



요나와 그의 임무

요나는 열두 명의 소 대언자 중 하나이며, 스블론의 가드헤벨 사람입니다(왕하14:25). 그는 여로보암 2세 때 니느웨에 대해 대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그것을 피하기 위해 니느웨와 반대편에 있는 다시스로 가기 위해 옹바에서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폭풍을 만나 사람들이 그를 바다로 내던지자 고래 배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서 죽은 채 밤낮 사흘 동안 지냈으며, 이것은 우리 주님이 땅의 심장부에서 밤낮 사흘을 지내신 것을 나타냅니다. 그 뒤에 그는 부활하여 고래 배 속에서 해변으로 토해졌고, 주님의 말씀을 다시 받아 순

중하며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요나의 경고에 따라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였고 그들의 파멸은 연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요나의 이야기를 주님께서서는 반복해 말씀하심으로써 그것이 역사적 사실임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마12:39-41; 16:4, 눅 11:29-32).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대언자인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들의 사악함이 내 앞에 이르렀느니라.”(욘1:2). 요나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기 약 800년 전에 이 임무를 받았습니다. 당시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바로 이방인 도시 니느웨에 가서 이방사람들(이스라엘의 적)에게 설교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힘

아시리아 군대는 모든 근동의 나라에서 가장 무서운 군대였습니다. 이 백성들은 매우 호전적이었으며 잔인했습니다. 그들은 심리전을 사용하기도 했는데, 이것은 적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려는 것입니다. 언제나 아시리아 사람들은 먼저 상대에게 두려움을 주고 정복을 했는데, 보통 이들의 공격을 받은 사람들은 공격도 받기 전에 두려움으로 이미 받은 패하였습니다.

이사야 36장에서 우리는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겁을 주려는 아시리아 사람들에게 대해 읽게 됩니다. 아시리아 사람들은 도시마다 정복해 나가면서 잔인하고 무시무시한 것들을 행하곤 했는데, 그들은 때로는 적을 사로잡아 산 채로 피부를 벗기기도 하였고, 적들의 머리를 잘라 그것을 피라미드 형태로 쌓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정복된 도시 안에 있던 사람들은 이와 같은 것을 보고 겁을 먹기도 하였고, 아시리아 사람들은 도시를 포위하고 탈출을 하려는 사람을 잡으면 모든 도시의 사람들이 그 도망자를 볼 수 있도록 죽여서 그를 막대에 매달아 놓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아시리아 사람들은 어떠한 자비심도 보이지 않았으며 오래 동안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왕국이었습니다. 후에(요나의 시대) 북 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백성들을 데려간 나라가 바로 이 아시리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악한 민족을 사용하셔서 죄를 지은 자신의 백성들을 벌하신 것이고, 바로 요나는 하나님에 의해 이렇게 사악한 아시리아 사람들에게 보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악함’이라는 말씀을 하실 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욘1:2).

왜 요나는 반대쪽 길로 갔을까?

요나서 1장 3절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경지도에서 니느웨를 찾을 수 있습니까? 요나는 지중해의 서쪽으로 향하는 배를 탔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방향으로 제대로 갔습니까? 왜 요나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나서 1장 11-12절에서 요나의 용기가 대단하였음을 압니다. 그는 확실히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요나가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매우 약하고 부족한 대언자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 대언자 요나는 하나님의 종(servant)이라고 불립니다. 또한 요나 자신도 대담하고 당당하게 “주 곧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노라”라고 말했습니다(욘1:9). 요나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지를 아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욘2:4,7 참조). 하나님은 요나의 선포를 강력한 방법으로 사용하셨습니다(3장). 예수님도 요나의 선포자로서의 위대함을 인정하셨고 요나를 자신과 비교하셨습니다.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마12:41). 왜 요나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왜 요나는 반대 방향으로 도망쳤습니까? 이것의 답은 요나서 4장 2절의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이는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분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큰 친절을 베푸사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니이다.”

요나는 잔인하고 호전적인 아시리아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적들이며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의 적들임을 알았고, 이들의 엄청난 사악함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욘1:2). 요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죄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는 죄를 미워하고 죄가 처벌되기를 원하는 경건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살고 있는 아시리아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길 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 도시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니느웨로 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이러한 생각을 품었을 것입니다.

- ▶ 아시리아인들은 적에게 어떤 긍휼도 보이지 않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보이셔야 합니까?
- ▶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하셔야 합니다!
- ▶ 하나님께서는 분노를 더디 하시는 대신에 자신의 진노를 그들에게 쏟으셔야 합니다!

요나는 아시리아 백성들이 그들이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옳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오래 참으심에 대해 교훈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⁴⁾

특별한 구출!

요나가 큰 바다 생물에겐 삼켜진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요나의 운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 합니다.

“이제 주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시매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그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더라.”(욘1:17).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합당한 동물과 합당한 장소와 합당한 시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⁵⁾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두 번째로 같은 임무를 주셨습니다.(욘3:1-2)

- ▶ 요나는 순종했습니까?(욘3:3)/요나가 선포하였습니까?(욘3:4)
- ▶ 니느웨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믿었습니까?(욘3:5)
- ▶ 아시리아 사람들은 회개했습니까?(마12:41)
- ▶ 아시리아 사람들은 악한 길에서 돌아섰습니까?(욘3:10)
- ▶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셨습니까?(욘3:10)/ 요나는 만족했습니까?(욘4:1)

☛ 요나가 이방 아시리아 사람들을 걱정하는 것보다 이방 선원들이 요나를 더 걱정했습니다. 선원들은 그가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았지만(욘1:12-14), 요나는 아시리아 사람들이 멸망되기를 원했습니다(욘3:10, 4:1). 요나는 수천 명이 사는 도시보다 자기가 수고하지도 아니하고 자라게 하지도 아니한 박(gourd) 곧 하룻밤 사이에 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없어진 박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요나는 저 큰 도시 니느웨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까(욘4:7-11).

4)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모세도 민수기 20장에서 비슷한 교훈을 배워야 했습니다.

5)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또 다른 것은 요나서 4장 6-8절 참조하세요.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염려

세상은 거룩한 하나님에 의해 심판을 받고 멸망 받아 마땅한 사악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복된 소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3:16).

만약 주께서 우리의 불법들을 기록하시고 그것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면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능히 서 있을 수 없습니다(시130:3 비교). 그것은 <요나>라도 불가능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용서가 주께 있음을 알고, 이것을 통해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시130:4 참조).

요나는 하나님께서 너무 은혜로우셨기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욘4:2).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며 노하시를 더디 하시는 것에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모두 죽어야 할 운명입니다! 죄를 지은 것은 아시리아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합니다(롬3:23). 그러나 성경의 복된 소식은 “구원은 주께 속하나이다.”입니다(욘2:9).

☛당신은 잃어버린 사람들(친구들)을 걱정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구원의 놀라운 메시지를 가지고 계십니다(막16:15). 당신은 기꺼이 이 메시지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받도록 도우려고 합니까?

☛당신이 이것을 위해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무엇입니까? 요나는 우리들에게 로마서 3장29절에서 배운 놀라운 진리를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의 마음과 연민을 가지고 계시며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십니다(딤후2:3-4). 당신도 그렇습니까?



모든 것 중에서 가장 큰 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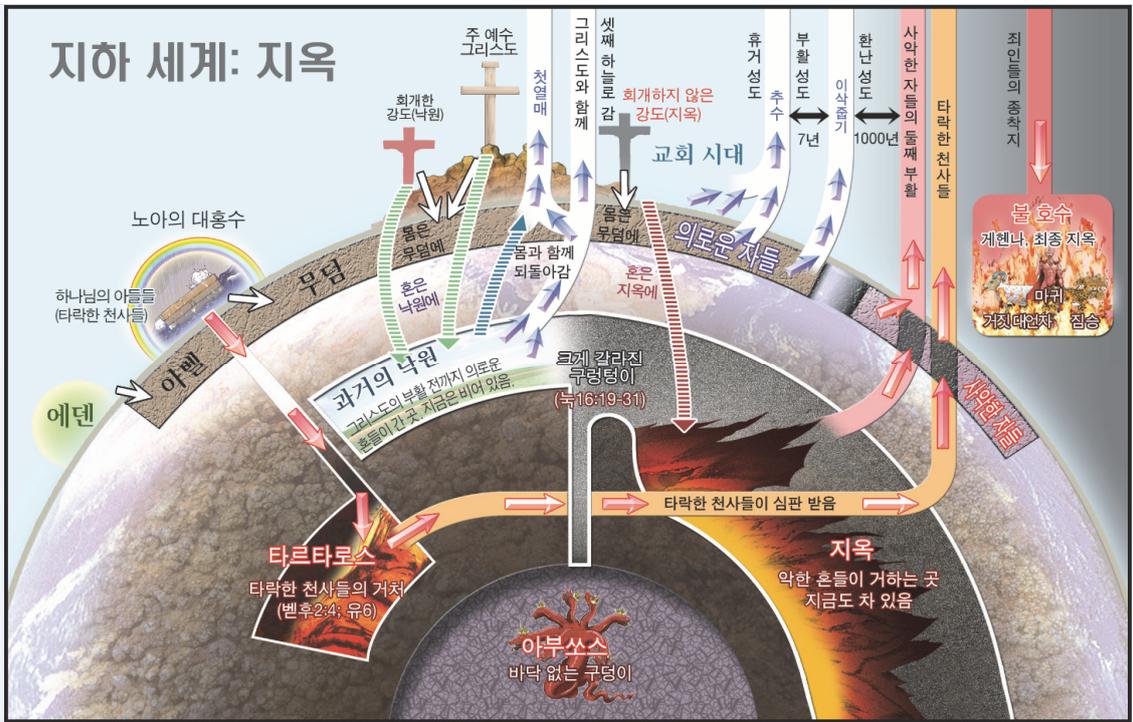
요나가 큰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던 것은 하나의 표적⁶⁾이었으며, 세상의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을 말하는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표적을 마태복음 12장 39-40절과 16장 4절에서 말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을 보면,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⁷⁾ 배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고 나옵니다. 이 말씀처럼 요나는 고래 배 속에 있었고 예수님은 땅의 심장부에 계셨습니다. 사흘 후에 요나는 고래 배 속에서 살아 나왔고, 예수님도 사흘 후에 부활하셔서 무덤에서 나와 승리하셨습니다!

고래 배 속에 들어갔다 나온 요나의 경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분명한 표적이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에서 나온 후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방사람들(아시리아 사람들)에게 선포되었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일어나신 후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막16:15). 구원 받은 자들은 모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배타적인(소수에게 제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가득한 것입니다.

6) 증거가 되는 표시(창9:12-13; 17:11; 출3:12; 사8:18), 초자연적인 강력함(눅21:11) 혹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 주는 기적(출4:7-9; 막8:11). 하늘의 표적들은 천체들의 움직임 등을 가리키며 이교도들은 이런 것을 통해 계시를 얻고자 하였다(사44:25; 램10:2).-<에스라성경사전>

7) 고래(whale)-바다에 사는 가장 큰 포유동물(창1:21; 욥7:12). 요나를 삼킨 큰 물고기는 고래였다(욘1:17; 마12:40). 주후 1600년경에는 바다에 사는 생물을 다 fish로 표현하였으며 따라서 고래를 큰 물고기로 표현한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에스라성경사전>

지하세계: 지옥



지옥 알아보기

지옥은 히브리말 '스올'과 그리스말 '하데스'를 번역한 것으로 성경에 54회 나오며(시16:10; 사14:9; 겔31:16; 눅16:23), 이 경우 지옥이란 단어가 실제로 쓰인 경우이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영원한 불, 영원한 멸망, 바깥 어두운 곳, 불 호수, 바닥없는 구덩이 등과 같이 지옥을 묘사하는 표현이 많이 나오며, 이런 구절들은 지옥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분명한 장소임을 보여 준다. 영어의 지옥(hell)은 '감추다' 또는 '덮다'라는 뜻의 앵글로색슨어에서 유래한 말로 1차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가는 지하 세계'를 뜻하고 구체적으로는 '지하 세계에서 악한 사람들이 고통 받는 곳'을 뜻한다. 따라서 한자의 '지옥(地獄)' 즉 '땅의 감옥'이란 표현은 아주 적절하다. 바벨탑에서 언어가 혼잡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말 성경에 아주 근사한 용어를 허락해 주셨다. 성경은 지옥이 땅의 심장부에 있다고 말한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배 속에 있었던 것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마12:39-40).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가셨고(행2:31)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구약 성도들을 하늘로 옮기셨다(엡4:9-10). 지옥을 만드신 창조주는 지옥의 소름끼치는 본질을 강조하시면서 그곳을 어둠의 장소라고 말씀하셨다(마8:12; 22:13; 25:30). 베드로 역시 지옥의 어둠에 대해 기록했고(벤허2:4) 사도 유다도 짧지만 권능 있는 자신의 글에서 지옥의 끔찍한 어둠에 대해 기록했다(유13). 지옥의 특성 중 또 하나는 그것이 깊고 넓다는 것이다. 계시록에는 지옥이 밑바닥 없는 구덩이 즉 무저갱으로 일곱 번 언급된다(계11:7, 17:8, 20:1, 3 등). 지옥으로 가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거기는 그들을 수용할 충분한 공간이 있으며, 그 길이 좁아지기 시작하면 지옥은 스스로를 키운다(사5:14). 또 지옥은 절망의 장소이다(계14:11). 지옥에는 희망이 없으며 지옥에 있는 자들은 산 채로 불 호수에 던져져서 영원히 산 채로 남아 있어야만 하는데 이것이 바로 지옥의 본질이다(계19:20). 예수님을 믿지 않은 악인들이 궁극적으로 영원토록 살 "불 호수"는 성경에 정확히 언급되어 있지 않다(계19:20; 20:14).

제26과 미가.나훔.하박국.스바냐

미가는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에 살던 히브리 대언자입니다. 그는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살았습니다(사1:1). 또한 우리는 이사야 1장에서 미가와 이사야 시대에 살던 유대 백성들의 영적 상태에 대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사야 1장 2-6, 16, 18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유대 백성들은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미가

미가 시대에 유대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유다라는 남 왕국과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북 왕국으로 분열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가에게 이 두 도시에 대한 특별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미1:1). 1)_____ 2)_____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주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미7:8 참조) 오래 전에 모세도 이와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출15:11 참조). 당신은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습니까? 미가 시대에 살았던 유대 백성들은 주와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주께로부터 돌아서서 우상들을 숭배하였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면 우상 숭배는 가장 어리석고 큰 죄를 짓는 잘못된 것입니다.



메시아 탄생의 대언자들

이사야와 미가는 종종 “메시아 탄생의 대언자들”이라고 불립니다. 그들은 동시대에 살았으며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약 700년 전) 둘 다 메시아 탄생에 대해 기록하였습니다. 이사야의 ‘메시아 탄생의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과 9장 6-7절에 나옵니다. 이 절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아기로 태어나실 것이며 처녀의 몸에서 탄생할 것을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미가의 유명한 ‘메시아 탄생의 말씀’은 미가 5장 2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헬 에브라다야. 네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아오리라.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은 베들레헬에서 태어나실 것입니다! 미가는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탄생이 일어나기 700년 전에 기록하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⁸⁾ 약 700년이 지난 후 동쪽으로부터 지혜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습니다(마2:1-2). 당연히 유대인들은 정답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알았습니다! 그들은 미가를 보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베들레헬 에브라다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마5:2). 지혜자들도 작디작은 양치는 마을에 와서 왕에게 경배를 하였습니다.⁹⁾

8) 성경의 예언들은 실제로 사건들이 발생하기 수세기 전에 예언되었으며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었고 그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은 사건이나 사람들의 역사와 성격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언들은 정확하게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 처형과 유대인들의 흠여짐과 보존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에스라성경사전>

하나님이 미가에게 주신 메시지

히스기야 왕 시대 때 미가는 주의 위대한 대언자였습니다.(렘26:18-19 참조).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에게 아주 오래 전에 주셨던 메시지는 다음의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 의식주의(儀式主義)는 외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며 내면이 올바르게 되는 것 없이 외면만 ‘종교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면과 외면의 의(義)를 원하십니다. 미가 시대에 유대인들은 매우 종교적이었지만 그들은 의롭지 않았습니다(사1장 참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과 올바른 관계와 올바른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네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미6:8).

2) 죄의 형벌은 사망이며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이 죄를 지으면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창2:17). 죄(인간의 잘못된 태도와 행동)는 죄인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끕니다. 하나님은 죄와 죄인을 용납하시거나 축복하실 수 없습니다. 그분은 죄¹⁰)를 심판하셔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대적하셔야 합니다. 지속적인 죄는 분명히 파멸로 이끕니다! 분명 유대인들은 미가 대언자가 활동하던 당시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까?(미1:5)

3)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간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언젠가 베들레헬에서 나시게 될 구원자 예수님 안에서 나옵니다! (미5:2) 그분은 사람이 오직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걸을 것을 요구하십니다(미6:8). 그분은 인간의 마음을 오늘날에도 다스리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천년 왕국¹¹) 때 온 세상을 통치하실 것입니다(미4:1-7).

4)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사면하시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들의 혼들은 사랑하십니다(미7:9, 7:18-19, 요4:2).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주의하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미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베들레헬에서 태어날 구원자와 죄인들을 용서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를 받았습시다. 만일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들을 귀가 없다면 이것은 그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계2:7) 미가는 세 번씩이나 간절하게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며 들어야 한다고 대언하였습니다(미1:2, 3:1, 6:1).

“너희 모든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오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귀를 기울일지어다.”(미1:2).

9) 유대인들이 유프라테스 너머로 끌려가면서 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널리 퍼지게 되자,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 온 동방의 지혜자들은 지혜를 구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찾아내고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베들레헬까지 올 수 있었다.

10) 성경은 죄를 가리켜 욕 혹은 욕신, 죄와 사망의 법 등이라 한다(롬8:1-2; 요일3:4; 5:17). 그래서 죄를 짓는 혼은 반드시 죽는다. 단 하나의 죄라도 사람의 혼을 완전히 멸절시키는데 이것은 마치 전기 줄의 한 부분이라도 끊어지면 전기가 흐르지 않는 것과 같다.

11) 계20:1-6에 기록된 대로 땅에서 1000년 동안 지속되는 그리스도의 왕국. 구약의 대언자들은 줄기차게 이 기간이 온 우주가 의로 치리를 받으며 온 땅이 복을 받는 때라고 묘사했다. 어떤 이들은 1000년이 단순하게 완전한 수를 뜻하며 따라서 천년왕국이란 새 하늘과 새 땅이 거하는 영원한 왕국이라고 주장하지만 성경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져서 주님께서 친히 철장 권세로 온 세상을 통치하심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나훔 대언자와 니느웨의 멸망

이방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하는 두 명의 대언자 가운데서, 이미 공부한 오바다는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이제 공부할 나훔은 니느웨(아시리아의 대도시)의 멸망에 대해서 대언하였습니다. 니느웨는 '저 큰 도시'라고 불렸는데(욘1:2), 이 어마어마한 도시는 티그리스 강가에 위치하고 있었고, 12미터 두께의 큰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큰 성벽의 꼭대기를 6개의 마차가 나란히 달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나훔이 대언을 할 당시에는 대 아시리아 제국은 절대 멸망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당시 아시리아 민족의 권력은 최고 정점에 있었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요나서 참고). 그러나 교만한 에돔을 끌어내시는 하나님(욘1:3-4)은 교만한 아시리아를 끌어내시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니느웨는 죄와 사악함이라는 또 다른 면에서 대단했습니다. "피 흘리는 도시에 화가 있을지어다."(나3:1). 니느웨는 피를 흘리고 잔인하며, 죄악으로 가득찬 도시였습니다!

나훔-요나 2부

나훔은 '요나'의 2부라 불릴 수 있습니다. 요나에서 우리는 또한 아시리아 사람들에 대해 배웁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선포했을 때,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그들 중에 가장 큰 자로부터 가장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 굶은 베틀을 입었습니다(욘3:5). 그들은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켰으며,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 도시를 건지셨고 심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욘3:10).¹²⁾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질 때까지 겨우 40일이 남았지만(욘3:4),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에게 행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셨고 그들을 멸망시키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 아시리아 사람들은 다시 자신들의 방향을 바꿔 악한 길로 되돌아갔고, 또다시 그들은 심판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 하십니다. 그분은 사악한 아시리아 사람들에게 40일 이상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그분은 그들에게 40년 이상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 큰 도시 니느웨는 바빌론과 메대 사람들이 쳐들어 와서 마침내 B.C. 612년에 멸망했고, 이것은 요나가 같은 도시에 선포한 지 거의 200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심판을 거의 200년이나 지연시키셨지만 결국 니느웨는 예전의 영화를 회복하지 못하였습니다(나3:7,15,19). 참고로 니느웨는 지난 2,000년 이상 동안 그 도시가 폐허가 된 채로 남아 있었고, 이 도시의 잔해들은 최근(1843년)에야 발견되어 발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주께서는 분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권능이 크시며 사악한 자를 결코 사면하지 아니하시리이다."(나1:3).

이 말씀의 앞부분은 그분의 심판이 절대 오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분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사악한 자를 결코 사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나1:3). 이것은 사악한 사람은 반드시 자신들의 죄들로 인해 벌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간과하실 수 없으시며, 죄가 없는 것처럼 하실 수도 없습니다.

12) 결국 요나시대 아시리아 사람들은 악한 길에서 돌이켰지만, 나중에는 다시 악한 길로 되돌아갔습니다. 요나 시대의 회개는 일시적인 것이었으며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음에 일어난 새로운 세대들은 이전의 사악함을 반복하였습니다(욘1:2 참조).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을 가든지(구원) 하나님을 길을 대적하든지(총돌=심판)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대적하기를 택한 사람들은 오늘이 아니라도 심판(총돌)의 날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심판은 피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것입니다! 단지 그것은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오직 한 길만 있습니다. 그 길은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시94:1, 히10:30).

“주께서는 선하시고 고난의 날에 강한 요새가 되시나니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나1:7).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요14:6).



하박국-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은 바빌론 침공 바로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대언자 하박국은 혼란을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질문의 대언자’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기를 원했던 질문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박국은 이 세상의 죄와 악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계신 거룩하신 분임을 알았습니다(합1:12).

다음은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응답을 정리해 본 것입니다.

질문1) 왜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십니까?

하박국은 불법과 학대와 노략과 폭력을 보았습니다(합1:2-3). 자신의 주변에 있는 죄를 보았습니다. 또한 유대 사람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습니다. “하나님 왜 아무것도 아니하십니까? 왜 악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악과 죄가 횡행하는 것을 허용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답-악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실제로 지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뭔가를 하실 것이고 그분은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박국 1장 5-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대언자 하박국에게 이제 바빌론 사람들(갈대아인)이 침략을 해서 유대인들을 정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빌론을 사용하여 유대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질문2)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자기들보다 더 사악한 민족에 의해 벌을 받게 하십니까?

첫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하박국을 훨씬 더 혼란스럽게 했으며 또 다른 질문을 하게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치시기 위해 바빌론을 사용하십니까? 또 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보다 더 사악한 백성들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치십니까?

●하나님의 답-하박국은 좋은 질문을 하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자에게 제대로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러한 신앙의 갈등과 고뇌로 씨름하던 중 하나님으로부터 궁극적으로 악인은 심판을 당하고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는 놀랍고 신비한 해답을 얻게 됩니다(합2:4).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바빌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보라,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그의 속에서 곧바르지 아니하나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교만은 사망으로 이끌며 믿음은 생명으로 이끈다는 것을 가르치기도 하는 위 구절은 두 부류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으며,¹³⁾ 이 절은 매우 중요해서 신약에서도 세 번이나 인용되고 있습니다(롬1:17, 갈3:11, 히10:38). 하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요6:47; 요일5:11-12). 믿음이 생명으로 가는 핵심입니다! 하박국은 의문부호로 시작하지만 감탄부호로 끝을 맺습니다. 끝부분에서 하박국은 자신의 힘이 되시는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있습니다(합3:18-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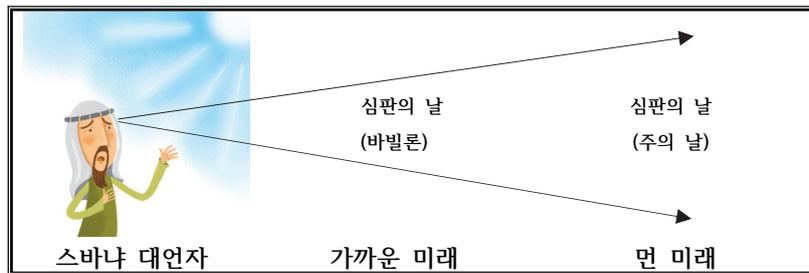
 **삶의 문제들로 혼란스러울 때 아래의 내용을 기억해 보세요!**

1. 하나님은 해답을 가지고 계시며, 자신이 하시고 계신 일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2. 믿음이 핵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르면 됩니다! 성도의 믿음의 삶은 주님을 기뻐하는 삶입니다(합2:4, 합3:18).
3. 성도는 보여 지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늘 우리의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스바냐-주의 날**

스바냐의 주제는 <주의 날>입니다. 스바냐는 주의 날이라는 표현을 다른 어떤 대언자보다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슥1:14-16), 우리는 스바냐의 기록에서 이것이 주의 진노와 분노와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고 반복해서 듣게 됩니다(슥1:15; 2:2,3).

스바냐는 유다 왕 요시아 시대에 살았고,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이었으며(슥1:1), 다가올 바빌론의 침략을 주의 진노와 심판의 날로 미리 내다 본 대언자였습니다. 그러나 바빌론 침략은 먼 미래에 있을 훨씬 더 큰 ‘주의 날’의 표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대언자 스바냐는 주의 심판이 다가온 것(슥1:14-18)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슥2:17)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왕국을 보았습니다(슥3:14-20). 스바냐는 대부분의 대언자들과 같이 다가올 심판에 대해 경고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가올 천년 왕국까지 이어지는 주의 날을 강조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대언하였고 그들을 위로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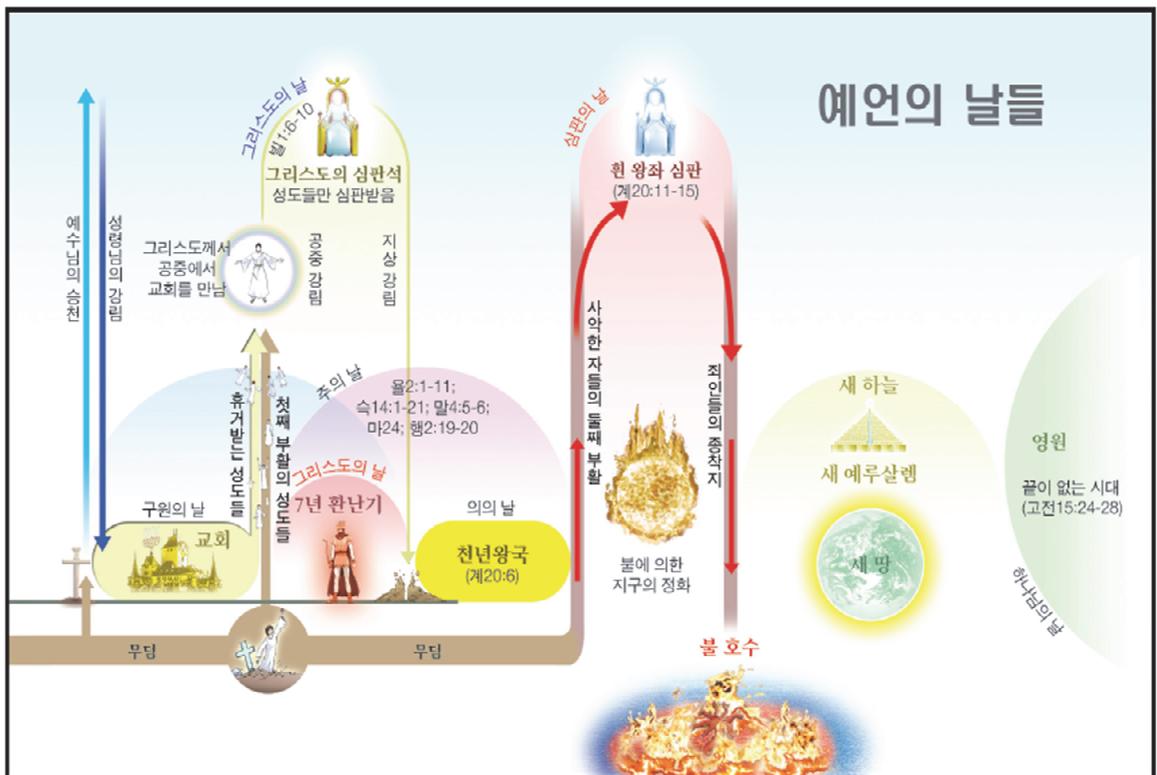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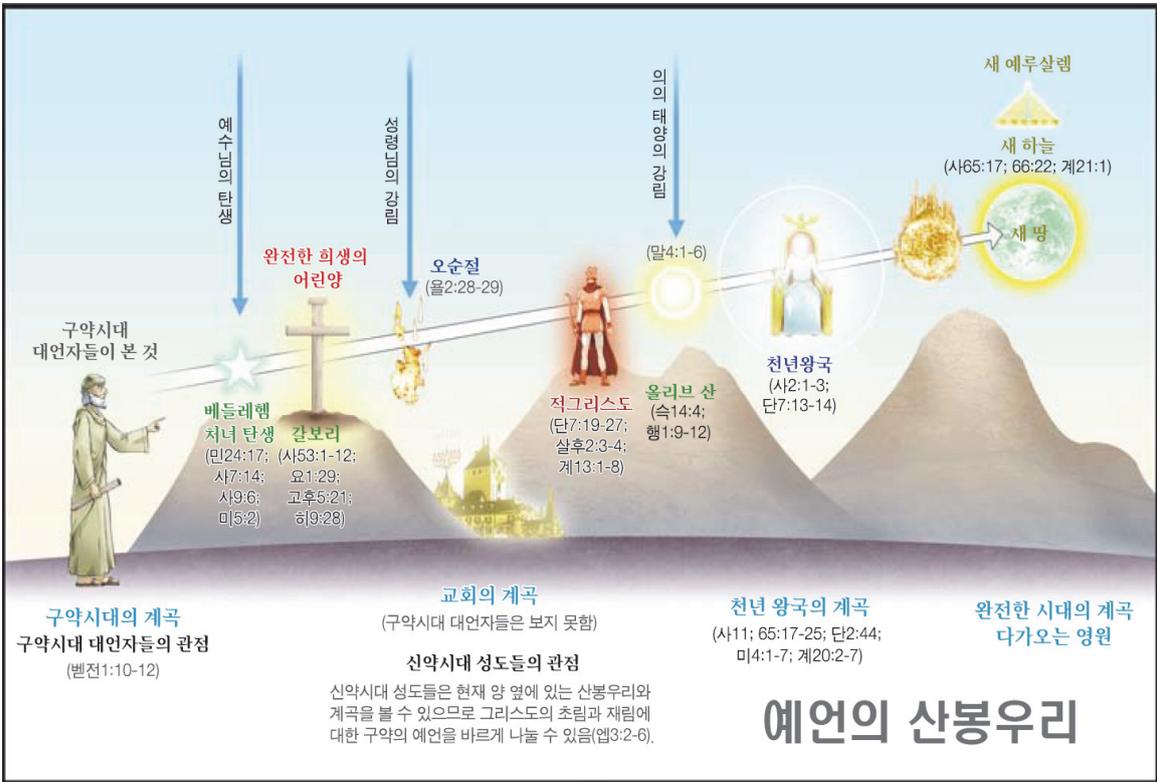
 **생각해보기!**

- ▶ 어떻게 사람이 고난과 심판의 때에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 ▶ 당신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곳을 찾았습니까?
- ▶ 하나님은 당신의 안전한 처소요, 반석이요, 요새가 되십니까?(시71:3)

“지금까지 그의 판단의 공의를 행한 땅의 모든 온유한 자들아, 너희는 주를 찾으며 의를 구하고 온유를 구하라. 혹시 너희가 주의 분노의 날에 숨겨지리라.”(슥2:3).

13) “비뚤어진 무리는 파멸을 향해 흐르며 다른 무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움직입니다.”(버논, 맥기: J.Vernon McGee).

예언의 산봉우리와 예언의 날들



제27과 학개

이제 거의 구약성경 여행을 끝내 갑니다. 우리는 36권의 책을 만났는데, 이제 남은 것은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이 3권은 모두 바빌론 포로생활 이후에 기록된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마지막 역사책들	구약에서의 마지막 대언서들
에스라. 느헤미야기. 에스더기	학개. 스가랴. 말라기
☛모두 바빌론 포로생활 이후 기록됨	

학개¹⁴와 스가랴의 역사적 배경

우리는 학개를 생각할 때 스가랴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하며, 스가랴를 생각하면 학개도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두 사람은 함께 언급되며(스5:1, 6:14), 이들은 역사상 같은 시대에 속했고, 같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이 성전 재건의 위대한 역사를 마치도록 독려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역사적 배경은 에스라를 배울 때(13과) 논의되었으므로, 이제는 바빌론 포로생활 이후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다시 한 번 기억을 상기시켜 보겠습니다.

70년간의 바빌론 포로생활 이후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흔드셔서 유대인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도록 하셨습니다(스1장). 당시 약 5만 명의 유대인들(스2:64-65)이 스룹바벨(총독)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수아)¹⁵의 인도로 돌아왔는데, 이들은 큰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겨우 소수의 ‘남은 자’였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 살았던 유대인들과 비교하면 숫자상으로는 매우 작았는데, 이 유대의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들은 그 도시와 성전이 폐허가 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그들이 바라본 솔로몬의 위대한 성전은 바빌론 사람들에 의해 파괴되었으며, 재와 돌무더기를 제외하고는 남아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대하36:19).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처음으로 한 일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의 수는 미약했지만, 그들이 하는 일은 매우 크고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또한 유대인들은 또 다른 문제에 봉착했는데, 그것은 그들이 사방으로 성전 건축을 원치 않는 적들로 둘러싸여 있었던 것입니다(스4장 참조). 아마도 그들의 상황은 다음과 같이 묘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소수였으며,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매우 큰일이었고, 적들은 많고 흉포했다.”

이렇게 모든 것이 그들을 대적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대적하지 않으셨습니다(롬8:31).

14) 학개 대언자는 젊었을 때에 스룹바벨과 함께 바빌론에서 돌아와 다리오 왕의 제2년 8월에, 학개 대언자로부터 두 달 후에 대언하였다(속1:1; 2:4). 이 두 대언자는 열심을 다해 백성을 격려해서 여러 해 동안 중단 되어 온 성전 건축을 하게 하였다(스5:1).

15) 예수아(jeshua)-여호사닥의 아들. 그는 여호수아라고도 불리며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 유대인들이 귀환할 때에 대제사장이었다. 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과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위해 힘썼다(스4:3; 5:2). 그의 이름은 그 당시의 대언 속에서도 등장한다(학1:1; 2:2; 속3:1-10; 6:11-15).

성전 건축 진행

에스라 3장에서 우리는 성전 재건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읽습니다. 성전 재건(약 BC 536년)의 일은 출발이 좋았고, 사람들은 열심히 일했으며, 마침내 성전의 기초가 놓였습니다(스 3:10). 당시 많은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였고 하나님을 찬양했지만(스3:10-11), 일부 연로한 유대인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솔로몬 왕이 지었던 첫 번째 성전의 웅장함을 기억하였고, 이 두 번째 성전은 그만큼 크지 않았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스3:12-13).¹⁶⁾

성전 건축은 에스라 4장에 기록된 사건에 이를 때까지 잘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들의 적들이 유대 민족의 손을 약하게 하고 건축하는 일에서 그들을 괴롭게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스4:4). 이것 때문에 그 일은 다리우스 왕의 시대까지 중단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약 15년 동안 아무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의 기초를 놓았지만 그것이 전부인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에스라 5장 1절에서 두 명의 대언자들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그때에 대언자들 곧 대언자 학개와 잇도의 아들 스가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곧 그들에게 대언하였더니”

그때는 B.C. 520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대언자들을 세우셔서 백성들이 다시 성전 건축의 일로 돌아오도록 독려했습니다! 두 대언자들의 도움과 독려로 사람들은 성전 건축 사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스6:14-15). 성전 건축은 이 일로 부터 약 4년 후 B.C. 516년에 끝이 났습니다!

학개-마음을 강하게 하고 일하라!

우리가 이 짧은 책을 읽을 때 학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다시 성전 건축을 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사용하셨던 사람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은 완성되어야 합니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 집을 건축하라!”(학1:8).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완성하는 큰일을 위해 사람들을 움직이도록 학개를 사용하셨고 보내셨습니다! 학개는 모든 대언자들처럼 하나님의 대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학개의 입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학개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이 책을 읽어 나갈 때 이것은 더욱 분명해 집니다. 이 책은 두 장으로 되어 있지만, ‘주가 말씀하시느니라.’ 또는 ‘주의 말씀이 임하니라.’와 같은 구절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맨 처음 오셔야 한다.

학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약4:8).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소홀히 여기리라.”(삼상2:30).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6:33).

16) 이 성전의 크기는 이전 것과 같았으나 겉모습은 이전 것보다 떨어져서 처음 성전을 본 사람들은 초라한 모습의 새 성전을 보고 슬퍼하였다(학2:3). 하지만 주님은 이 집의 영광이 처음 것보다 크리라고 위로의 말씀을 주셨다(학2:9).

- ▶당신은 하나님을 당신의 삶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자리로 모셔야 합니다.
- ▶당신이 하나님을 멸시한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소홀히 여기실 것입니다.
- ▶당신이 하나님을 제일로 둔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마6:33).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폐허로 나뉘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 올 수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까?(학1:2) 그들의 생각이 옳았습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우선순위를 모두 뒤섞어 버렸습니다(학1:4 참조). 그들은 첫 번째 할 일을 첫 번째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편안하고 근사한 널빤지로 된 집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집은 피폐하였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첫째로 두지 않는다면 그들이 어떻게 진정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학1:6)¹⁷⁾ 그것은 돈을 구멍 난 주머니에 넣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¹⁸⁾

믿음의 선한 행위와 기억할 말씀들

- ▶하나님께서서는 유대인들이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셨습니까? (학1:8)
-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떻게 순종하였습니까? (학1:12-15)
- ▶하나님께서서는 무슨 말씀을 통해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십니까? (학1:13)
- ▶학개는 두려워하며, 연약한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으로 독려합니까? (학2:4-9)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학개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뿐 아니라 오늘날 믿는 자들에게도 놀라운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를 통해 할 일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는 자들이 섬기는 일을 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엡4:12). 이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집, 학교, 일터,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입니다.

성도로써 기억할 말씀들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엡4:12).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견게 하려 하심이니라.”(엡2:10).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딤후2:14).

17) 하나님은 하늘의 백성인 교회에게는 땅의 복을 약속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하늘의 백성에게 약속된 것은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입니다(엡1:3). 구약의 복의 관점에서 보면 바울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아내도, 자식도, 집 한 칸도 없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자요,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땅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땅의 복과 하늘의 백성인 교회의 하늘의 복을 착각하는 데서 오순절/은사주의의 기복신앙/샤머니즘이 나옵니다.

출처: http://www.keepbible.com/bbs/board.html?board_table=free&write_id=12303#c_

18)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는 잠정적인 것, 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정신적인 것 등이 있으며 이 복에는 항상 그분의 선하심이 함께한다(민6:23-27).-<에스라성경사전>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히10:24).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자기들이 바라볼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 돌아보시는 그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벧전2:12).



세 가지 성전들

▶ 학개 2장에 나오는 세 가지 성전¹⁹⁾

첫째	솔로몬의 위대한 성전(학2:3)-이것은 첫 번째 성전이며 영화롭고 큰 성전이었음.
둘째	두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과 학개 시대에 재건된 성전(학2:3)-솔로몬의 영화롭고 큰 성전과 비교해 볼 때 초라했음.
셋째	미래의 영광스러운 성전은 왕국시대에 이 땅에 세워질 것임(학2:7,9).-에스겔은 에스겔서 마지막 장에서 이 성전에 대해 이야기 했으며(10과 참조), 미래의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영광스러울 것임.

▶ 크기순으로 비교하는 세 성전(연대기 순 아님).

큰	스룹바벨 성전은 바빌론 포로생활 이후 고국에 돌아온 유대의 남은 자가 건축하였으며, 적은 사람과 그들이 가진 재료로 최선을 다하였음.
더 큰	솔로몬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보다 훨씬 더 컸음. 솔로몬이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인력을 가지고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건축물 중의 하나를 건축함.
가장 큰	왕국의 성전은 모든 건축물 중에서 가장 클 것임. 그 영광과 위대함은 솔로몬의 성전을 능가할 것이며(학2:9).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성전이 세워질 때 이 땅의 왕이 되실 것임! 그분은 학개가 ‘모든 민족들의 바라는 바’라고 묘사한 분이심(학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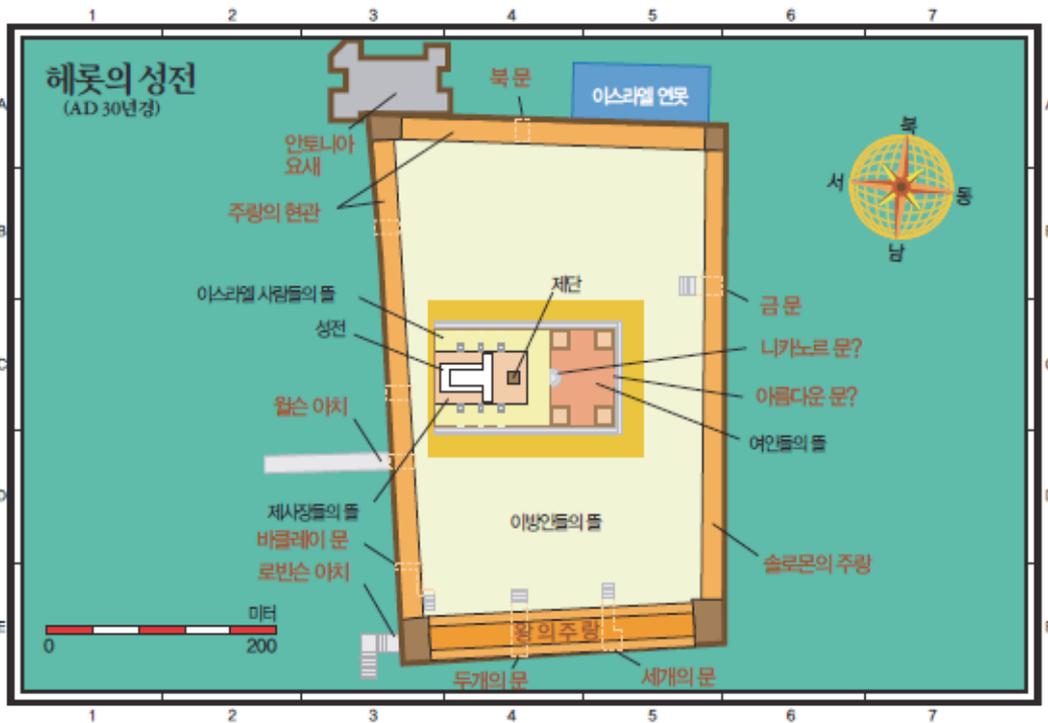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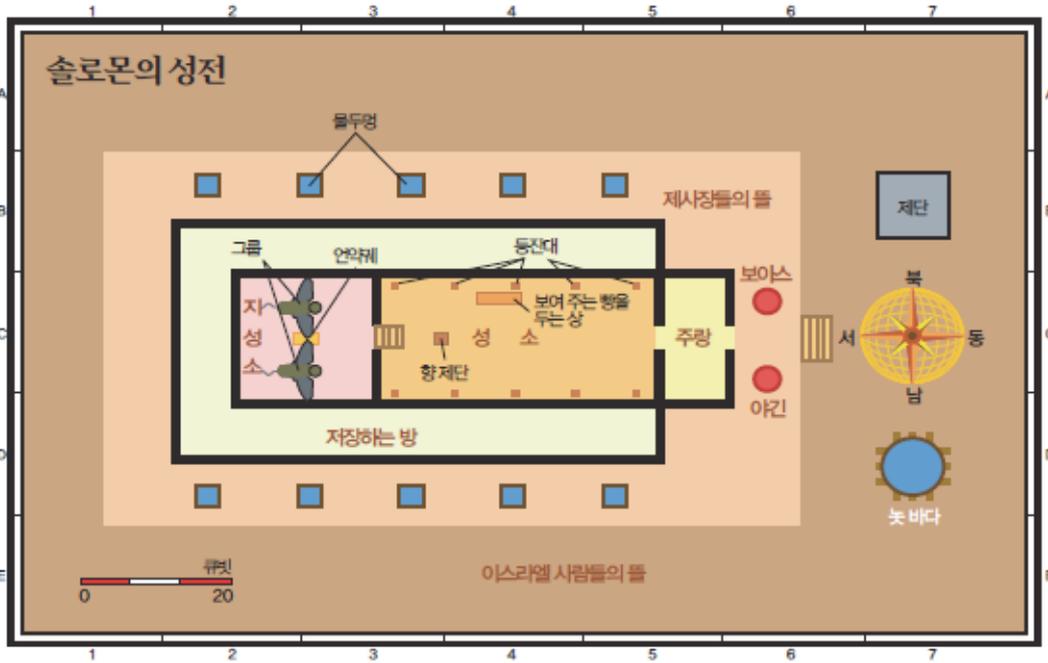


기억하기!

학개 시대에 살던 유대인들은 첫 성전만큼 큰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낙담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낙담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이 ‘마음을 강하게 하길’ 원하셨습니다(학2:4 세 번 나옴). 우리는 이 책을 통해 하나님을 우선에 두고, 마음을 강하게 하며, 자신이 해야 할 것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학1:13). 또한 학개의 메시지는 단지 성전 건축에만 제한되어 있지 않았고, 그 문제에서부터 시작하여 계속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런 임재와 장차 세워질 하나님의 지상 왕국, 사악한 세상 권세들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민족들을 위한 예비 된 복 등을 기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 경건한 유대인들은 언제나 성전을 향해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성전을 사랑하였다(시 84:1-12). 그런데 어떤 이들은 헛된 열심에 빠져 위선과 우상숭배로 성전을 자랑하였으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이 성전을 향해 신성모독 죄를 범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마 26:61; 27:40; 요2:19-20; 행6:13; 21:27-30). 한편 신약시대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신자의 몸이며(고전3:16-17; 6:19; 고후6:16) 신약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는 결코 성전이 아니다. 교회가 의식화되어 천주교처럼 변하면서 목사가 제사장(사제)처럼 행세하고 예배당이 성전이 되는 구약 체계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비성경적이며 우리 주님이 미워하시는 일이다.-<에스라성경사전>

 솔로몬의 성전과 헤롯의 성전²⁰⁾



20) 헤롯은 자신의 통치 제1년인 주전 37년에 두 명을 빼고 산헤드린의 모든 회원을 죽였으며 이것을 속죄하기 위해 성전을 재건하고 미화하기로 하였다. 그는 2년 동안 자재를 모은 뒤 스투바벨의 성전을 허물고 46년에 걸쳐 다시 지었다. 이렇게 완공된 성전에 주님이 들어가셨으므로 학2:9; 말3:1의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다. 당시 온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로 여겨지던 헤롯성전은 우리 주님의 예언대로 주후 70년에 로마 사람들에 의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막13:2).

제28과 스가랴.말라기

스가랴는 12명의 소 대언자 중 11번째 인물입니다. 그는 젊었을 때 스룹바벨과 함께 바빌론에서 돌아와 다리오 왕 제2년 8월에 학개 대언자로부터 두 달 후 대언하였습니다(스1:1; 2:4).

서로 다른 스가랴와 학개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서로 다른 종류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신약에서 바울과 요한은 같은 방식으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긴 문장으로 기록하였는데, 예를 들면 로마서 1장 1-7절은 모두 한 문장입니다(엡1:3-12 비교). 한편 요한은 간결하고 단순한 문장으로 기록했습니다(요일4:19). 바울과 요한은 서로 다른 기록 스타일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둘 다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성전 건축하는 일을 다시 시작해 마칠 수 있도록, 스가랴와 학개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도 기록 스타일이 달랐습니다. 학개는 매우 실용적이고 실제적이며, 두 발을 땅에 딛고 선 것처럼 현실적이었고, 그의 메시지는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 집을 건축하라(학1:8)/ 나는 너희와 함께 하노라(학1:13)/ 마음을 강하게 할지어다(학2:4)

한편, 스가랴는 구름에 머리를 둔 것처럼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스가랴가 환상으로 가득 차 있으며 어떤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합니다. 스가랴서는 약 8개의 환상이 나옵니다(1-6장 참조). 많은 면에서 이 책은 계시록과 유사합니다.

예) 붉은 말을 탄 사람에 대한 환상(1장)/ 네 개의 뿔에 대한 환상(1장)/ 측량줄을 가진 사람에 대한 환상(2장)/ 황금 등잔대의 환상(4장)/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5장)/ 네 개의 병거에 대한 환상(6장) 등

이 사람들은 서로 다르며 다르게 기술하였지만 둘 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기를 원하시는 단어들을 정확하게 받아 적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개가 딱 2장 길이의 간결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길 원하셨고, 스가랴는 자신이 본 환상에 대해 14장으로 기록하길 원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오늘 날에도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지체인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 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고전12:27). 당신과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특별한 방식으로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당신은 누구와 함께 하는가?

스가랴 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서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서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소홀히 여기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삼상2:30). 학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존중히 여기고 제일 첫째로 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스가랴 4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에게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책의 핵심 절입니다. 분명 유대의 소수로 남은 자들은 힘과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숫자는 적고 보잘 것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수가 적다하더라도 그들은 크신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들을 기억합니까?(p.16) 그들은 이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답은 바로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할 수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능력과 힘을 가지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오늘 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너무나 큰 것 같은 힘겨운 문제에 부딪힌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너무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그분은 가능하십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빌 4:13). 또 다른 독려의 말은 성전의 기초가 놓인 지 약 15년이 지나서 스가랴 4장 9절에 나옵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은 이후로 어떤 것도 이루어진 것은 없었습니다. 그 일은 정지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끝없이 연기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스가랴 4장 9절에 의하면 누가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까? 누가 성전 건축을 끝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성전이 건축될 것이며, 이 건축을 시작한 사람이 또한 그것을 끝낼 것이라고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누가 작은 일들의 날을 멸시하느냐?”(슌4:10). 유대인들에게 두 번째 성전은 작고 중요하지 않게 보였습니다. 솔로몬의 위대한 성전과 비교한다면 이것은 보잘 것 없게(NOTHING)보였을 것입니다(학2:3).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것이 보잘 것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신다면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크기나 규모에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건축자의 마음과 영적 상태에 더 관심을 두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자신의 기쁨을 위해 행하게 된 ‘작은 것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모든 자가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하길’ 원하십니다(눅16:10).

스가랴가 본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

스가랴는 메시아에 대해 다른 소대언자들보다 더 많이 말했습니다. 스룹바벨이 인도한 유대의 남은 자가 소수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그 민족에게서 나올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기 원하셨습니다. 그는 예언의 산봉우리를 통해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을 보았습니다.

초 림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가장 큰 예언은 스가랴 9장 9절에 나옵니다. 이 구절은 분명 유대의 왕이 겸손하사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오실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슌9:9). 이 말씀으로 부터 대략 500년이 지나서 이 일은 실제로 일어났으며, 예수님께서 문자 그대로 초림에 대한 이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마21:1-11).
재 림	스가랴 9장 10절에는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끊고 예루살렘에서 말을 끊으며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교도들에게 화평을 말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그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성취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스가랴 14장 4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 배우게 되며, 스가랴 12장 9-14절에서도 또 다른 놀라운 예언을 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 백성들은 그분을 거절하고(요 1:11)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마27:22-25).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오실 때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곡”(슌12:10)한다는 말씀처럼, 유대 백성들은 자신들이 행한 것에 대해 깊은 슬픔에 잠길 것이며, 민족적인 회개를 통해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메시아요 구원자로 받아들일 것입니다(롬11:25-27 비교).

우리의 소망

오늘을 살아가는 믿는 자들로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요14:3). 그 날에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물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성경에서 내가 너희에게 행하도록 명령한 작은 것들을 너희는 신실하게 행했느냐?

우리 모두가 재림의 그날에 ‘수고했다’라는 그분의 말씀을 듣기 원하며,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현재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라기-하나님 사랑에 대한 인간의 슬픈 반응

말라기는 학개와 스가랴의 사역 이후 약 1세기 정도 지나서, 느헤미야 시대 후반에 대언하였는데, 그때는 유대 백성과 제사장들 사이에 질서가 전혀 없었고 그래서 그는 이것을 책망하였습니다. 그는 먼저 제사장들을 엄하게 꾸짖었고 백성들이 이방 아내를 취하며 형제에게 인정을 베풀지 않고 아내와 이혼하며 십일조와 헌물을 바치지 않는 것을 꾸짖었습니다.

유대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매우 간단합니다. 그것은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입니다(말1:2). 그러나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존귀하게 여기지도 않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 ▶ 그들은 그분의 이름을 멸시했습니다(말1:6)/ 그들은 오염된 희생헌물을 가져왔습니다(말1:7-8)
- ▶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말1:11-12)/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말3:5)
- ▶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빼앗았습니다(말3:8)/ 그들은 자신들의 말로 하나님을 지치게 했습니다(말2:17)

백성의 영적 상태와 남은 자

우리는 말라기 2장 17절에서 당시의 유대인들이 무의식적인 죄악에 이끌려 영적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말로 주를 지치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그분을 지치게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이르기를, 악을 행하는 자마다 주의 눈앞에서 선한 자며 그분께서 그들을 기뻐하신다. 하거나 혹은 이르기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 점에서 그리하였느니라.”(말2:17).

아마도 그들의 영적 상태는 <두 마리 개구리 이야기>와 같을 것입니다.

☞ 어떤 사람에 의해 개구리 한 마리가 끓는 물속에 빠졌고 개구리는 뜨거운 물에 닿자마자 바로 뛰어 올랐습니다. 다른 개구리는 미지근한 물에 빠졌고 점점 물은 아주 뜨거워질 때까지 조금씩 뜨거워졌습니다. 이 개구리는 그 물이 점점 뜨거워진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보였으며, 그래서인지 다른 개구리처럼 뛰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개구리에게 바로 이 물은 자신의 무덤이 된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개구리가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자손들과 같습니다. 이 백성들은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둔했습니다!

말라기 시대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모두 영적인 상태가 끔찍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유대인의 남은 자들이 소수 있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고(말3:16)/ 주에 대해 서로 자주 말하고(말3:16)/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고(말3:16)

이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매우 소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말3:16-17).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최선의 것을 받아 마땅하십니다!

말라기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들은 그분께 가장 못한 것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희생헌물의 동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말 1:8). 그들은 눈멀고 병들고 절룩거리는 동물들을 가져 왔습니다. 이것들은 자신들도 취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동물이었습니다. 이처럼 이들은 하나님께 최상의 것들을 가져 오는 대신에 가장 나쁜 것을 가져 왔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현 시대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최상의 것을 원하십니다. ‘내게 있는 향유와 옥합을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며 깨뜨립니다.’라는 찬송 가사처럼 주님께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생각해보며 어떻게 우리가 삶 가운데서 자신이 가진 최상의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지를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 주일에 입는 옷/ 찬송가를 부르는 태도/ 예배에 임하는 자세/ 성도의 교제와 언어생활

▶ 우리의 재능과 은사와 능력을 사용하는 것/ 우리가 기도에서 사용하는 언어/ 부모님과의 관계



의의 해와 나의 사자

우리가 배우고 본 것처럼 구약시대 대언자들은 자신의 시대 너머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들여다 볼 수 있었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말라기는 메시아를 “의의 해”(말4:2)라고 불렀습니다. 현 세상은 죄의 “악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의 해가 떠오르고 새 날이 밝아 올 미래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것이며 그분은 치료와 빛과 의를 가져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이 죄로 병든 행성을 치료하실 것이며 이 땅은 빛과 의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의의 해입니다.

말라기라는 이름은 히브리말로 “나의 사자”라는 의미이며, 사자(messenger)라는 단어는 말라기에 세 번 사용됩니다.(말1:7; 3:1) 또한 말라기 3장 1절은 우리들에게 초림과 재림 때 누가 주 예수 그리스도 보다 앞서서 오게 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그리스도의 초림을 위해 길을 예비할 것입니다(말3:1 막1:2-4 비교). 엘리야는²¹⁾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길을 예비할 것입니다(말4:5-6 참조).

21) 성경은 침례자 요한이 이스라엘의 대언자 엘리야와 비슷한 삶과 특성을 가지고 엘리야라는 이름으로 올 것을 예언하였다(말4:5-6; 마17:10-13). 주님의 초림 때에 침례자 요한이 엘리야로 왔듯이 그분의 재림 때에 그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계시록의 두 증인 중 하나가 엘리야의 영으로 올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계11).-<에스라성경사전>



구약에서의 마지막 말

구약의 마지막 절 말라기 4장 6절은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며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여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지 아니하게 하리라”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은 죄로 인해 저주를 받을 운명에 처해졌습니다. 구약은 저주로 시작해서 저주로 끝납니다(창3:14-17; 말4:6). 하지만 신약은 죄의 저주를 제거할 사람으로 시작합니다(마1:1).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형벌을 제거하시고 우리가 참된 복을 받도록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갈3:13-14).

구약의 메세지	구원자가 오고 있다!
신약의 메세지	구원자가 오셨고 다시 오신다!



400년의 침묵기

말라기는 B.C. 약 400년에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마지막 구약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이후로는 수세기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이나 메시지를 받지 못했습니다.²²⁾ 더 이상 대언자들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4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랜 침묵을 깨셨습니다. 그리고 말라기가 예언했듯이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하였습니다(말3:1).

말라기로부터 그리스도 시대까지 이 400년은 침묵의 400년이라고 알려졌습니다(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 말라기 이후 유대인들은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가 필요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신약의 계시가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나올 때 까지,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감 넘치는 말씀인 구약 39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면으로 보자면 현 시대는 성경이 완전하게 완성되어 하나님께서 오늘날에 더 이상 대언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신약성경이 완성된 이후로는(A.D. 약 100년) 거의 2,000년 동안 침묵의 시대가 있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²³⁾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을 주셨는데, 이 정보는 온전한 성경 말씀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기뻐할 수 있으며, 우리의 구원자가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휴거와 부활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 내가 가진 최상의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22) 보통 이 기간은 '침묵기'라 불리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계시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 기간에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났으며 세속 역사가들이 이런 사건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이 기간의 역사에 대한 가장 유명한 기록은 주후 37-100년 사이에 살았던 요세프스(Flavius Josephus)의 기록이다. 요세프스는 유대인 역사가로 주후 66-67년 사이에 로마제국에 대항하며 저항운동을 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이다. 타이투스가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을 정복한 뒤, 그는 로마로 끌려가 베스파시안, 타이투스, 도미티안 황제의 보호를 받았다. 그의 유명한 저술로는 「유대 전쟁사」(The Jewish War)와 「유대인들의 고대 역사」(Jewish Antiquities)가 있다.

23) 신약시대의 대언자들 역시 사도들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대신 전하였는데 그 까닭은 그때까지 기록된 성경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고전11:4; 14:1, 30 등 참조). 그런 차원에서 유대와 실라는 대언자였고 안디옥 교회에는 대언자와 교사가 있었으며 하나님은 교회에 사도들과 대언자들을 주셨다(고전12:28; 참조 행21:9; 엡2:20; 계18:20). 따라서 완전한 성경 말씀이 주어진 이후에는 더 이상 교회에 대언자가 필요 없고 존재하지도 않는다.

제29과 침묵기-구약과 신약 사이 400년



침묵기의 세계 권력²⁴⁾

A. 페르시아 왕국 시대(주전 333년까지 지속됨)

1. 몇몇 외경이 기록됨.
2. 유대인들이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팔레스타인으로 되돌아옴.
3. 성전이 예배의 중심이 됨(성전 회복과 성전 예배 부활).
4. 신정 정치, 제사장, 율법 체제의 새로운 확립/ 백성들의 행위와 공중 예배 개혁

B. 그리스 왕국 시대(주전 333-167년)

1.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이기고, 유대인들에게 자비를 베풀.
2. 유대인들이 흠어져서 그리스 문화를 받아들임.
3. 주전 323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그의 왕국은 네 명의 장군에 의해 분할됨.
4. 네 왕국과 그 통치자들

이 집 트 - 프톨레미	시 리 아 - 셀루시드
마케도니아 - 리시마쿠스	소아시아 - 카산데르

5. 이집트와 시리아는 팔레스타인 땅을 놓고 전쟁을 벌였으며, 유대인들은 이집트로 내려가 피난처를 찾기 시작함.
6. 소위 「70인역」이라 불리는 구약성경 역본의 전통에 따르면, 이집트 프톨레미 2세 필라데프스가 명령을 내려 70명의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어 구약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하게 했다고 함.²⁵⁾
7. 그 당시 가장 많이 쓰인 언어는 그리스어와 아람어(히브리 방언)임.

C. 마카비 시대(주전 167-63년)

1.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주전 175-164년 사이에 시리아의 왕으로 통치함.
2. 그의 정책은 자신의 왕국 전체를 그리스화 시키는 것이었으며, 그의 정책에 반대한 유일한 그룹은 유대인들이었음.
3. 신실한 대제사장 오니아스 3세의 형제인 야손은 안티오쿠스에게 뇌물을 바치면서 유대인들을 그리스화 시키는 조건으로 자기를 대제사장에 임명해 줄 것을 요구함.
4. 안티오쿠스가 칙령을 내리자 야손이 이를 유대인들에게 아래 내용으로 가져감.
 - a. 그의 왕국 어디에서나 누구든지 같은 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함.
 - b. 유대인들의 축제, 안식일, 희생, 할레 등을 지키거나 행하는 것을 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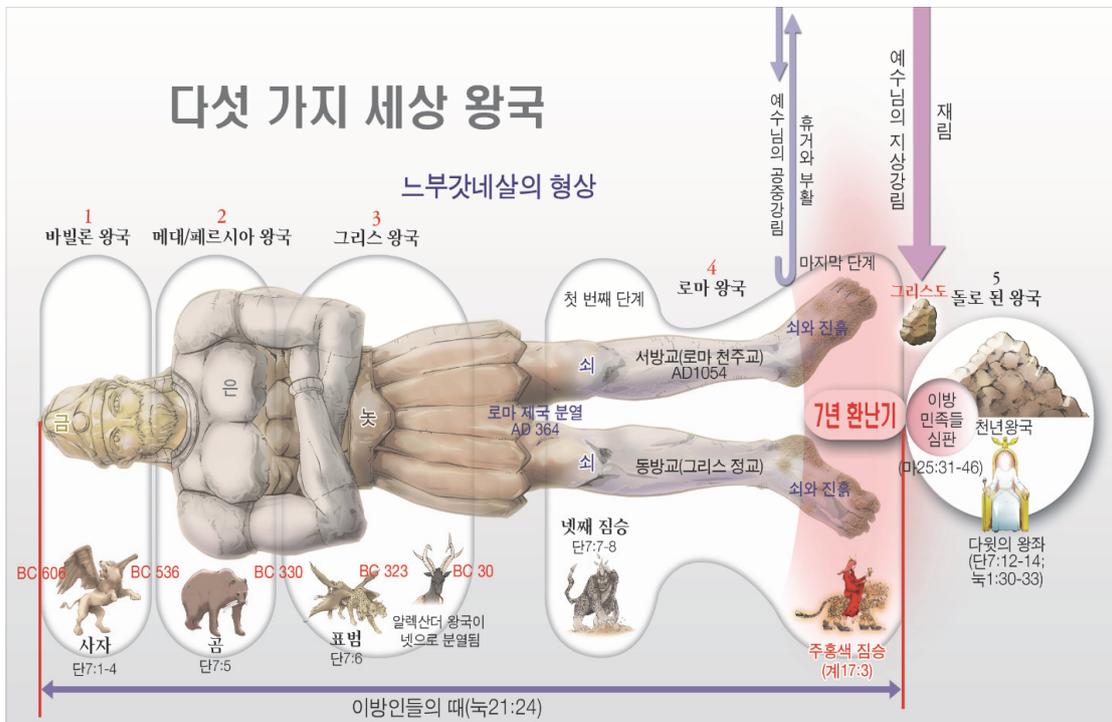
24) http://www.keepbible.com/bbs/board.html?board_table=03_05&write_id=222

25) 「70인역」은 보통 주 예수님 탄생 이전에 72명의 유대 학자들이 그리스어로 번역한 구약성경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누군가가 상상 속에서 꾸며낸 책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신비의 「70인역」을 사용했다고 가르침. 또한 현존하는 「70인역」 사본들은 모두 로마 카톨릭 교회만이 유일하게 권위를 인정하는 외경들을 포함하고 있음.-<킹제임스 성경 답변서 中>

5. 이 같은 칙령의 위협으로 사마리아인들은 시리아인과 한편이 되어 유대인들을 대적함.
6. 시리아의 안디옥 시민으로 등록하기를 거부한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는 요아립의 계통에서 나온 마타디아라는 이름의 나이 많은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와 그의 다섯 아들은 예루살렘 북쪽 산에 있는 자기 선조들의 영토로 들어갔음.
7. 안티오쿠스의 밀사들은 그를 찾아내어 이교도들의 제단에서 희생물을 바치라고 명령함.
 - a. 마타디아는 희생물을 바치려 한, 배도한 제사장들을 즉각적으로 죽임.
 - b. 그는 왕의 사자들을 죽이고 가증한 제단을 무너뜨림.
8. 백성들은 마타디아의 지도를 받으며 대항하였고 차츰 반역의 세력이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나이가 많은 마타디아는 이 일이 있은 뒤 1년이 지나 죽었고, 그의 아들들이 그의 일을 계속해서 수행함.
9. 그의 아들들은 마카비들이라고 불림. 그 이유는 장남의 이름이 '유다 마카비'였기 때문.
10. 10,000여 명의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켜 두 번씩이나 안티오쿠스의 군대를 패주시킴.
 - 한번은 50,000명, 또 한 번은 65,000명.
11. 유다 마카비는 주전 165년에 다시 성전에서 예배를 시작함.
12. 마카비들은 78년 동안 권력을 행사함.

D. 로마제국(주전63~?)

1. 폼페이 대제가 주전 63년에 팔레스타인을 정복함.
2. 주전 40년 로마는 헤롯을 왕으로 세웠고, 그는 주전 37년 유대 지방의 유일한 왕이 됨.
 - a. 헤롯은 에돔 사람임.²⁶⁾
 - b. 창세기 27장 40절의 예언이 헤롯 대왕을 통해 이루어짐.
3. 헤롯 대왕은 주전 4~5년까지 왕위에 있었고, 통치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남.



26) 에돔 족속은 페트라에서 내쫓김을 당해 남부 유대 지방에 정착했는데, 그리스 사람들은 이 지역을 이두매아(에돔)라고 불렀다.



변화된 것과 새로 나온 것²⁷⁾

신약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서 곧바로 우리는 다음에 나오는 익숙하지 않은 용어와 집단 등을 접하게 되는데, 이들은 모두 400년 동안의 '침묵기'에 생긴 것이다.

가.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

A. 제사장

1. 복음서에는 제사장은 12번, 대제사장 혹은 수제사장이라는 단어는 84번 나옴.²⁸⁾
2. 모세 당시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사장 직무의 기능은 종교적인 것이었음.
3.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뒤에 유대인들의 시민 권리는 제사장들의 손으로 넘어감.

B. 레위인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에 여러 레위 사람들이 유프라테스 너머에서 유대로 다시 돌아옴. (느11:15-19; 12:24-31). 신약성경에서는 그들이 자주 언급되지 않지만(눅10:32; 요1:19; 행 4:36) 서기관과 박사들은 주로 레위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추정됨.

C. 서기관(율법박사 혹은 율법사)

1. 구약성경을 공부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들.
2. 준비된 서기관은 모세 오경을 외웠고, 아주 전통적이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함.

D. 다스리는 자(치리자, 관원)

1. 여러 종류의 관리를 지칭하며, 신약에서는 큰 집의 청지기(마24:45, 47; 눅12:42), 잔치를 주관하는 자(요2:8-9), 회당을 다스리는 자(막5:36) 등이 치리자라 불렸다.
2. 용례: 연회장-요2:8,9/ 산헤드린 공회 회원-요3:1/ 주치리자-요12:42/ 행정관-눅12:58

E. 바리새인

‘바리새’라는 이름은 ‘분리하다’라는 히브리말에서 나옴. 이들은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에 하나의 특정한 분파로 등장하였고, 모세의 율법 조문을 중시하였지만, 자기들의 전통과 철학으로 그 안의 영적 진리를 무시하였음(마5:31, 43; 12:2; 19:3; 23:23).

F. 사두개인

1. 유대인들의 귀족으로 정치 집단임.
2. 종교적 측면에서 현대주의/자유주의자들임. 영의 존재를 부인하고, 부활을 부인하며, 혼의 불멸을 부인(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마카비 시대에 생긴 그룹으로 경쟁 관계임).

G. 헤롯당원

1. 정치집단으로서 이 이름은 로마정부의 권세를 위임받은 헤롯에게서 유래됨.
2. 정치상황을 변화시키려는 모든 시도를 반대함.

27) http://www.keepbible.com/bbs/board.html?board_table=03_05&write_id=222

28) 대제사장(high priest)이나 수제사장으로 번역된 그리스 단어는 동일하지만 킹제임스 성경은 이것을 대제사장과 수제사장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한 해에 대제사장이 한 사람뿐이기 때문이다.-<에스라성경사전>

H. 갈릴리 사람들²⁹⁾

1. 이 집단은 북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일어나 모든 외국 세력에 대항했음.
2. 정치적으로 광적인 사람들임.

I. 사마리아 사람들

1.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다시 사람이 거하게 하도록 할 때, 북 왕국 이스라엘의 열 지파와 이방인들의 결합으로 만든 혼혈 민족을 가리킴.
2. 아시리아의 에살하돈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제사장을 보내었으며 그 결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으나, 그들은 주 하나님도 두려워하고 동시에 자기들의 신에게도 경배를 드림.
3. 주전 535년, 유대인들이 두 번째 성전을 지을 때에 이들은 자기들도 이 일을 돕겠다고 했으나 유대인들은 이 같은 제안을 거부함.
4. 유대인에게 사마리아인은 늘 가증스런 존재였고, 적대감의 존재였음.

J. 디아스포라(흩어진 사람들)

1.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 3번 나옴 - 요7:35 ; 약1:1 ; 벰전1:1.
2. 이 단어는 밖으로 흩어져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며 포로 시절에는 그 규모가 매우 컸으며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서 돌아오지 않고 그 곳에서 남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지칭할 때는 그 규모가 작음.

K. 개종자(Proselyte)

유대인들이 볼 때 이교도 신앙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 그리스도 당시에는 개종자가 많았으며 예루살렘에서 많이 떨어진 곳에서도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 많았음(행2:10; 8:27). 한편 그들 중에서 많은 이들이 다시 구원받아 기독교로 개종함.

나. 회당과 공회

A. 회당

1.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로 이 기관의 유래는 바빌론 포로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감.
2. 성전 밖에서나 성전이 없는 경우에 유대인들은 작은 그룹으로 모였으며, 이런 방식을 통해 자기들의 종교적 삶을 온전하게 유지함.

B. 산헤드린(공회)

1. 공회는 모세가 구성한 70명의 상담자들에게서 유래됨.
2. 구성원에는 수제사장 또는 24개 제사장 계열의 수장들, 서기관이나 율법사, 일반사람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있었고, 공회는 70명이나 72명의 회원을 가짐. 대제사장은 공회의 의장을 맡았고, 이들의 임기는 종신은 아니었으나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됨.

29) 갈릴리 사람들은 용감하고 근면했지만 다른 유대인들은 그들이 우둔하고 예의가 없고 반역을 도모하는 사람이라고 여기며 경멸의 대상으로 삼았다(눅13:1; 23:6; 요1:46; 7:52). 그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구별할 수 있는 사투리를 쓴 것으로 추정된다(막14:70).-<에스라성경사전>



읽기자료-구약과 신약 사이의 400년³⁰⁾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서는 페르시아의 통치 하에 있던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의 실상을 보여 준다. 그렇다면 이때와 신약성경이 시작되는 때 즉 이스라엘의 숫자가 증가하여 로마의 지배를 받던 때 사이의 약 40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 문제에 대해 요세푸스를 비롯한 역사가들은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페르시아의 통치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많은 부분에서 독립을 유지하였고 그리스가 메대, 페르시아 왕국을 멸망시켰을 때에 유대인들의 대제사장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 주전 335년경에 경건한 대제사장 얏두아는 알렉산더 대제가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다니엘의 예언이 성취되는 줄로 믿고 그를 맞으러 나갔다. 한편 이런 일에 대한 꿈을 꾸었던 알렉산더는 하나님의 대리인인 얏두아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며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죽게 되었고 그의 장군들이 그의 영토를 분할했다. 그 중에서 안티고누스와 프톨레미 소테르는 가장 힘이 세어서 서로 경쟁자가 되었다. 이때 소테르는 예루살렘을 점령한 뒤 많은 사람을 죽이고 또 여러 사람을 붙잡아 이집트로 보냈다. 이집트로 내려간 유대인들은 거기 생활에 만족하면서 이집트와 그리스 사람들의 이방 종교와 말과 관습 등을 따르는 데 주저하지 않았고 후에는 정통 유대교와 헬레니즘을 접목시켜 타협적인 알렉산드리아 학파를 만들었다. 그 동안에 팔레스타인에서도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 사람들의 이방 신들을 숭배했으나 여전히 믿음을 지킨 남은 자들이 있었다(말 3:16-18). 이렇게 여러 해가 지나갔으나 새로운 대제사장 오니아스는 주전 247년경 이집트의 프톨레미 유에르게테스 통치 때에 유대인들을 곤경에 몰아넣었다. 백성들은 매해 공세를 내어야 했는데 오니아스는 그것을 까맣게 잊고 지냈다. 그런데 유에르게테스는 지금까지 밀린 공세를 한 번에 낼 것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유대인 국가를 멸절시키겠다고 했다. 그때에 오니아스의 조카인 요셉은 세금을 도급받는 권리를 획득함으로써 이 재난을 피하고 유대인으로서의 처음으로 조세를 징수하는 자가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시리아의 셀레우코스 왕조에서는 여러 왕이 집권했으며 이 둘 사이에 긴 팔레스타인에는 전쟁이 없는 날이 없었고 어느 쪽이 이기든지 유대인들은 피해를 보아야 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등지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로 내려가 유대 헤브라이즘의 주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스의 헬레니즘도 추구하면서 이중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때에 유대 지방에서는 두 그룹이 지도권을 놓고 경쟁하고 있었다. 하나는 바리새인들이며 그들은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면서 거기에 많은 것을 더했다. 다른 그룹은 사두개인들이며 그들은 철저한 현실주의자들로서 그리스 문화를 원하고 궁극적으로 다른 민족의 문화를 흡수해야 살 수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그리스 종교를 용인했다.

이때에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대왕은 자신을 에피파네스 즉 '빛을 받은 자'라고 부르며 예루살렘을 습격하여 사흘 만에 사만 명을 죽이고 많은 사람을 노예로 만들었다. 실로 그는 다니엘서 11장 21-35절에 이미 예고된 독재자였다. 그는 심지어 지성소에 들어가 거기에 우상 제단을 만듦으로 멸망의 가증한 것을 세웠다. 바로 이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공포에 휩싸였고 남은 자들 가운데서는 이렇게 무기력하게 지낼 수 없다고 느끼는 자들이 있었다. 이때에 해스모네우스 계통의 노인인 마타티아스(혹은 맛다디아)가 일어나 잔인한 정복자들에게 반항하였다. 비록 그는 일 년 이상 살지 못했지만 자기의 다섯 아들들에게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라는 명령을 주었다. 그의 셋째 아들인 유다는 '하나님의 망치'를 뜻하는 마카비(혹은 마카베오)라

30) 출처-<에스라 사전>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구약과 신약 사이>

불렸고 다른 아들들 역시 마카비라 불렸다.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힘을 회복하여 적군의 큰 군대를 이기고 마침내 성전을 정결케 하고 새 제단을 세웠다. 그러나 이와중에 유다 마카비의 형제인 엘르아살이 죽임을 당했고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잃어버린 유다는 그 당시 서방 세계의 지배적인 세력으로 떠오른 로마와 동맹을 맺었다. 그러나 시리아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유다는 패하여 죽임을 당했고 그의 형제인 요나단이 지도자가 되었다. 그러나 살인과 폭동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주전 135년경에는 위대한 마타티아스의 유명한 아들들(마카비) 가운데 마지막 남은 시몬마저 죽게 되었다.

주전 134년에서부터 30년 동안 통치한 시몬 마카비의 아들 요한 히르카누스는 로마와의 동맹을 갱신하였으나 그의 시대는 소동과 불안으로 점철된 어두운 시대였다. 그의 형제인 알렉산더 애니우스의 시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신약성경과의 연결고리가 처음 나타난다. 알렉산더는 주전 79년경에 죽었는데 그의 통치 때에 여대언자 안나의 남편이 죽었다(눅2:36-37). 안나는 과부가 된 지 84년이 지나도록 이스라엘의 위로 즉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보고 죽는 영광을 얻었다. 알렉산더의 아내인 살로메 알렉산드라는 그의 뒤를 이어 통치하였고 자기의 연약한 아들 히르카누스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였다. 이때에 이두매아 사람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안티파테르 즉 이두매아의 총독이 권력을 잡게 되었다. 그와 그의 대적들은 모두 로마의 장군 폼페이에게 도움을 받기를 바랐으며 이에 폼페이는 돈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으로 사람을 보냈다. 유대인 군사들은 자기들의 도시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결국 로마 사람들은 그들을 물리치고 유대인들의 독립을 빼앗아갔다. 이후로 유대는 로마의 한 지방이 되었으며 이것은 유다 마카비가 로마와 동맹을 맺음으로 인해 발생한 비참한 결과였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집권하자 안티파테르는 로마의 자유 시민이 되어 유대의 총독이 되었고 자기의 두 아들 즉 파사엘과 헤롯을 갈릴리와 예루살렘의 치리자로 임명하였다. 그때에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피살되었으나 그의 친구인 안토니우스가 집권하며 파사엘을 갈릴리의 사분영주로, 헤롯을 유대의 사분영주로 만들었다. 그러나 거기에는 많은 반대가 있어서 결국 파사엘은 자살했고 헤롯은 옥타비아누스 카이사르가 있는 로마로 도망했는데 옥타비아누스는 그를 유대의 왕으로 만들어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보냈다. 헤롯은 주전 37년에서부터 주전 4년까지 통치했으나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았다. 한편 그는 헤스모네우스(혹은 마카비) 계열 사람들 중에서 왕이 나올까 봐 직간접적으로 그 계열의 사람을 다 죽였다.

이로써 이스라엘의 소망은 끊어진 것처럼 보였으나 사실 이스라엘의 참 소망은 마타티아스의 씨(마카비)를 통해 오는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미 다윗의 씨를 통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복을 받도록 작정하셨고, 마침내 충만한 때가 이르러서 주전 4년경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여자의 씨로 이 땅에 보내셨다(갈4:4).

당시 헤롯은 자기를 해치려는 음모들을 무서워해서 심지어 자기 아들들마저 살해했는데, 동방의 지혜자들로부터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마2:2)는 말을 듣고 그는 두려움에 떨며, 베들레헴 근방의 두 살 이하의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릴 수 없었다. 한편 예수 그리스도가 이집트에서 안전하게 거하는 동안 헤롯은 죽었고, 유대 백성들이 고대하던 그리스도가 그들의 왕으로 오셨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타락하고 눈이 멀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시매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부터 태어난 자들이니라."(요1:11-13).

제30과 신약성경

성경은 구약과 신약 즉 옛 상속 언약과 새 상속 언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출24:7; 마26:28), 모든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실행의 표준이요 잣대가 됩니다. 특별히 신약은 우리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교리와 교회를 담고 있는 매우 중요한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약>이라는 용어의 의미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마26:28).

위의 말씀은 어느 날 저녁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새 상속 언약(신약)이라는 표현은 ‘새 언약’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인 주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단어들을 들었을 때 새 언약(신약)이라는 용어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예레미야 31장 31-34절에 나오는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보고 다음의 질문에 답해보기 바랍니다.

- 1) 누가 이스라엘 집(민족)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까?(31절)
- 2) 새 언약은 모세 시대 때 유대인들과 맺는 언약과 같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32절)
- 3) 유대 백성은 옛 언약(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율법과 계명들)을 지켰습니까?(32절)

당신은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주님이 명령하신 가장 큰 계명을 항상 지켰습니까?(마22:36-38) 당신은 ‘율법을 지키는 자’입니까, ‘지키지 않는 자’입니까?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요7:19 비교)

옛 언약 아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율법을 돌 판에 두셨지만(고후3:3), 새 언약 아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법을 어디에 두셨습니까?(렘31:33과 고후3:3 비교)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기록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을 지킬까요, 지키지 않을까요?(겔11:19-20: 36:25-27) 옛 언약 밑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곧 의로우신 심판자 앞에 죄를 지은 범법자로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 언약 밑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 중심부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여서, 주(the LORD)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주(the LORD)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렘31:33).



“내가 ~하노라(I WILL)”

예레미야 31장 34절은 미래에 일어날 왕국 시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왕국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은 새 언약의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 민족은 각각 자기 이웃과 자기 형제에게 다시는 주를 알라고 가르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가장 작은 자로부터 그들의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주를 알 것이기 때문입니다(렘31:34; 사11:9).

예레미야 31장 34절을 통해 새 언약에서 “내가 ~하노라(I WILL)”로 시작하는 두 개의 큰 약속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내가 그들의 불법을 용서하리라(I will forgive their iniquity.)
- 2) 내가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³¹⁾(I will remember their sin no more.)

오늘을 살아가는 믿는 자들에게도 이것은 동일한 약속이 됩니다.(히8:10-12; 10:16-17)³²⁾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들의 완전한 사면을 얻게 하려고, 보배로운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를 흘리셨습니다(마26:28).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들을 위해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완전한 죄들의 사면을 받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히9:22). 옛 언약은 “죄를 지은 범법자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출21:12,15,16,17; 겔 18:14; 롬1:32; 6:23 참조). 또한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지은 범법자들을 위해 자신의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완전히 죄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믿는 죄인들을 완전히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에서 주의 만찬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죄들의 완전한 용서가 가능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고전11:25).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좋은 소식과 그 죽음이 믿는 자들에게 가져다 준 모든 은혜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이 특징이었다면 신약은 <은혜>가 특징입니다(요1:17 참조). 은혜는 어떤 공로도 받을 자격이 없는 사악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는 구약 시대 때도 존재했으며, 하나님의 법 위에서 항상 강조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침묵기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에 어떤 대언자도 그들에게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세기 동안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으며 소통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당시 유대 땅에는 오랜 기근이 있었는데, 그것은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고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며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었습니다(암8:11-12).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구약 성경을 읽고 믿어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릴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마침내 오랜 세월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깨시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 예수님의 처녀 탄생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히1:1-2).

여러분! 3,000km 떨어진 먼 곳에 살고 있는 어떤 친구가 있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친구와 서로 연락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편지를 보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까? 전보? 전화? 이메일? 아니면 이 친구를 만나게 될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를 부탁하는 것일까요?

31) 참조-로마서 11장 25절-27절

32) 예레미야 31장과 히브리서 8장 8절-12절의 새 언약은 원래 유대인들에게 문자적으로 적용되는 구절이다. 하지만 새 언약의 효력과 근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 면에서 효력을 미치므로(롬 15:8-9) 우리 이방인들은 구원 측면에서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상속) 언약의 효력을 맛보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십자가의 피를 통해 주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의 복은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두가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 전체로 그 복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롬11).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8장에서 유대인 성도들에게 구약이 폐기되었음을 알리기 위해 그들이 아는 새 언약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사랑침례교회 히브리서 강해 17과 中>

아마도 여러분이 친구와 소통하고 소식을 나누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찾아가서 만나는 것일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바로 그 방법입니다! 그분은 직접 아들의 인격, 곧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을 찾아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약성경의 말씀들을 통해 인간을 찾아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자세히 배울 수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비교

구약	신약
☛ 구약의 메시지: 그분이 오십니다.	☛ 신약의 메시지: 그분은 오셨고 다시 오십니다.
☛ 구약은 앞을 봅니다: 구원자가 언젠가 죽을 것이다.	☛ 신약은 뒤를 봅니다: 다 이루었다(요19:30).
☛ 구약은 그림책 모음집과 같음 예1) 희생 양-레1:2,10 예2) 유월절-레23:5	☛ 신약은 그림 아래 있는 말들(설명해 주는 말)을 포함 예1) 하나님의 어린 양-요1:29; 벰전1:19 예2) 유월절 어린 양-고전5:7
☛ 구약은 그림자(히10:1) 예) 황소와 양의 피(히10:4 참조)	☛ 신약은 실체 예) 예수 그리스도의 피(히10:19 참조)
◆ 황소와 양의 피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히10:4,11). ◆ 그러나 그것들은 죄들의 제거가 가능한 구원자를 앞서서 가리킨 것입니다(히10:12). ◆ 우리는 그림자를 볼 때 그림자를 드리우는 실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예-나무, 사람, 집 등).	

신약의 책들

신약의 5권(마태복음~사도행전)은 역사서입니다. 그 중 네 개의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과 교리(가르침)의 시작을 보여줍니다(행1:1-2). 그 중 사도행전은 승천하신 주님이 자신의 교회(믿는 자들)를 통해 일하시는 예수님의 행적과 교리의 연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경 기록대로 죽으시고 묻히시고 성경 기록대로 부활하셔서, 현재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오늘 날에도 믿는 자에게 내주하셔서 계속 일하시며, 신자들을 통해 거룩한 은혜의 사역을 지속해 나가고 계십니다.

▶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당신은 바로 지금 그분께서 당신을 통해 일하시도록 합니까?

네 개의 복음서	사도행전
예수님의 행적과 교리의 시작(행1:1-2)	예수님의 행적과 교리의 연속
땅에서의 주 예수님	하늘에서의 주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벽한 증인	믿는 자들이 그분의 증인(행1:18)
예수님은 일차적으로 팔레스타인에서 유대인들을 위해 사역(마10:5-6; 15:24)	교회는 온 세상의 모든 창조물을 위해 사역(막16:15)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스도의 승천

☛참고로 요한계시록도 역사서이지만 사건들이 일어나기 전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것은 미리 기록된 역사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다가올 미래의 빛을 비추는 위대한 예언의 책입니다. 나머지 신약의 다른 책들은 바울서신과 일반서신들입니다. 예를 들어 바울은 14권(13권)의 책을 썼는데, 이 서신들 중 9개는 교회에 보낸 것이며(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후서) 이 중 4개는 개인에게 보냈습니다(디모데에게 쓴 디모데전후서, 디도에게 쓴 디도서, 골로새 교회의 교인인 빌레몬에게 쓴 빌레몬서).

신약 성경 한눈에 보기³³⁾

◆4복음서-역사적	◆바울서신-교리적		◆계시록-예언적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묘사들 -마태복음: 왕으로서의 그리스도 -마가복음: 종으로서의 그리스도 -누가복음: 인간으로서의 그리스도 -요한복음: 하나님으로서의 그리스도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서 다음과 같은 예언적 주제를 다룸 1. 교회(2:1-3:22) 2. 환난기(4:1-19:10) 3. 재림(19:11-21) 4. 천년왕국(20:1-10) 5. 마지막 심판(20:11-15) 6. 영원의 상태(21:1-22:21)
◆사도행전	◆일반 서신		
-사도들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교회의 탄생과 초대 생활의 역사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유다서	

히브리서가 바울의 기록임을 증명하는 외적/내적 증거들³⁴⁾

- 2세기 초의 시리아 페시타 역본과 구 라틴 역본 등이 바울이 기록자임을 언급함.
 - 동방 교회들과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초대 교부 클레멘트 등이 바울의 기록물임을 인정함.
 - 서방 교회들에서도 처음 히브리서가 베드로후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등과 같이 정경성이 의심됐지만, 27권 신약성경이 정경으로 확정 되는 과정 속에서 AD 350년부터는 자연스럽게 바울의 기록물로 인식됨.
 - 히브리서 자체의 증언
 - 히13:23: 저자는 디모데의 동료임/ 히10:34: 그는 결박 중에 있었음.
 - 히13:18-19: 그는 감옥에 있고 자기가 곧 풀려나도록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함(빌2:17-24).
 - 히13:24: '이탈리아 출신의 사람들' 역시 바울이 로마에 있었음을 보여 줌.
 - 히브리서 교리가 바울의 교리와 정확히 일치-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유대인 사도), 기독교의 우월성 강조(갈1:11-24, 빌3:2-11).
-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이유: 정확히는 모르지만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이 서신이 바울의 것으로 알려지면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었으므로 읽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들은 그를 배도자로 여겼다(행28 등).

33) Unger's Bible Handbook에서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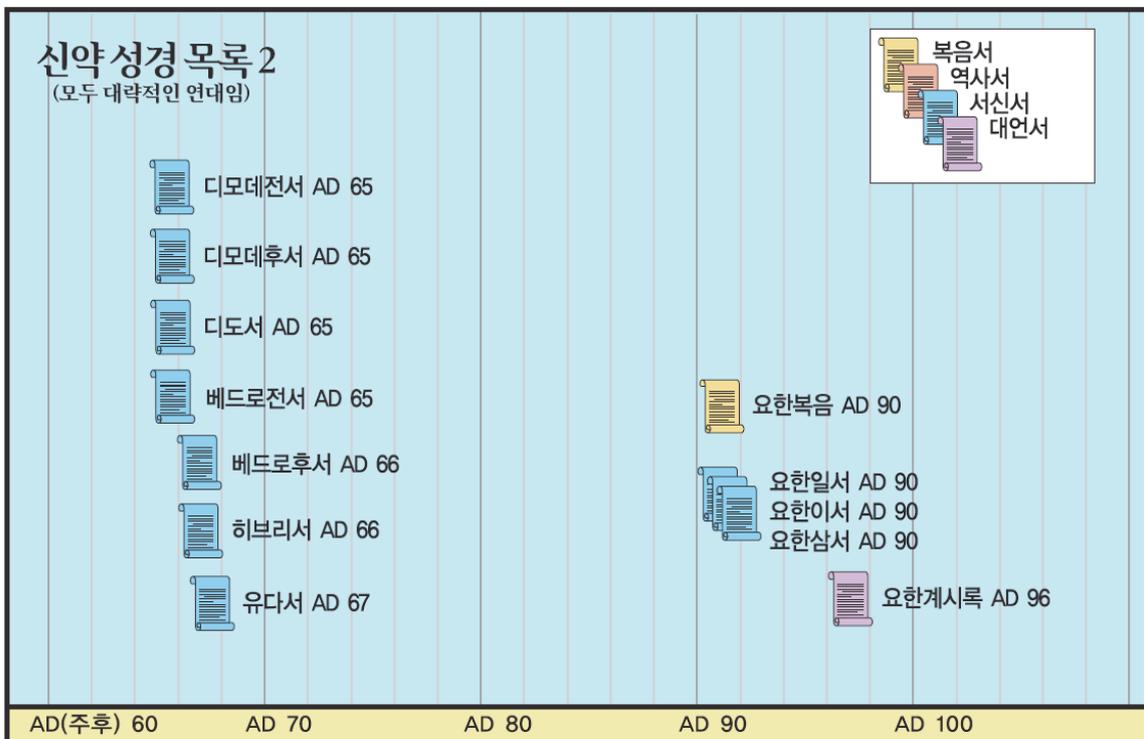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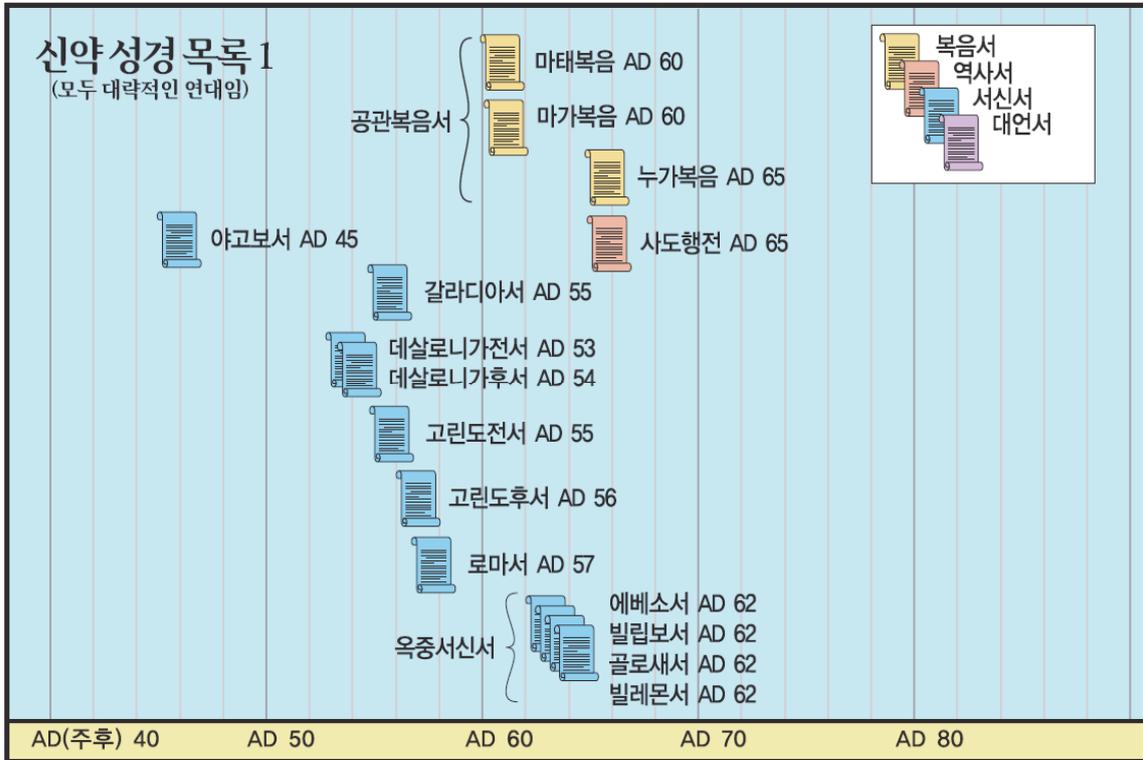
34) 출처: 사랑침례교회 <히브리서강해 제2과> 中

구약성경				신약성경			
기다림	욘23:3	1	400년의 침묵기	1	실현	요1:45	
창조주	창1:1	2		2	구속자	갈3:13	
위엄 있는 하나님	출19:18	3		3	우리의 아버지	마6:9	
처음 일들	창1:1	4		4	마지막 일들	벘후3:10	
영적 어둠	시82:5	5		5	떠오르는 해	요8:12	
사탄의 승리	창3:6	6		6	사탄의 패배	계20:10	
죄의 저주	창3:17-19	7		7	죄의 해결책	요3:16	
사망의 균림	창3:19	8		8	영원한 생명	요5:24	
피의 희생	출12:3-7	9		9	어린양 그리스도	요1:29	
속박	잠5:22	10		10	자유	롬8:2	
율법	출20:1-17	11		11	복음	롬1:16	
예표와 그림자	히8:5	12		12	실체	히10:34	
외적 예식	히9:10	13		13	내적 경험	눅24:32	
글자(율법 조문)	롬7:6	14		14	영	갈5:5	
예언	사11:1-2	15		15	성취	행3:18-19	
기대 속의 메시아	말3:1	16		16	우리의 구원자	눅2:11	
낙원 상실	창3:23	17		17	낙원 회복	계22:14	

예수 그리스도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대비

참고 그림(2)



제31과

사복음서-그리스도의 초상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전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그 중 처음의 세 복음서(마태, 마가, 누가)는 거의 같은 관점에서 그분의 생애를 기록하였기에 공관복음서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증언을 확증하시기 위하여 성경의 방법대로 두세 증인으로 하여금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셨는데(민35:30; 신17:6; 요8:17), 공관복음서는 서로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며 한 곳에 없는 내용을 다른 곳에서 보충해 주면서 우리 주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완벽하게 묘사함으로써 그분이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정확하게 보여 줍니다.³⁵⁾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네 개의 복음서들을 주셨을까?

여러분! 복음서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묘사하고 있나요? 한 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만약 당신이 펜팔을 통해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다른 먼 나라의 어떤 사람과 교제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당신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편지에다 “좀 더 너를 알고 싶어. 네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싶으니 사진을 보내주길 바래.”라고 적을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 당신의 펜팔 친구가 사진을 보낸다면, 사진을 한 장 보내는 것과 네 장을 보내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그 친구를 잘 아는데 도움이 될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아들에 대한 사진 네 장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진들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고 불리는 네 개의 복음에 대한 서술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단 하나의 복음을 주실 수도 있었지만 네 개는 훨씬 더 좋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비록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눈으로 본 적은 없어도(요 17:3; 빌3:10) 사랑하며, 지금도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자신의 아들을 더 잘 알게 되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그분을 더 잘 알게 될 때 우리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알게 됩니다(요8:19; 14:7).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분명하게 보면 볼수록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입니다(요14:9).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벽한 사진입니다(요14:9).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가 실제로 어떤 분이신지 알기 원한다면 성경 기록을 통해 그 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골1:15). 당신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성경에 계시된 그분의 아들은 볼 수 있습니다.



사진 이야기

펜팔친구가 보낸 네 장의 사진을 다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진 속에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까? 네 장의 사진에는 어떤 공통적인 것들이 있습니까? 혹은 네 장의 사진 모두에서 친구는 같은 옷을 입고 찍었거나 같은 배경에서 사진을 찍지는 않았습니까? 각 사진은 다른 세

35)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 없는 특별한 내용이 많고 특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어서 여러 면에서 공관복음과 달라서 제4복음서라 부르기도 합니다.

장의 사진이 보여주지 않았던 것을 보여주나요? 각각의 사진은 적어도 어떤 한 부분에서 다른 사진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까? 혹시 세 장의 사진들이 몇 분 간격으로 같은 방에서 모두 찍은 것처럼 아주 비슷하게 보이나요? 네 번째 사진은 나중에 다른 배경으로 다른 옷을 입고 방에서 나가서 찍은 것처럼 보여 지나요? 그렇다고 설마 여러분은 “이 네 번째 사진은 다른 세 장과 너무 달라서 틀림없이 다른 사람일거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4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서로 매우 유사하지만 서로 다르기도 합니다. 첫 세 개의 복음서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매우 비슷하며, 요한복음은 일부 유사한 점이 있긴 하지만 이 세 개와 매우 다릅니다. 우리는 이러한 4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신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그리고 종합적으로 살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통적인 것/ 서로 다른 것

공 통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4복음서 모두 침례자 요한의 사역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4복음서 모두 예수님의 침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4복음서 모두 5,000명을 먹이신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4복음서 모두 베드로가 주를 부인한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4복음서 모두 예수님의 체포와 시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4복음서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4복음서 모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다 른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태복음만이 요셉과 마리아가 이집트로 도망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마2:12-23). -마가복음만이 두 단계로 눈먼 사람을 치유하신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막8:22-26). -누가복음만이 탕자에 대한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눅15:11-32). -요한복음만이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요11:1-45).



같이 살펴볼까요?

1. 마태복음 24장 32-36절을 읽고 마가복음 13장 28-32절과 비교해보세요.
 - ▶ 이 두 구절들은 본질적으로 같습니까, 다릅니까?

2. 마태복음 13장 55절을 읽고 마가복음 6장 3절과 비교해 보세요.
 - ▶ 이 절들이 매우 유사하지만 어떤 차이를 발견합니까?
 - ▶ 마태는 예수님을 _____의 아들로, 마가는 _____로 말하고 있습니다.
 - ▶ 요셉은 목수였습니까? _____ 예수님은 목수였습니까? _____ 두 절 모두 사실입니까?

3. 마가복음 6장 38절과 마태복음 15장 34절을 비교해 보세요. 어떤 차이점을 발견합니까?
 - ▶ 마태는 숫자 세는데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숫자를 똑바로 센 사람이 마가였습니까?
 - ▶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무엇입니까? (참조: 막8:19-20, 마16:9-10 막8:5, 마14:17)
 - ▶ 실제로는 아무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4. 다음 4절을 비교해 보세요. 마27:37, 막15:26, 눅23:38, 요19:9

- ▶ 이 절들은 모두 비슷합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 4절 모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실제로 무엇이 쓰여 있었는지에 대해 바로 참된 정보를 줍니까? 모든 절들은 기록된 것에 대해 완전한 정보를 줍니까?
- ▶ 요한복음 19장 20절은 이러한 차이가 가능한 이유를 보여줍니까?

그것은 복음의 진리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다!”(확실하게 참되며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을 의미)라고 종종 사용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음의 문장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말은 이웃에 사는 아이들에게 복음으로 통했다.”
(His word was taken for gospel by the neighborhood children.)

이것은 이 사람이 말하는 모든 단어(every word)를 아이들이 믿고, 그 사람이 말한 것을 완전히 사실로 받아 들였다는 의미입니다.

4복음서도 같아야 합니다. 복음서들은 복음의 진리만 담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실수와 모순과 잘못들을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4복음서 모두가 복음의 진리만 가지고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느 곳에도 잘못이나 실수는 없습니다.³⁶⁾

또한 어떤 사람이 “4복음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신지 한 참 후에 기록된 것이다.”(이것은 사실입니다)라고 말했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시고 말씀하셨던 것들을 어떻게 기억할 수 있었습니까? 당신은 이것에 어떻게 답을 합니까? 누가 완벽한 기억력을 가지도록 도왔습니까? (요14:26 참조)

복음

<복음>이란 단어는 좋은 소식 또는 기쁜 소식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 의하면 좋은 소식이란 그리스도께서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열두 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36)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딤후3:16). 이 구절에서 ‘모든’(All)은 라틴어로 ‘플레너리’(plenary)이며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등을 의미한다(잠30:5; 롬15:4 비교). 따라서 성경의 경우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전체를 뜻한다. 한편 ‘성경 기록’은 ‘기록하다’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그라페’(graphe)에서 나왔으며 따라서 기록된 말씀(단어)을 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로 주신’ 영감(verbal inspiration) 곧 축자 영감을 확신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감의 목적이 성경 기록이라는 점이며 따라서 영감의 대상은 기록된 말씀이며 결코 그것을 기록하는 사람이 아니다. 마4:4; 출24:3-4; 사30:8 등은 성경의 모든 단어(each word)가 축자영감으로 기록되었음을 보여 준다.-<에스라성경사전>

코끼리 이야기

코끼리의 형태를 한 번도 본적 없는 눈 먼 사람 5명이 코끼리를 탐색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아마도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져보고 큰 나무 같다고 생각할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은 코를 만져보고 거대한 뱀이 틀림없다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은 측면을 만져보고 거대한 벽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은 꼬리를 만져보고 밧줄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사람은 상아를 만져보고 철로 된 막대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생각은 모두 틀렸습니까? 그들 모두는 자기가 만져보고 느꼈던 한 부분만을 가지고선 코끼리 전체를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코는 코끼리의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전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분만 본다면 전체를 놓칠 것입니다. 사실 한 부분만으로는 진짜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분명하고 실제적인 그림을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각 부분들은 전체를 구성하기 위해 다른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4개의 복음서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4개의 복음서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서 네 명이 아니라 딱 한 분!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네 명의 구원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4복음서 모두를 통해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사랑스런 자신의 팬팔 친구가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서 그가 보내준 네 개의 사진을 이리 저리 보고 또 보면서 친구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갔던 것처럼 네 개의 복음서를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주제	왕(예언된 왕)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냄	종(순종하는 종)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냄	완전한 인간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냄	하나님(하나님의 아들)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냄
핵심절	마2장2절 “유대인들의 왕”	막10장45절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눅19장10절 “사람의 아들”	요20장31절 “하나님의 아들”
색깔	자주색(출26:36) -왕권(왕족)의 색	주홍색(출26:36) -피의 색: 종은 반드시 자신의 생명을 드려야 함	흰색(출26:26) -순결의 색: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순수하시고 완전한 인간이심.	청색(출26:26) -하늘의 색: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상징	사자(겔1:10;계1:7) -동물들의 왕	황소(겔1:10) -희생 동물	사람(겔1:10) -그분의 완전한 인성	독수리(겔1:10) -하늘들에서 온 새
대상	특히 유대인들을 위해 기록됨	특히 로마사람들을 위해 기록됨	특히 그리스 사람들을 위해 기록됨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 기록됨
사복음서는 모두 한분이신 복된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냄!				

제32과

요한복음-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킴

지난 과에서 간단히 살펴보았듯이 요한복음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신성을 가진 아들) 곧 세상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던 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간 기록자인 요한은 12제자들 중 한 명이었고 야고보의 형제였습니다(마10:2). 그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자’라고 불리고 있으며(13:23; 21:20), 자신의 복음서에 기록한 대부분의 내용들을 목격하였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실제로 그곳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까?

- ▶ 우리는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기록한 것들을 받아들여야 합니까? (요19:35, 21:24 참조)
- ▶ 요한이 주께 대하여 기록할 수 있었던 다른 것들이 있습니까? (요21:25)
- ▶ 신약에서 요한이 기록한 다른 4권의 책들은 무엇입니까?
- ▶ 왜 요한은 이 복음서를 썼습니까? 왜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셨던 것들을 이 책에서 상세하게 기록하였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아들을 믿기를 원하시며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가질 것입니다(참조-요6:47, 3:16)

☛ 요한은 요20:31절에서 우리들에게 왜 이 복음서를 썼는지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나의 사랑하는 책

요한복음에 나오는 많은 구원의 절들은 요한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목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요20:31) 구원받지 않은 친구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훌륭한 책입니다. 누군가 성경 읽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요한복음부터 시작하라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성경을 읽고 싶어 한다면 요한복음은 그 시작으로 가장 좋습니다. 요한은 이해하기 쉬운 단순한 단어들을 사용하였습니다(요1:1-12 참조-말씀, 생명, 빛, 어둠, 하나님, 증언, 믿다, 세상, 받다 등).

사람들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건들에 동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책에서 자신들과 같은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마는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입니다(요 20:24-29). 또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만났던 사마리아 여자는 죄인이었으며(요4:7-18),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나야 할 종교인이었습니다(요3:1-6). 예수님께서 고쳐 주셨던 눈 먼 사람은 믿기를 원했지만 누구를 믿어야 할지 확신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으며(요9:35-38), 빌립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아내기를 원했습니다(요14:7-12). 따라서 오늘날에도 이러한 동일한 욕구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 복음서를 읽음으로써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은 성경에서 가장 사랑받는 구절(요3:16)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절은 ‘복음의 알맹이’라고 불립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단지 인간, 좋은 교사, 훌륭한 모범, 유명한 대언자 중 하나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누구셨습니까? 요한복음은 이 질문에 매우 정확하게 답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어진 <표1>과 <표2>를 보고, 아래의 <표1>에 답(알파벳)을 적어 보세요.

<표1>

1. () 요1:1	6. () 요5:23	11. () 요10:30-33
2. () 요1:3	7. () 요6:41-42, 51	12. () 요17:5,24
3. () 요5:17-18	8. () 요8:58-59	13. () 요18:4-6
4. () 요5:22,27	9. () 요9:35-38	14. () 요19:7
5. () 요5:28-29	10. () 요10:11,14	15. () 요20:28-29

<표2>

A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시다.
B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은 아브라함(2,000년 전에 살았던) 이전에도 존재했다고 말씀하셨다. 이 말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다.
C	예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D	유대인들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주장했기 때문에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율법에 의하면 그러한 주장은 신성모독으로 간주되었음).
E	예수님은 눈먼 사람을 고치신 다음 그 사람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다.
F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이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주장한다는 뜻)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셨다.
G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이것은 그분이 창조주라는 것을 뜻함-창1:1 참조).
H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의 최종 심판자이시다.
I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주장하셨고 모든 유대인들은 누가 선한 목자인지 알고 있었다(시23:1 참조).
J	예수님은 자신과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셨다. 유대인들은 그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말로 인해 그분을 죽이길 원했다
K	예수님은 언젠가 모든 사람들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실 것이다.
L	사람들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듯이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
M	예수님이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시자 그를 잡으려던 모든 사람들이 땅에 넘어졌다.
N	도마는 예수님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했고, 예수님은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의 복됨을 말씀하셨다.
O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말씀-요1:14 참조)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다!



놀라운 기적들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나 기적들은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주고 있으며(요 5:36, 요10:25,38 참조),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에 7개의 큰 기적들을 기록했습니다. <표1>을 참고해서, 아래의 질문에 알파벳으로 답해보세요.

<표1>

A	요한복음 2:1-11	E	요한복음 11:1-45
B	요한복음 6:6-13	F	요한복음 5:1-18
C	요한복음 4:46-54	G	요한복음 9:1-7
D	요한복음 6:16-21		

☛다음의 기적들에 맞는 성경구절들을 <표1>에서 찾아, 알파벳으로 답해보세요.

1.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 ()	2. 물이 포도즙으로 바뀜--- ()
3. 5,000명을 먹이심----- ()	4. 눈 먼 사람을 고치심---- ()
5. 병약한 자를 고치심----- ()	6. 물 위를 걸으심 ----- ()
7. 어떤 귀인의 아들을 고치심-- ()	



완전하신 하나님/완전하신 사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 곧 신성을 가진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있지만 또한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임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의 절들이 예수님이 완전하신 사람이셨음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적어보세요.

- a. 요한복음 2장 3절 -----
- b. 요한복음 4장 6절 -----
- c. 요한복음 4장 7절과 19장 28절 -----
- d. 요한복음 11장 35절 -----
- e. 요한복음 19장 30, 33절 -----

예수님은 사람이셨으나 사람 이상이셨습니다. 그분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사람이십니다. 곧 구약에서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I AM THAT I AM)’(출3:14, 요8:58 참조)로 묘사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요8:58)

(Jesus said unto them, Verily, verily, I say unto you, Before Abraham was, I am.)

 “나는(I AM)”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거듭 "나는(I AM)"³⁷⁾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래의 성경 구절을 찾아 다음의 빈 칸을 완성해 보세요.

요6:35	나는 ⇨
요8:12	나는 ⇨
요10:9	나는 ⇨
요10:11	나는 ⇨
요11:25	나는 ⇨
요14:6	나는 ⇨
요15:1	나는 ⇨

이 7개의 ‘나는’이라는 말은 당신에게 개인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분은 당신에게 이러한 모든 것들이 되십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누구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요8:24).

 영원한 생명

요한복음의 핵심 단어 중 하나는 <믿다>라는 단어입니다. 거듭해서 요한복음은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 의지해야 할 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복음은 어떻게 이 질문에 답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바랍니다. 아래의 각 절들을 찾아서 1번과 2번처럼 내용을 완성해보시기 바랍니다.

1) 요한복음 1:12

- a) 죄인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이름을 믿어야 합니다.
- b)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2) 요한복음 3:16

- a) 죄인은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 b) 하나님은 죄인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3) 요한복음 3:18

- a) 죄인은 _____ 해야 합니다.
- b) 하나님은 죄인에게 _____ 약속하십니다.

37)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여호와라 불렀는데 이것은 모세가 그분의 이름을 물을 때에 그분께서 친히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I AM THAT I AM)’라고 일러 주신 것으로(출3:14)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무궁하심과 자존(自存)하심을 잘 보여 준다.-<에스라성경사전>

- 4) 요한복음 3:36
 a) 죄인은 해야 합니다.
 b) 하나님은 죄인에게 약속하십니다.
- 5) 요한복음 5:24
 a) 죄인은 해야 합니다.
 b) 하나님은 죄인에게 약속하십니다.
- 6) 요한복음 6:35
 a) 죄인은 해야 합니다.
 b) 하나님은 죄인에게 약속하십니다.
- 7) 요한복음 6:47
 a) 죄인은 해야 합니다.
 b) 하나님은 죄인에게 약속하십니다.
- 8) 요한복음 11:25
 a) 죄인은 해야 합니다.
 b) 하나님은 죄인에게 약속하십니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요한복음은 희망과 좋은 소식에 관한 놀라운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자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나쁜 소식도 담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쪽에 있습니까?

좋은 소식		나쁜 소식	
하나님의 아들	1:12	8:44	마귀의 아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3:15-16	3:15-16	멸망할 자
정죄 받지 않음	3:18	3:18	정죄를 받음
영존하는 생명을 받음	3:36	3:36	하나님의 진노를 받음
죄들이 사면됨 (용서받음)	20:23	20:23; 8:21-24	죄들이 그대로 있음
참으로 자유롭게 됨	8:36	8:34	죄의 종
생명	5:29	5:29	정죄
빛	8:12	8:12	어둠
믿는 자		안 믿는 자	

 **당신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하나님께서서 ()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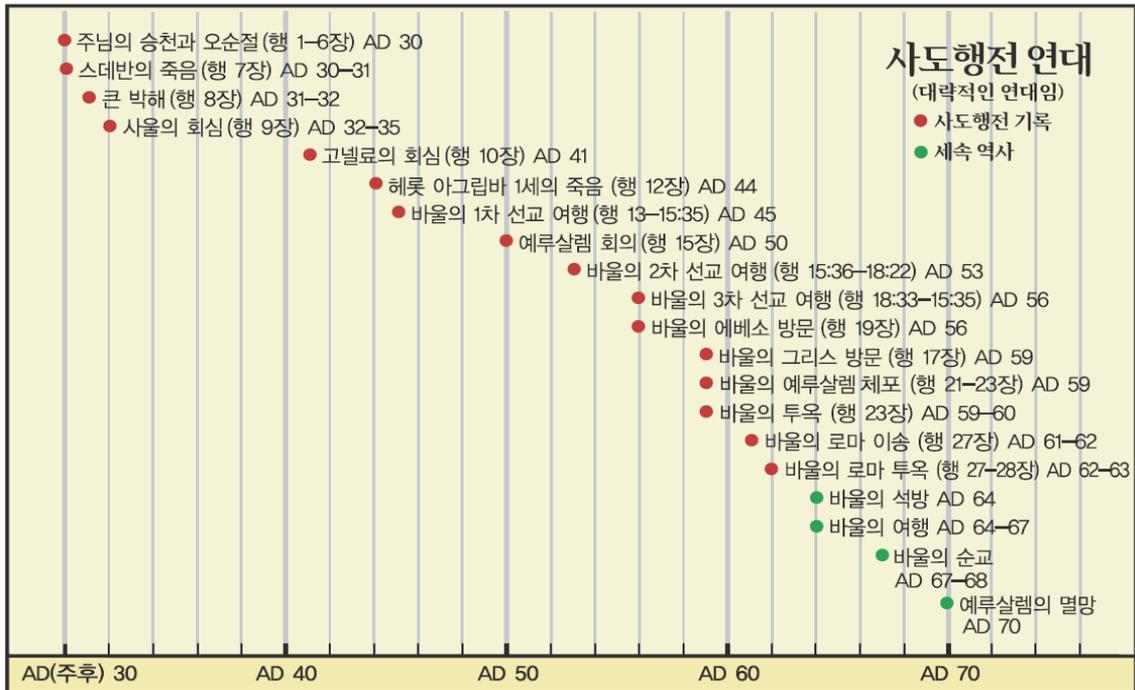
▶ 당신은 요5:24, 요6:35, 37, 47절에도 자신의 이름을 넣어 볼 수 있습니까?

제33과 사도행전

4복음서 다음에는 사도행전(Acts)이라는 신약의 5번째 책이 나옵니다. 이 책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복음을 쓴 사람과 동일한 사랑받는 의사 ‘누가’(골4:14)입니다.

이 책은 4복음서와 같은 역사책이지만, 복음서들이 3년 반(예수님의 침례부터 죽음, 부활, 승천까지)의 기간을 다루고 있다면 사도행전은 약 30년(교회의 시작 또는 탄생부터 AD 약 61년 까지 바울이 로마에 죄수로 도착했을 때)의 기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연대



예수님은 오늘도 일하시고 행하십니다!

사도행전에서 자신이 선택하신 사도들을 통해 실제로 일하시고 행하신 분은 승천하신 그리스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전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20절을 자세히 읽어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예수님께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그분은 여전히 일하시며 행하시고 계십니다(막16:20 참조).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이 일을 해야 했습니까? (마28:20)

네, 예수님은 오늘도 일하시고 행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베드로, 스테반, 빌립, 바울을 통해 일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순

종하는 자들의 손과 입과 혀와 발과 마음 등을 사용하시고자 하십니다.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일하시도록 하십니까? (빌2:13; 히13:21 참조)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을 때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 믿는 자들 안에서 그들을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리의 영(the Spirit of truth)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16장을 읽고 하나님이 성령님(위로자)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절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요14:16-17, 15:26, 16:13).

만약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과 그분의 증인이 되는 권능은 없을 것입니다(눅24:49, 행1:8). 성령님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연료 없이 운전하거나 배터리 없이 장난감을 작동시키려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당신은 에너지나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곳도 가지 못하고 어떤 것도 성취할 수 없습니다! 과연 믿는 자들은 주님이 없이 무엇을 얼마나 성취할 수 있을까요? (요15:5) 마침내 오순절(예수님이 하늘로 다시 올라가신 지 10일 후)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에 성령님이 오셨고 교회가 태어났습니다.³⁸⁾ 당신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의 강림에 대해 읽을 수 있습니다. 교회 시대에 그분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사람들의 마음에 적용시키며 그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요16:8-9),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들을 보여 주며 죄인들을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요3:5; 엡2:1). 성령님은 교회의 위로자이시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시고 그들과 함께 증언하며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그들을 인도하며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초대교회의 성장

예수님의 참된 신약교회가 태어난 후 교회는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래의 성경 구절들을 통해 초대교회의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첫 번째는 예시임)

1. 사도행전 2:41  바로 그 날에 삼천 혼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졌다.
2. 사도행전 2:47 
3. 사도행전 4:4 
4. 사도행전 5:14 
5. 사도행전 6:7 
6. 사도행전 11:21 
7. 사도행전 12:24 
8. 사도행전 16:5 
9. 사도행전 19:20 

▶ 초대 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 큰 박해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가 번성하고 성장하며 숫자가 늘었습니까?

38) 신약 교회는 유기체로서 예수님 당시에 수태되어 오순절 날 성령님의 침례 사역과 더불어 권능 있게 밖으로 드러났으며 휴거 때까지 이 땅에 존재합니다.-<에스라성경사전>

초대 교회 성도들의 특징과 활동

우리는 초대 교회 성도들이 어떤 특징을 가졌고, 무슨 활동을 했는지 사도행전을 읽고 공부해 나가다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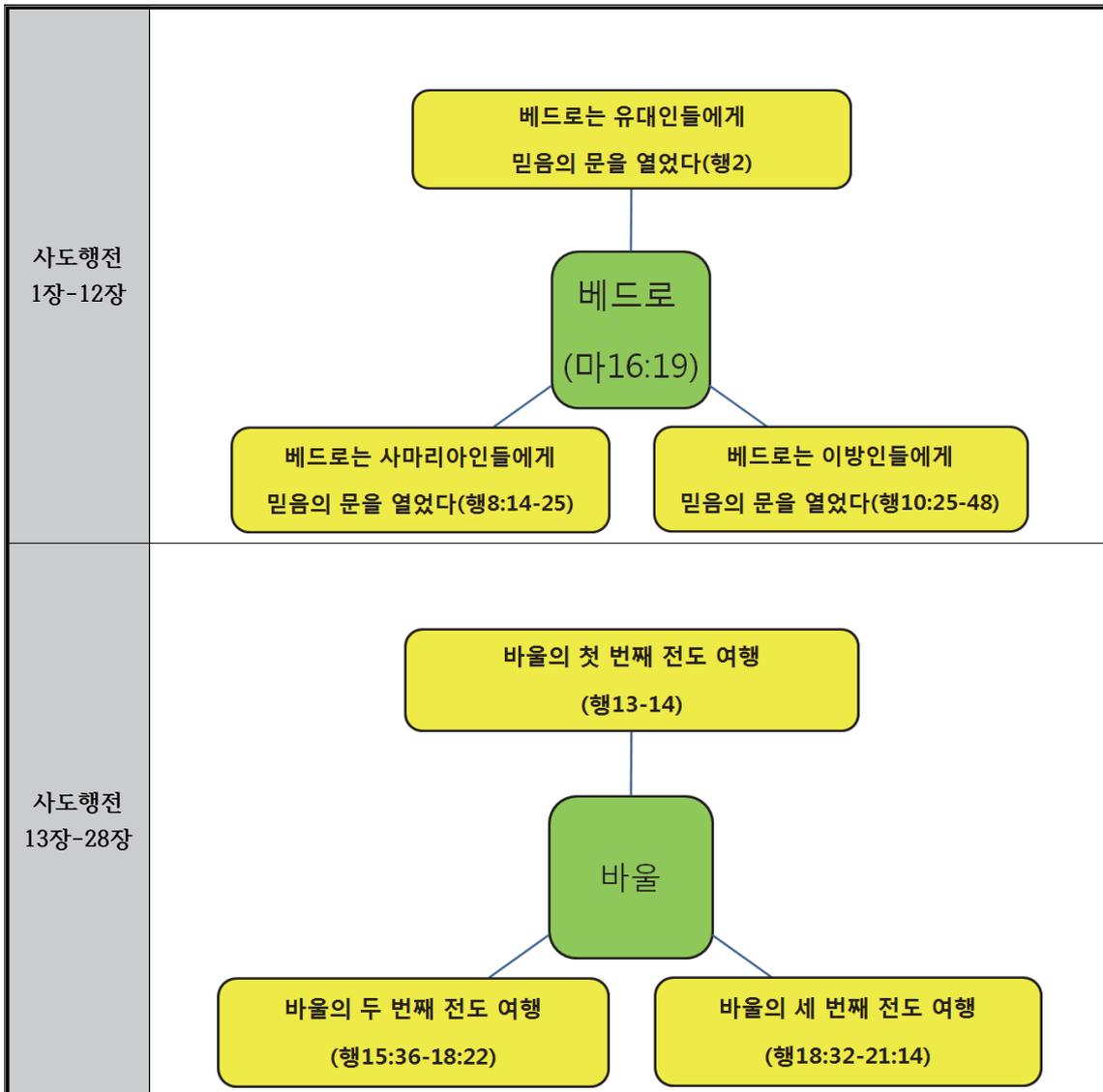
- 1) 그들은 기도하는 남자와 여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과 가르침을 받았다.
- 2) 그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을 소개했다.

▶ 어떻게 해야 사랑침례교회 성도로서 더욱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까?

▶ 어떻게 해야 우리 사랑침례교회는 더욱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베드로와 바울

사도행전 첫 12장에서는(행1-12장) 주로 사도 베드로가 나타나고,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는(행 13-28장) 이방인들의 유명한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특별히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자(할례자)였다면, 바울은 이방인들(무할례자)을 위한 사역을 했습니다(갈2:7-8 참조).





사도행전의 핵심 절-사도행전 1장 8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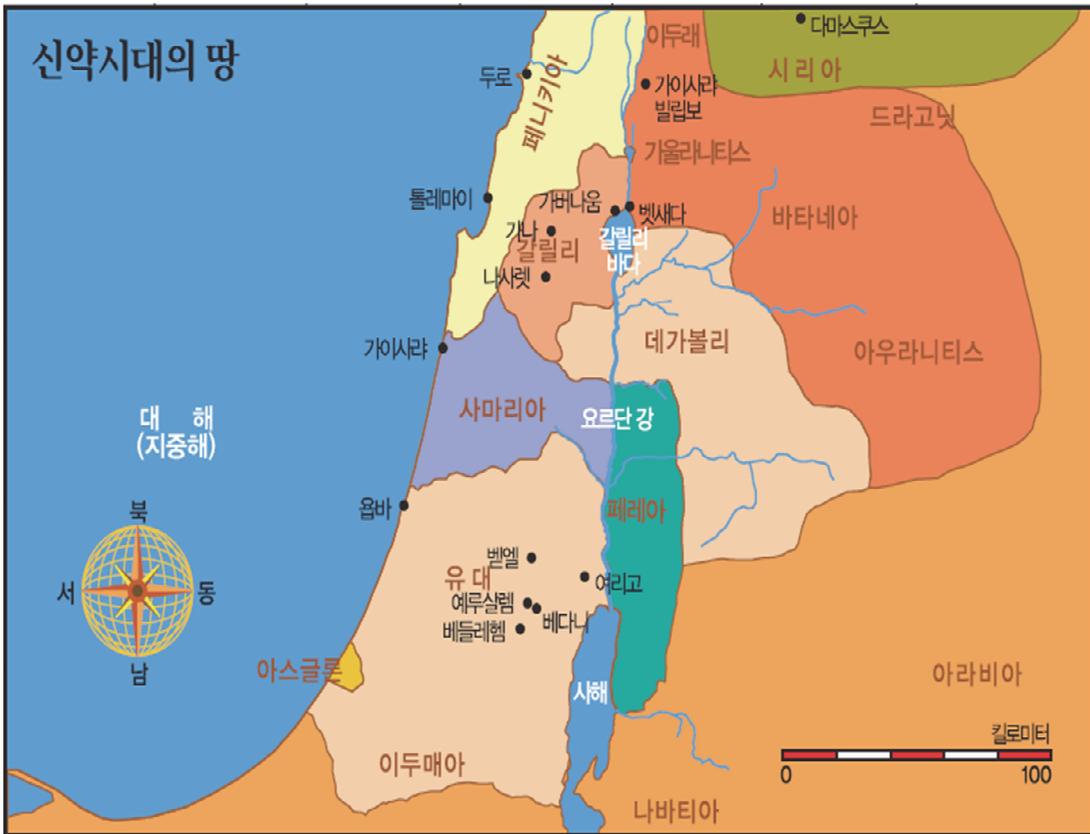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5장 14절에는 시므온이 말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인들 가운데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한 백성을 취해 내시려고 그들을 찾아가신 것에 대한 야고보의 증언이 나옵니다. 또 이와 관련된 구절은 사도행전 1장 8절이며 이것은 사도행전의 핵심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절에서 성령님께서 임하신 뒤에 권능을 받고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표1>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장소의 이름입니다. 아래의 지도 <표2>를 참고해서 비교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³⁹⁾

<표1>

1. 예루살렘에서-출발점 (행2-7장, 참조-눅24:49)	3. 사마리아에서-사마리아인들의 고향 (행8:5-25)
2. 온 유대에서-유대인들의 고향 (행8:1-4)	4. 땅의 맨 끝 지역까지-이방인들의 고향 (행8:26-28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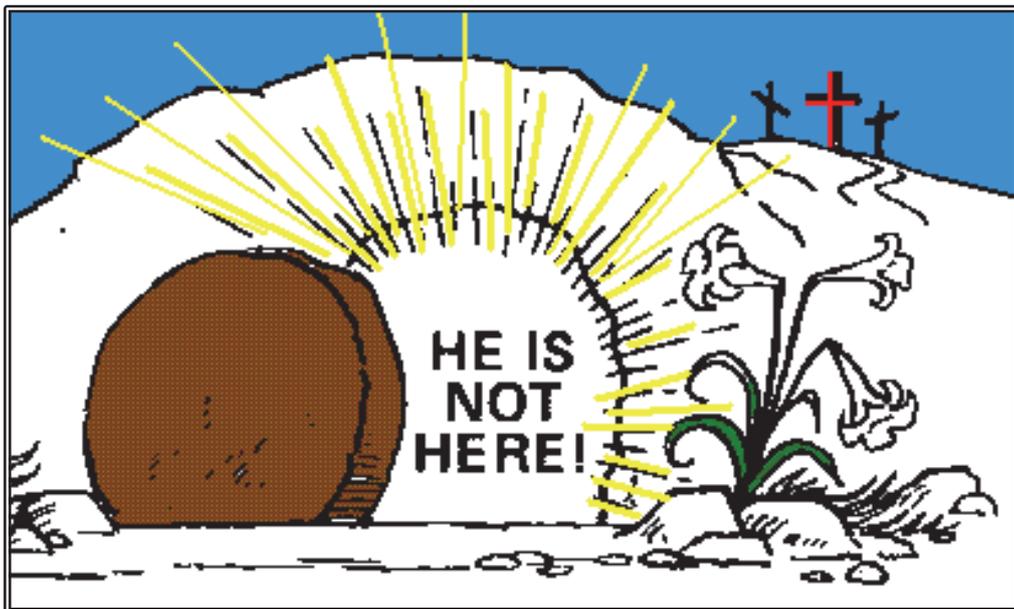
<표2>



39) 사도행전의 움직임을 이해하기 위해 유대인과 이방인, 사마리아인들 간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이며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이스라엘 초기 역사상 사마리아 지방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나 이교도들과 결혼하면서 나온 혼혈 민족(반은 유대인, 반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생각해보기!

1.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행2) 대부분의 구성원은 유대인이었습니다(행2:5 비교). 하지만 오늘날 교회는 대부분 구원받은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혹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구원받은 이방인들의 수와 비교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구원 받은 유대인의 숫자는 점차 줄어들고 구원받은 이방인 숫자는 점점 늘어났을까요? 사도행전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사도행전 13:46-47; 18:6; 28:28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2.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선포하고 심지어 기꺼이 죽기까지 신실할 수 있었던 위대한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행 2:24; 2:32; 3:15; 3:26; 4:2; 4:10; 4:33; 5:30; 10:40; 13:30; 13:33; 17:18; 17:31; 26:23. 참조)
3. 오늘날!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입니다(행1:8). 우리는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살아계신 주를 소유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또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승천하신 구원자를 섬기는지 볼 수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나의 친구들과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살아 계시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참조-로마서 6:4,5,11,13/ 갈라디아서 2:20/ 고린도후서 4:8-11, 5:15/ 히브리서 13:20-21)
4. 우리는 때때로 마치 그리스도가 죽은 것처럼, 마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고 행동합니다. 만약 성령님이 갑자기 며칠 동안 우리를 떠나신다면 우리는 그 차이를 삶 속에서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5. 우리는 초대 교회가 가졌던 것과 같은 기쁨, 열정, 담대함,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도행전에서 묘사된 교회들과 오늘날 교회들 간에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제34과 로마서(1)

로마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
The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ROMANS

로마서 개요

- 기록자: 바울, 기록 시기: 주후 57년경, 성격: 교리
- 수신자: 일차적으로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고 실제적으로는 모든 신자
- 주제: 하나님의 의를 보여 주는 복음
- 목적: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아 의롭게 된다.”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확증하는 것
- 핵심 장: 3장(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 핵심 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것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1:16)
- 핵심 단어: 의(66회)/ 믿음(62회)/ 칭의(17회)/ 그리스도 안에(33회)/ 율법(78회)/ 죄(60회)
- 핵심 구: “하나님의 의”(1:17), 영적 교훈: “하나님의 의를 입으라.”
- 로마서의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되신 주님(10:4; 롬23:6)
- 내용: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에 의해 의롭게 되는 칭의 교리를 가르치며, 유대인들에게는 모세의 율법이나 율법의 행위에 의해 구원받을 수 없음을 보여 준다.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의 죄악의 사악함과 비참함을 보여 주고, 하나님의 의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 그들에게 은혜로 전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5장은 구원의 효과로 나타나는 화평과 기쁨을, 6장은 거룩한 삶을, 7장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죄가 있음을, 8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정죄함이 없음을 깨닫게 하며, 9장부터 11장은 자신의 친족인 육적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열망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준다. 또한 12장부터 16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나타나는 성령님의 권능을 보여 준다.

복음서와 서신서

복음서	서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것을 배움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이야기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왜(why) 그리스도가 죽으셨는지 배우게 됨(고후5:21, 벰전 3:18 참조). -어떻게(how) 주님의 부활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이해하도록 도와줌(롬6:4,5,9,10,11; 고후5:15). -무엇을(what)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오늘날 나를 위해 행하고 계시는지 이해하도록 도와줌(롬8:34과 히브리서 전체).
복음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사실들을 우리들에게 알려 주고, 서신서들은 그 사실들을 설명하고 있음.	



왜 바울은 로마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는가?

신약의 편지들-신약 27권 중 대부분은 편지글(서신서)입니다. 특히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살고 있는 믿는 자들에게 쓴 편지인데, 당신은 바울이 로마사람들에게 쓴 이 편지만큼 긴 편지(16장)를 써 본적이 있습니까?(신약에는 짧은 편지들도 있습니다-요한이서와 요한삼서 등)

로마서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 썼습니다(롬1:1). 그는 이 편지를 A.D. 약 57년 경 고린도에 있을 때 썼는데,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없었지만, 그 큰 도시에 살고 있는 믿는 자들에게 가기를 기도하였습니다(롬1:10-12 참조). 당시 로마는 로마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여러분은 지도에서 고린도와 로마 도시를 찾을 수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복음(the gospel of God)이라는 단어는 우리들에게 이 책에 관한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福音)이라는 단어는 좋은 소식을 뜻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그곳에 있는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좋은 소식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편지를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로마서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를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롬1:16). 사실 여러분이 바울의 삶을 연구해 본다면 그가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했기 때문에 로마에서 사형에 처해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⁴⁰⁾ 그들은 바울을 죽였으나 이 복음에 대해 말해주는 로마서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읽을 때 이것이 바울이 로마에 살고 있는 믿는 자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롬5:8, 8:35-39 참조). 또 우리는 성경 66권 중 어느 것을 읽을 때도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된 성경 기록들을 통해 인내와 위로와 소망을 가지며(롬15:4),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로마서 속으로 걷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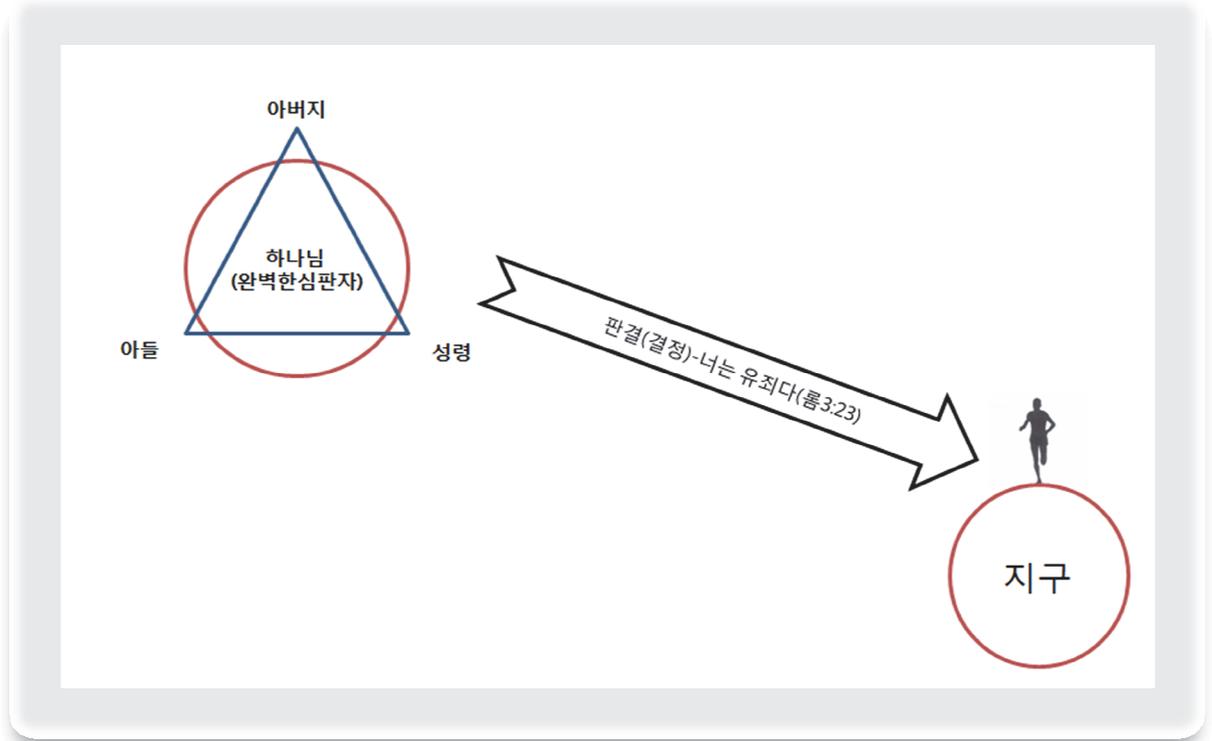
로마사람들에게 보낸 이 편지는 크게 5개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1:18-3:20).
2. 하나님께서는 믿는 죄인을 의롭게 하셨다(3:21-5:21).
3. 믿는 죄인은 죄를 이길 수 있다(6:1-8:39).
4.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의 열망과 하나님의 계획-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9:1-11:36)
5.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들(12:1-15:33)

그럼 오늘은 크게 나눈 로마서의 5개 부분 중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0) 바울은 동쪽 유대인들의 고소로 인해 가이사라에서 약 2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그 뒤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갔다. 그 이후의 재판 결과 등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으나 초대 교회 성도들은 그가 2년 뒤 옥에서 풀려났다가 다시 로마로 가서 옥에 갇혔고 결국 네로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고 전한다.-<에스라 성경사전>

1.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롬1:18-3:20).



- ▶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3:10)
- ▶ 하나님을 찾는 자는 얼마나 됩니까? (3:11)
- ▶ 선한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3:23)
- ▶ 죄인들은 얼마나 됩니까? (3:23)
- ▶ 인간의 죄 때문에 온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유죄입니다(롬3:19 참조). 당신은 진심으로 이 사실을 인정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판결과 징계

판결: "너는 유죄다" (롬3:19)	징계(벌): "죄의 삯은 사망이다. 너는 죽어 마땅하다"(롬6:23)
----------------------	--

로마서 1장 29-31절에 나오는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를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롬 1:32).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습니다(롬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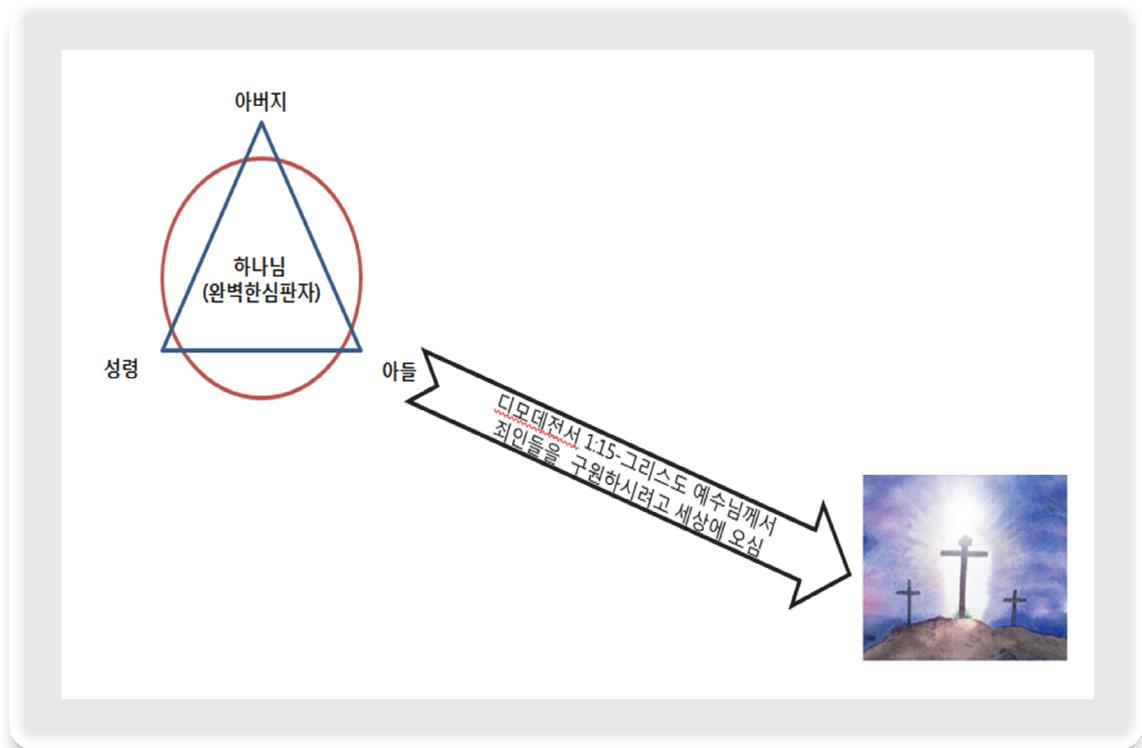
경건치 아니하고 불의한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며(롬1:18) 또한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롬1:32).-로마서 2장 3, 5, 8, 9절을 참조하세요.

- ▶ 당신은 로마서 1장 29-31절에 언급된 죄들 중에서 하나라도 자유로우며 무죄합니까?
- ▶ 당신은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까? (롬1:32)

2. 하나님은 믿는 죄인을 의롭게 하셨다(롬3:21-5:21).

하나님 곧 의로우신 재판관은 죄를 간과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죄로 인해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유죄이기 때문에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되며, 영원한 사망의 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 죄의 형벌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로 인하여 친히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주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새로운 판결	하나님의 선물
“무죄”(롬3:24)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롬6:23)



고린도전서 15장 3절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 ▶ 그리스도께서는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해 죽으셨으며(롬5:6),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롬5:8).
- ▶ 그분은 우리의 범죄로 인해 넘겨지셨고, 우리의 칭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롬4:25).

주님의 사랑은 지금 이 순간에도 죄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죄들의 형벌을 친히 담당했다! 너를 위해 내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고 피 흘려 죽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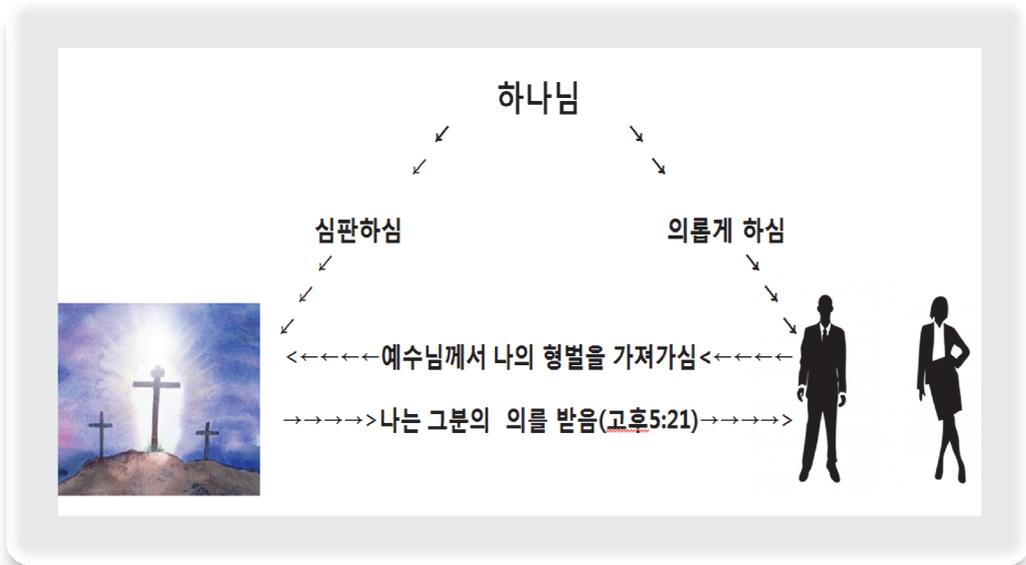
제35과 로마서(2)

지난 과에서는 로마사람들에게 보낸 사도바울의 서신이 크게 5개 부분으로 나뉘었다고 배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로마서의 나머지 세 부분을 공부하기에 앞서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믿음으로 받게 되는 예수님의 완전하신 의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완전한 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과연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롬5:9)

- ▶ 죄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게 하십니다.
- ▶ 하나님은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 주십니다(롬4:5).
- ▶ 예수님께서서는 죄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가져가셨습니다(롬5:6,8 참조).
- ▶ 우리는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받게 됩니다(롬3:22; 4:3,5).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롬5:6-11)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껏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계좌에 그리스도의 의를 넣어 주셨습니다(롬4:1-8). 우리는 더 이상 유죄가 아니며 정죄 받은 죄인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in Christ Jesus) 있기 때문입니다(롬8:1 참조).

우리의 의로우신 재판관은 이제 “너는 나의 의로운 아들 안에서 의로우며, 더 이상 정죄 아래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요5:24; 롬8:1).

죄로 인한 심판은 그리스도에게 내려졌으므로 더 이상 나에게 올 필요가 없어졌습니다(롬8:3).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

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믿는 자들을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 받은 성도로서 육체의 남은 때를 육신을 따라 걷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성화의 삶을 마땅히 살아야 합니다.⁴¹⁾

우리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들이며, 그분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날까지 봉인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엡1:13; 4:30). 또한 예수님은 우리들의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히5:9),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떨쳐 버리고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히12:2).



로마서 속으로 걷기

우리는 지난 과에서 아래 있는 로마서의 다섯 단락 중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이 시간에는 나머지 세 부분을 계속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1:18-3:20).
2. 하나님께서는 믿는 죄인을 의롭게 하셨다(3:21-5:21).
3. 믿는 죄인은 죄를 이길 수 있다(6:1-8:39).
4.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의 열망과 하나님의 계획-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9:1-11:36)
5.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들(12:1-15:33)

3. 믿는 죄인은 죄를 이길 수 있다(롬6:1-8:39).⁴²⁾

1) 로마서 6장

- a. 주제: 구원 받은 성도의 성화(거룩한 삶)
- b. 내용

- 1절: 죄에 거하면 안 된다/ 2절: 죄 가운데 살면 안 된다
 3절: 예수님의 죽음 안으로 침례 받았다/ 4절: 새 생명 속에서 걸어야 한다.
 6절: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10-11절: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님을 통해 산 자이다.
 12절: 죄가 다스리지 못하게 하며, 죄에게 순종해선 안 된다/ 13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
 14절: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지배하지 못한다/ 19, 22절: 거룩함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c. 핵심동사

- ▶ 안다(know): 3절, 6절, 9절을 통해 나와 있는 사실, 곧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된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끝내셨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루신 사실에 이 모든 것이 달려 있다.

41) 구원은 세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원은 의롭게 되는 것(칭의)으로 시작되고 거룩하게 됨(성화)을 통해 진행되며 영화롭게 됨(영화)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고 있는 중이며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칭의는 순간적인 것으로 죄의 형벌로부터의 완전한 구원이며, 성화는 죄의 권능으로부터의 구원이며, 영화는 죄의 존재로부터 최종적인 구원입니다.-<성경바로보기> p.168, p.171

42) 아래 내용은 사랑침례교회 <로마서강해 14과>에서 많은 부분 가지고 왔습니다.

- ▶ 여긴다(간주한다, reckon): 11절에 나와 있는 사실, 곧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임을 믿음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것은 “나는 죄에 대해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 살았습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 ▶ 드린다(yield): 13절의 내용, 곧 우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며 또한 우리의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d.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위대한 사실을 믿으며, 진실한 것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사실1-나는 죽었습니다!	사실2-나는 새로운 생명을 가졌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2절-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3절-나는 예수님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4절-나는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5절-나는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심겼습니다. ◆6절-옛 사람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8절-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11절-나는 죄에 대하여 참으로 죽은 자입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3절-나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입니다. ◆18절-나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22절-나는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고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 됩니다. ◆23절-나는 하나님의 선물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e. 그리스도인의 물 침례

- ▶ 로마서 6장은 물 침례를 이야기 하지 않고, 예수님과 그분의 죽음 안으로 푹 잠기는 (baptized) 진짜 침례 곧 성령 침례(구원 받는 순간 단 1회)를 이야기합니다.
- ▶ 그리스도인의 물 침례는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죽음, 매장, 부활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면서 특별히 성도들도 예수님과 똑같이 죽었다가 부활한 자들임을 보여 주는 매우 중요한 규례입니다. 침례는 우리의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매장되었고, 새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 ▶ 그렇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로마서 6장과 같은 것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2) 로마서 7장/ 8장

- a. 그리스도인은 죄가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계속 싸움을 합니다. 여러분은 로마서 7장에서 믿는 자가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절들을 찾을 수 있습니까?
- b.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참조-로마서 8장: 2, 4, 5, 9, 10, 11, 13, 14, 15, 16)

4.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의 열망과 하나님의 계획-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9:1-11:36)

바울은 로마서 1-8장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시했습니다(칭의: 1장-5장, 성화: 6장-8장, 영화: 8장). 그리고 로마서 12장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9장부터 11장은 괄호로 볼 수 있으며, 그 주제는 육적 이스라엘(아브라함의 씨)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롬9:3-4; 10:1,21; 11:1-2, 26, 28).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선민)임을 알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처한 상황은 항상 그들에게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버리셨습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주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후로 계속 그들을 거절하십니까? 로마서 9-11장에서 바울은 이러한 중요한 질문들에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1) 로마서 9장-유대인의 과거 역사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으며 진실로 특권을 받은 백성이었습니다(롬9:4-5).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들은 그분을 거절하였습니다(롬9:32).

2) 로마서 10장-유대인의 현재 역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서 일하고 계시며, 유대인들과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아들을 통해 구원을 받도록 초청하셨습니다(롬10:9-13).

3) 로마서 11장-유대인의 미래 역사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과 약속하신 것들을 깨뜨리실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입니까? (롬11: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놀라운 미래를 가지고 계십니다(롬11:26-27).

5.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들(롬12:1-15:33)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의 방식에는 큰 차이가 나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을 위해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약 시대 때 유대인은 하나님 앞에 희생물(양, 염소나 다른 동물)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시대 때 구원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까?(롬12:1) 이 희생물은 살아있는 것입니까, 죽은 것입니까?

구원 받은 성도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희생물로서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섬김이 됩니다. 당신은 현재 어떠십니까?

 로마의 길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래 로마서의 여섯 구절들을 가지고, 복음이 필요한 가족과 친구들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⁴³⁾

3장 10절 ⇨	3장 3절 ⇨	5장 12절 ⇨	6장 23절 ⇨	10장 9절 ⇨	10장 13절
--------------------	-------------------	--------------------	--------------------	--------------------	-------------------

43) 여기에는 훈련이 필요하고, 구원에 대해 복음을 나눌 준비와 기도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못하거나, 가볍게 다루면 너무 쉽게 Easy believism에 빠지거나, 가벼운(싸구려) 영접 기도를 통해 위선적인(가짜) 그리스도인이 양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믿음뿐임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힘써서 지속적으로 한 혼을 위해서 간절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제36과 고린도전후서.갈라디아서

어느 교회나 문제가 있고,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은 어떤 사람이 자신의 지역 교회에서 온갖 종류의 문제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한 나머지 교회를 떠나기로 결심하고 완벽한 교회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가 교회를 떠나기 전 어떤 사람이 그에게 다음과 같은 건전한 충고를 해주었습니다. “설령 당신이 완벽한 교회를 찾았다 해도, 당신은 거기에 함께 하지 못하거나 어쩌면 당신 자신도 그 교회를 파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불완전한 교회의 희망

교회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사람들은 항상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에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사람들이 직면한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지신 완전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떤 지역교회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순수하며,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십니다(시12:6; 18:30).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인간의 혼을 회심시키고 그분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십니다(시19:7).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완전하신 하나님과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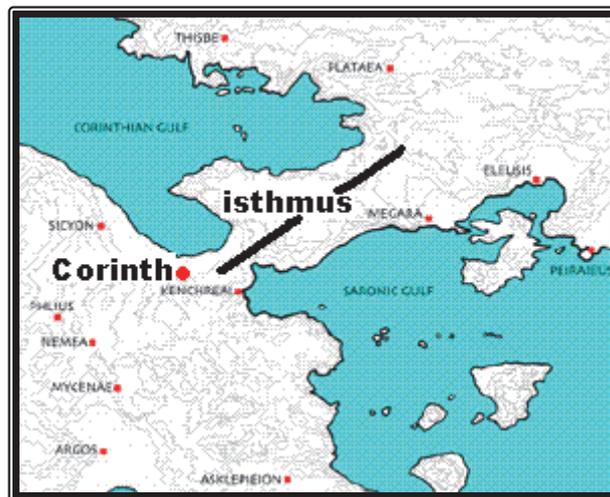
고린도 도시에는 많은 문제를 가졌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그 도시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아래 지도를 보고 고린도를 찾아보세요.



그리스 땅의 남부 지역은 최남단과 본토를 연결해 주는 매우 좁고 긴 땅을 제외하고는 아주 넓은 섬같이 보입니다. 여러분은 지도상에서 이 좁은 땅을 찾을 수 있습니까? 고린도 도시는 '지협'이라고 불리는 이 좁고 긴 땅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지협이란 두 개의 육지를 연결하는 좁고 긴 땅을 말합니다.

고린도는 특히 여행과 무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도시였는데, 당시 그리스 최남단 지역을 여행하는 것은 이들에게는 폭풍이 빈번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론 지름길을 택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보통 무역업자나 여행객들은 고린도 가까이서 배에서 내린 후, 그 화물을 가지고 지협(약 6.4km)을 건넌 다음 다른 배에 실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 더 작은 배들은 이쪽 바다에서 다른 쪽 바다까지 목재로 된 조선대(나무로 된 선로를 가진 뱃길)를 이용해서 건널 수도 있었습니다. 이 외의 다른 방법은 더 위험했을 뿐 아니라 훨씬 더 긴 여정(약 320km)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건너기 위한 모든 노력들은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고린도 길로 가는 것은 생명을 구할 뿐 아니라 시간도 절약하는 길이 되었습니다.⁴⁴⁾

다음의 지도는 고린도(Corinth) 도시와 지협(isthmus) 부근을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죄와 사악함의 도시-고린도

이런 위치적인 이유로 당시 고린도는 방문객과 여행객들이 항상 유입되었습니다. 고린도는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으며, 사람들이 마시고 취하는 많은 술집이 있었고, 도시에는 큰 시장터도 있었습니다. 도시의 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무역과 사업 때문에 부유하게 되었고, 그들은 대부분 거기서 얻은 자신들의 돈을 사악한 일을 행하는 데에 사용했습니다. 고린도에는 사람들에게 유흥을 주던 대극장도 있어서, 그 도시는 운동 경기로도 유명했으며 잘 알려진 이스티미아 경기 대회(Isthmian Games)⁴⁵⁾가 2년마다 열렸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올림픽 경기와는 다른, 로마제국에서 가장 유명한 운동 경기들이었습니다.

44)1881-1893년에는 많은 배들이 이 지협을 쉽게 건널 수 있도록 운하가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는 현대 공학 기술로 인해 길이가 약 6.4km, 높이가 52m인 다리가 세워졌습니다.

45)이스티미아 제전(Ισθμια)은 코린토스 근처에서 2년마다 열린 경기로, 포세이돈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성경의 고린도전서 9:25에 바울이 예로 든 운동경기가 바로 이 이스티미안 게임이다. 이스티미안 게임은 고대 그리스의 4대 경기 중 하나로, 4대 경기는 이스티미안, 올림피안, 파티안, 네미안 게임이다.-<위키백과>

무엇보다도 이 도시는 죄와 사악함으로 유명했습니다. 도시 사람들은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테 여신(비너스)을 숭배했습니다. 그녀에 대한 숭배는 음욕(lust)이라는 단어로 잘 묘사됩니다. 아프로디테 여신을 숭배하는 사원은 1,000명의 사악하고 음욕이 가득한 여자들로 넘쳤고, 음욕의 여신을 숭배하기 위해 많은 돈을 지불하는 남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보통 이러한 사악함은 음행(fornication)⁴⁶이라는 단어로 성경에서 묘사되고 있습니다(고린도 서신 참조-고전5:1; 5:9-10; 6:9; 6:15-20; 7:2; 10:8; 고후12:21).

고린도는 로마제국 전역의 사람들이 죄의 도시임을 알 만큼, 악명이 높았습니다. 한편 고린도의 이교도들을 잘 묘사한 것은 로마서 1장 21-32절에 나옵니다(사실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게 이 말씀들을 썼을 때 그는 고린도에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도자로 이 도시를 처음 방문한 것은 사도행전 18장 1-11절에 나옵니다. 그는 고린도에서 얼마나 머물렀습니까?(11절) 이 기간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 아무도 너를 공격하여 해치지 못하리니 내게는 이 도시에 많은 백성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바울의 마음을 격려하셨습니다(행18:10). 비록 이 도시가 죄로 오염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큰일을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이 죄의 도시에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변화(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것)시키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은 고린도전서 6장 9-11절에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 읽을 수 있습니다.⁴⁷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미치기 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묘사됩니까?(고전6:9-10)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구원 사역을 하신 후 그들은 어떻게 묘사됩니까?(고전6:11)

- ▶오늘날에도 이 세상에 이러한 죄의 도시들이 있습니까?
- ▶오늘날의 도시들은 순결과 덕과 사랑이 중심된 도시입니까?
- ▶하나님께서도 오늘날도 우리의 땅과 도시들에서 일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더러운 쓰레기 더미와 죄의 늪에서 건져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견고한 기초와 강한 반석 위에 올려놓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고전3:11; 시40:2).

46) 성경에서 이 말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부정한 죄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우상숭배와 하나님께 대한 모든 신실하지 못한 행위를 가리킨다. 겔16:1-63에서 유대인들은 갓 태어난 여자아이로 상징되고 있는데 이 아이는 자라서 여인이 되어 언약에 의해 주님과 결혼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언약을 깨고 우상들을 따라갈 때 그녀는 간음한 자요 창녀로서 그에 상응하는 심판을 받았다(렘2:20; 3:8-9; 호3:1). 많은 경우 간음과 음행은 뒤섞여 쓰였다. 신구약성경은 모든 종류의 불순한 것과 음행, 육체적 영적 간음, 배도, 이단, 불충성 등을 정죄한다.-<에스라성경사전>

47) ▶9-10절: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 받는 일은 예수님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받은 자에게만 가능하다(요1:12). 그런데 고전6:9-10절에 나온 사람들처럼 이러한 일에 파묻혀서 사는 자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한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런 죄들 중 어떤 죄를 짓는 이들이 있다. 예를 들어 도둑질 하는 자, 욕하는 자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도 아들로써 그리고 성도로써 보신다. 그러나 성도가 이것을 남용하면 징계를 받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예-고전5장의 음행하는 자). 성경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전적으로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자들이며(고전15:50, 갈5:19-21, 엡5:5-7, 고전6:9-10, 롬1:29-32), 본성에 속한 자들(고전2:14)이다. ▶11절: 과거에는 우리도 이런 자들이었다(벧전4:3).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정죄에서 벗어났다(롬8:1-6).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의 상태는 거룩히 분리되어 구별된 자들이다.-<사랑침례교회 고린도전서 강해 9과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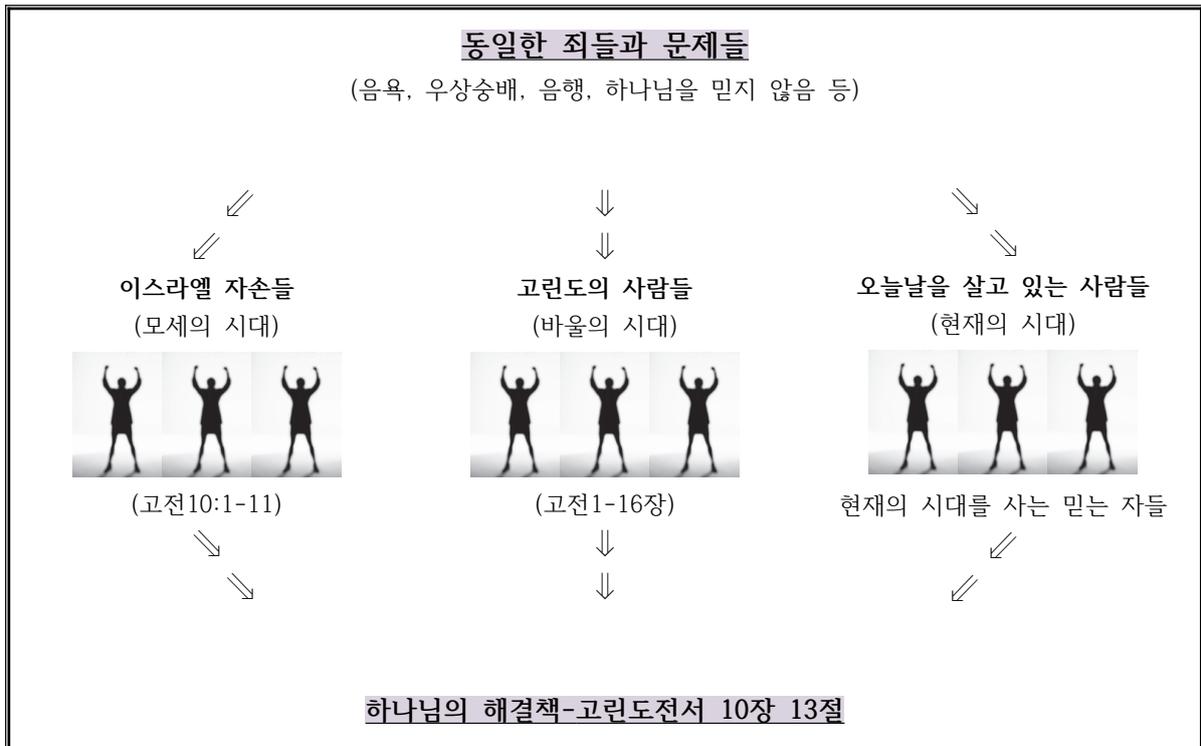
인간의 문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답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첫 편지는 A.D. 약 55년에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초기 편지 중 하나이며 고린도교회가 가지고 있던 많은 문제들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살고 있는 믿는 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많은 문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편지로 주었습니다.

1. 교회의 분열 문제(고전1:10-13)	6. 음행의 문제(고전6:15-20)	11. 영적인 은사 문제(고전12:1-31)
2. 세상적 지혜 문제(고전1:17-2:16)	7. 결혼과 이혼 문제(고전7:1-40)	12. 사랑의 결핍 문제(고전13:1-13)
3. 육체의 문제(고전3:1-4)	8. 우상에게 바친 제물의 문제 (고전8:1-13)	13. 타언어(tongues) 사용 문제 (고전14:1-40)
4. 교회 안에서의 비도덕성의 문제 (고전5:1-13)	9.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해야 할 역할의 문제(고전11:1-17)	14.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의 문제(고전15:1-58)
5. 믿는 동료들 범정에 데려가는 문제(고전 6:1-8)	10. 주의 만찬을 오용하는 문제 (고전11:20-34)	15. 성도들을 위한 모금의 문제 (고전16:1-3)

동일한 죄들과 문제들

고린도 사람들이 직면했던 많은 문제들은 오래 전 이스라엘 자손들이 직면했던 문제들과 매우 비슷했습니다. 동일하게 현 시대 교회들도 이런 저런 식으로 문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믿는 자들이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문제들의 해결사가 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와 명령에 마땅히 순종하며 따라야 하는 사람입니다. 때론 문제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사도바울과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는 A.D. 약 56년경에 기록되었으며, 바울 서신서 중 가장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와 같이 이 편지로부터 바울에 대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또 그의 삶과 사역은 어떠했는지에 대해 아주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읽는 것은 그의 자서전을 읽는 것과 거의 유사하며, 이 경건하고 영감어린 편지에서 우리는 고린도 사람들을 위한 바울의 큰 사랑과 그들의 영적 진보를 위해 그가 가졌던 큰 관심을 보게 됩니다(고후2:4; 6:11; 11:2; 12:14-15; 12:19; 13:10). 바울은 자신의 주 곧 구원자를 위해 고난을 겪었습니다(행 9:16; 고후11:23-28). 또한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며 사도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자신은 교회들을 돌보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짜 사도임을 이해하도록 하였습니다(고전9:1-2; 고후10:1-18; 12:11-12).

☛하나님께서서는 목사님과 교사들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양육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들을 두 배나 더 존경하고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데전5:12-13; 히13:17; 디전5:17).



갈라디아서-외부로 부터의 문제들

고린도 교인들이 교회 내부로부터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면, 갈라디아 교인들은 외부 사람들 곧 그들을 어지럽히고 커다란 잘못을 가르치는 거짓교사들이 일으킨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갈1:6-7; 5:10).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전투 편지라고 불렸습니다. 바울이 이 책을 썼을 때 그는 전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교회들 사이에 널리 퍼지고 있던 거짓 가르침에 대해 매우 염려를 하였습니다. 거짓 가르침보다 해로운 것은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거짓 가르침과 거짓 교리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구원받아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참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바울이 로마서에서 나타낸 복음 참조). 이단이 가르치는 복음은 결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거짓 복음은 참된 구원을 가져 올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바울은 누가 거짓 복음을 선포한다면 하나님의 저주가 그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갈1:8-9).



내가 하려고 할 때마다 나는 실패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행15:1-2 비교). 이것이 사실입니까?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칭의)을 받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으로 받습니까?(갈2:16) 만일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왜 그리스도께서 죽어야 했습니까?(갈2:21 비교)

구원이 우리의 행위와 관계가 있다면 예수님의 완전한 대신속죄의 죽음은 아무 의미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습니까? 거짓 교사들은 사람이 율법을 지키고 금식과 거룩한 날들을 준수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갈 3:1-6; 4:9-11). 이것이 사실입니까? 우리가 믿음(구원받는 방법)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했다면 우리는 또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안 됩니까?(갈3:2-6)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않았으며 행위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내가 한 행위들은 그렇게 선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에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으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위대하신 일을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갈5:16,22-23).

▶갈라디아서는 <2장 20절>로 가장 잘 요약됩니다. 당신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제37과 에베소서.빌립보서

우리는 로마서를 공부했을 때 바울이 로마에 가서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보길 몹시 원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롬1:10-12).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바울을 로마에 가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가이사랴(Caesarea)⁴⁸⁾에서 약 2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난 뒤에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갔습니다.⁴⁹⁾ 바울의 죄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에 관계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에게 나아오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며, 그분께서 끝까지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히7:25; 갈3:28).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히7:25)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매인 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갈3:28)



바울의 편지(옥중서신)

바울은 로마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있는 동안 신약의 일부분이 된 네 개의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의 편지	내 용
에베소서	우리는 죄수 바울이 이렇게 말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비참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나는 부자요 내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복을 받았습다.”라고 말했습니다(엡1:13). 이것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빌립보서	우리는 죄수 바울이 이렇게 말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불만족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 사람들에게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심지어 감옥이라 하더라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빌4:4, 11)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골로새서	우리는 죄수 바울이 이렇게 말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나는 절망적으로 곤궁합니다. 삶은 끔찍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골로새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내가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입니다!”(골2:10; 3:3)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골로새 사람들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빌레몬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감옥에 던져진다면 “주여, 저는 다시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여기서 나가야 합니다!” 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주를 섬겼습니다. 또한 바울은 오네시모라는 도망 나온 종에게도 복음을 선포했고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다. 이것이 빌레몬 사람들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48) 옴바와 두로 사이에 있는 지중해 연안 도시로 헤롯 아그립바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행12:20-23). 사도 바울도 이곳을 몇 차례 방문했으며(행9:30; 18:22; 21:8, 16), 여기서 벨릭스 총독 앞에 섰고(행23:23; 24:1-27) 2년 동안 옥에 갇혔다. 그 후에 바울은 베스도와 아그립바 앞에 섰으며, 마지막으로 그는 여기에서 출발해서 로마로 갔다(행25:26:27:1).-<에스라성경사전>

49) 바울이 어떻게 로마로 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 21-28장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바울은 자신이 로마의 죄수라 할지라도 스스로를 로마의 죄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the prisoner of Jesus Christ) 또는 주의 갇힌 자(the prisoner of the Lord)로 고백했습니다(엡3:1; 4:1).

“이런 까닭에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노니”(엡3:1)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를 부르실 때에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엡4:1)

바울은 로마의 무서운 감옥에 갇힌 자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갇힌 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바울을 강권적으로 사로잡아 그를 제멋대로 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롬6:16; 6:19).

- ▶ 당신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당신을 사로잡으셨습니까?
- ▶ 당신은 주님의 사랑의 사슬에 매여 있습니까?
- ▶ 당신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있습니까?



에베소서-그리스도는 우리의 부요함!

올드 웨스트 산에서 은(silver)을 찾는데 일생을 보낸 늙은 광부가 있었습니다. 한 때 그가 광산을 찾는데 너무 집착하게 되자 그의 아내와 자녀들은 그를 떠났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를 매장하려고 왔고, 늙은 광부가 자신의 오두막집 아래에 묻어달라고 기록한 그의 쪽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오두막집 아래의 땅을 파기 시작했고, 흙이 가득 든 삽을 뒤집는 순간 반짝거리는 회색 물질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거대한 은 광맥으로 드러났습니다. 안타깝게도 평생 늙은 광부는 자신이 은 광맥을 소유한 백만장자였음에도 자신의 재산에 대해 결코 알지 못했으며 자신의 재산을 사용하려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유물을 소유해 본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것이었으나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을 사용해 보지 못했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모든 자는 영적으로 억만장자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요하셨으나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었다고 증언합니다(고후8:9). 하지만 문제는 언제나 우리가 실제로 얼마나 부유한지 종종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만왕의 왕의 자녀라는 신분과 위치를 가졌지만, 왕의 자녀처럼 사는 대신에 종종 가난한 자(거지)로 살아갑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부요한지를 보여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복들이 얼마나 큰 지를 깨달아 알도록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에서 굳건히 자라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모든 특권을 얻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엡1:3)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를 읽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과 부요함 등을 자유롭게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는 아래의 처음 세 가지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1	하나님께서서는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엡1:4).
2	하나님께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셨다(엡1:5).
3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엡1:7).
4	
5	
6	
7	



예수님의 몸 된 교회

모든 믿는 자가 함께 나누는 복 중의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교회의 지체(member)가 되는 특권입니다. 이런 면에서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 많은 것을 이야기하며, 특히 바울은 교회를 몸(body)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에베소서 1절부터 4절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는 절을 각각 찾을 수 있으십니까?

에베소서 1장 ()절	에베소서 2장 ()절	에베소서 3장 ()절	에베소서 4장 ()절
--------------	--------------	--------------	--------------

그리스도는 바로 이 몸의 머리(엡1:22-23)가 되시며, 각각의 믿는 자들은 이 몸의 지체입니다! 바울은 또한 교회를 건물(buliding)이나 거룩한 전(holy temple) 곧 하나님께서 거하시거나 사시는 거룩한 장소로 묘사합니다.⁵⁰⁾ 우리는 에베소서 2장 21절을 통해서 교회가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an holy temple in the Lord)으로 묘사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교회를 몸이나 건물로 묘사했을 뿐 아니라, 신부(bride)로도 묘사하고 있습니다.⁵¹⁾ 에베소서 5장 22-33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결혼 생활을 통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편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아내는 교회를 나타냅니다. 아내는 자신의 남편을 존귀하게 여기며 복종하고, 순종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동시

50) 신약시대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신자의 몸이며(고전3:16-17; 6:19; 고후6:16) 신약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는 결코 성전이 아니다. 교회가 의식화되어 천주교처럼 변하면서 목사가 제사장(사제)처럼 행세하고 예배당이 성전이 되는 구약 체계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비성경적이며 우리 주님이 미워하시는 일이다.-<에스라성경사전>

51) ▶ 현재 그리스도인의 몸은 성령님의 전(temple)이며, 교회 곧 그리스도의 신부(고후11:1-4, 엡5, 롬7:4)는 새 예루살렘이라고도 불립니다(계21).-<사랑침례교회 계시록강해 20과>

▶ 성경은 종종 도시를 의인화해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마23:37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대언자들을 죽였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예루살렘은 그 안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또한 마8:34; 행13:44의 온 도시 역시 도시의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신부인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는 새 예루살렘도 신부로 의인화되어 표현될 수 있습니다.-<에스라성경사전>

▶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여인(woman)으로 불리며(사47:7-9; 50:1; 54:1; 렘3; 호2), 교회는 한 번도 여인으로 불린 적이 없고 정혼한 신부, 순결한 한 처녀로 불립니다(고후11:2). 또한 에베소서 5장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묘사하기도 합니다(엡5:25-27).-<사랑침례교회 계시록강해 25과>

▶ 현 시대 교회는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정혼되어 있으며(고후11:1-3),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깨끗하게 되어 그리스도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사랑침례교회 계시록강해 35과>

에 교회도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분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며 마땅히 존경해야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는 것, 건물의 한 부분이 되는 것, 주님과 결혼하는 것 곧 그분과 하나가 되고 가까운 관계성을 누리는 것은 참으로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빌립보서-그리스도는 우리의 기쁨!**

빌립보에 보낸 바울의 편지는 실제로 빌립보 사람들이 바울에게 보내 준 선물에 대해 바울이 감사하는 감사의 편지였습니다(빌4:15-17). 그러나 바울은 또한 주 안에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크게 격려하고 힘을 주기 위해 이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의 핵심 단어들은 ‘기쁨(명사)’과 ‘기뻐하라(동사)’입니다. 여러분은 빌립보서의 각 장에서 기쁨과 기뻐하라는 단어를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럼 이 단어들이 나오는 절들을 찾아서 적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절	빌립보서 2장 ()절	빌립보서 3장 ()절	빌립보서 4장 ()절
-----------------	-----------------	-----------------	-----------------

바울은 ‘기쁨’과 ‘행복’은 차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할 수는 있지만 진정으로 기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쁘지만 실제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복한’이라는 단어는 운, 기회, 행운을 의미하는 HAP라는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들을 살펴보면 ‘일어나다(happen)’ ‘사건(happening)’ ‘우연히 일어난(happenstance)’ ‘운명에 맡기는(happy-go-lucky)’ 등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운이 좋으면 당신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당신이 바라는 대로 일어난다면 당신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아래 같은 상황이라면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 특별하고 좋은 날이라면/ 크리스마스나 생일에 특별한 선물을 받는다면/ 성적이 잘 나왔다면.....

그러나 당신의 행운이 다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이 바라는 대로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당신은 어떨습니까?

☞ 비로 인해 어떤 활동이나 행사를 망친다면/ 갖고 싶은 선물을 갖지 못한다면/ 독감이 걸린다면.....

 **기쁨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행복은 상황과 일어나는 일에 달려있습니다! 일들이 잘 되면 나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일들이 잘못되면 나의 행복은 가벼워집니다! 그러나 기쁨은 이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빌립보서 4장 4-7절을 보면서 성도가 참으로 무엇을 기뻐해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의 요청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쁨은 상황에 달려 있지 않고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다 해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행16:22-25).

우리는 항상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항상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당신이 예배드리기 위해 집에서 40km 정도 떨어진 교회로 가다가 경미한 사고를 당해 하루 종일 정비소에서 시간을 보냈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이 사건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대하시는 은혜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졌습니까? 하나님은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당신을 가르치시고 축복하실 수 있습니까?

제38과 골로새서. 빌레몬서

골로새서-골로새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
빌레몬서-빌레몬에게 보내는 바울의 서신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개요

골 로 새 서	<p>-기록자: 바울, 기록 시기: 주후 62년경, 성격: 교리</p> <p>-수신자: 일차적으로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고 실제적으로는 모든 신자</p> <p>-이름: 이 서신의 이름은 바울이 편지를 쓴 골로새 교회에서 유래되었다(1:1-2). 골로새는 부루기아의 평범한 도시였으나, 에바브라가 이곳에서 목회 사역을 하면서 그의 인도 하에 이곳의 교회는 믿음으로 유명하게 되었다(1:4-7). 아마도 이 교회는 바울이 에베소에 3년간 머물면서 복음을 선포한 결과 에바브라 등이 설립한 것으로 보인다.</p> <p>-주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1:19)</p> <p>-목적: 우리의 믿음의 목적을 보여 주는 것</p> <p>-핵심 장: 1장(내주하시는 그리스도)</p> <p>-핵심 절: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2:9)</p> <p>-핵심 단어: 충만함, 핵심 구: “그리스도와 함께”</p> <p>-골로새서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신격의 충만</p> <p>-영적 교훈: “그리스도 곧 만물의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p>
빌 레 몬 서	<p>-기록자: 바울, 기록 시기: 주후 62년경, 성격: 개인 서신</p> <p>-수신자: 일차적으로는 빌레몬이고 실제적으로는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p> <p>-이름: 이 서신의 이름은 바울이 편지를 쓴 빌레몬에게서 유래되었다(1:1, 4). ‘사랑이 많은 자’를 뜻하는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로 재산이 많았으며 압비아와 아깁보가 그의 아내와 아들인 것으로 생각된다(2).</p> <p>-주제: 도망친 종의 구원과 회복, 목적: 복음을 선명하게 보여 주는 것</p> <p>-내용: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는 로마로 도망갔다가 바울의 복음 선포로 회심하였다. 바울은 두기고와 함께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그가 그를 친절히 대우해 줄 것을 부탁한다.</p> <p>-핵심 절: “이제는 종으로서가 아니요 오히려 종 이상의 사랑하는 형제로서니라. 특별히 내게 그러하거든 하물며 네게는 육신 안에서나 주 안에서나 얼마나 더 많이 그러하랴?”(16)</p> <p>-핵심 단어: 받아들이라, 핵심 구: “그리스도 안에서”</p> <p>-빌레몬서의 그리스도: 우리의 죄의 빛을 갹아 주시는 주님</p> <p>-영적 교훈: “그리스도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라.”</p>



골로새서-그리스도는 우리의 전부!

골로새 사람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는 골로새 교회가 거짓 가르침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갈라디아에 보낸 편지와 약간 비슷합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골로새의 에바브라 목사의 방문을 통해 그곳 교회의 상황을 보고받았고 또 오네시모에 관하여 골로새에 있던 빌레몬에게 글을 써야 했으므로, 이 서신과 빌레몬서를 기록하여 두기고를 통해 그곳으로 보냈습니다. 사도는 에바브라에게 골로새 교회에 할례, 신비주의, 금육을 통한 구원, 천사 숭배 등의 잘못된 풍습과 가르침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과 그분께서 모든 것보다 뛰어나심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경고를 주는 내용을 담은 본 서신을 기록하였으며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으뜸이 됨을 보여 주고자 하였습니다(1:18).

과거든지 현재든지 거짓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로 누구신지에 대한 잘못된 사상이나 개념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여호와와 증인⁵²⁾이라는 이단 종교는 하나님(여호와)이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단지 창조물로 만드는 것인데,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하나님은 시작도 없으시고 창조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창조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요1:1)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롭고 그릇된 가르침입니다.

이러한 오류와 그릇된 가르침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 그분 그대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골로새서가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를 뛰어나신 분, 만물의 창조자, 교회의 머리, 모든 것에 으뜸이 되셔야 하는 분으로 제시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며, 그분 안에서 우리는 완벽(complete)합니다(골2:10; 4:12).



예수 그리스도

아래 표에 골로새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말씀하는 절들을 찾아 적어보세요.

<p>1.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_____ 절 ☞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p> <p>2. 모든 것이 예수님에 의해 창조되었음: _____ 절</p> <p>3.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_____ 절</p> <p>4.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에 으뜸이 되심: _____ 절</p> <p>5.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를 통해 우리는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음: _____ 절</p>

52)여호와의 증인은 기독교의 중심 교리인 삼위일체, 지옥, 영혼불멸 등을 성서의 가르침이 아니라 이교도의 혼합된 교리라고 보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일하거나 동등하다고 여기지 않는다.-<두산백과>

골로새서와 에베소서

골로새서는 여러 면에서 에베소서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같은 날 이 편지들을 썼다고 여기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래 표에 말씀을 적고 직접 비교해 보세요.

	골로새서	에베소서
1	(1장14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1장7절)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2	(3장8절)	(4장29절)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세워 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3	(3장13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4장32절)
4	(3장16절)	(5장19절)

교훈과 권면

골로새서는 에베소서와 동일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교훈과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아래 표의 빈 칸을 작성하면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상	골로새서 3:18~4:1	에베소서 5:22~6:9
아내들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		
자녀들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버지들		
종들		
주인들	정당하고 공정한 것을 베풀라. 하늘에 주인이 계심을 알라.	협박하는 일을 삼가라. 너희 주인이 하늘에 계시다.



빌레몬서-도망간 종의 이야기

바울은 빌레몬⁵³⁾이라는 한 믿는 자에게 짧은 편지를 썼습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한 지체였습니다. 우리는 이 짧은 편지를 읽을 때 자신의 주인인 빌레몬(18절 참조)에게서 뭔가를 훔치고 로마로 도망쳤던 한 종을 보게 됩니다. 그 종(오네시모)은 자신이 훔친 일들이 드러나자 하나님의 사역자, 사도 바울에게 바로 달려갔습니다. 바울은 이 시기에 죄수였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와 구원의 좋은 소식을 함께 나누었고 그는 다시 태어났습니다(10절). 그 종은 이제 구원받은 종이 되었으며 새로운 주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만약 오네시모가 바울의 복음 선포를 통해 기독교로 개종한 후, 갑자기 자신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되돌아갔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빌레몬은 무엇이라고 말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마 빌레몬은 “넌 천하에 쓸모없는 악당이다! 나한테 훔친 돈 어디 있어? 훔치고 도망갔으니 벌을 받아야 돼!”라고 흥분하며 말했을 것입니다.

빌레몬은 자신에게 돌아온 오네시모가 옛날 자신에게서 도망갔던 종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도망갔던 그 사람은 무익한 종이었지만 돌아온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유익한 형제였습니다⁵⁴⁾. 또한 바울과 디모데가 극진히 사랑하는 자요 동료 일꾼이었습니다(문1:1). 바울은 오네시모를 그의 주인에게 보냈을 뿐 아니라 빌레몬서라고 부르는 작은 편지도 함께 보냈습니다.

빌레몬은 이 편지를 읽은 후 자신의 종 오네시모에게 어찌면 다음과 같이 말했을 것입니다. “오네시모, 너는 내 종이지만 오히려 종 이상의 사랑하는 형제이다(16절). 그리스도께서 너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셨다는 것을 알고 나도 또한 네가 도망친 것을 용서하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매인 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야(갈3:28). 나는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최고의 주인이 되길 원해! 집에 온 것을 환영한다!”



생각해보기

위대한 주인 되신 예수님 안에서 오네시모의 주인 빌레몬도 그분의 피를 통해 죄들의 용서 곧 구속을 받은 용서 받은 죄인입니다. 이제 빌레몬이 다시 돌아온 오네시모를 용서했다면 오네시모는 자신의 주인에 의해 용서받은 종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사랑을 통해 참된 용서와 성도의 하나 됨을 경험한 신실한 믿음의 형제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 빌레몬서의 메시지와 에베소서 4장 32절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3절은 어떻게 같습니까?

“서로 친절히 대하여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엡4:32)

“누가 누구와 다툼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골3:13)

53) 브루기아의 골로새에 있던 부유한 그리스도인. 빌레몬은 바울의 인도로 개종하였고 그 당시 바울은 죄수로 있었다. 빌레몬서는 우아함과 정중함과 남자다움 등으로 인해 많이 읽힌다. -<에스라성경사전>

54) 11절 참조-오네시모라는 이름은 “유익한”이라는 뜻임.

제39과 데살로니가전후서(1)

새로운 신자들을 위한 규범(Prescription for New Believers)

데살로니가전후서 개요

데 살 로 니 가 전 서	<p>-기록자: 바울, 기록 시기: 주후 53년경, 성격: 교회를 위한 서신</p> <p>-수신자: 일차적으로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고 실제적으로는 모든 신자</p> <p>-이름: 이 서신의 이름은 바울이 편지를 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유래되었다(1:1).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의 수도였으며 거기에는 유대인도 많았고 산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았다. 이곳의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하며 약 한 달 동안 머물면서 설립했으며(행17:1-10)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선포함으로 박해를 받았다(행17:7). 사도 또한 그 일로 인해 결국 도시에서 쫓겨나 베레아로 갔다.</p> <p>-주제: 진노 전에 자신의 교회를 하늘로 데려가기 위해 재림하시는 그리스도</p> <p>-목적: 성도들에게 주님을 볼 수 있는 재림의 소망을 주어 그들이 고통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p> <p>-내용: 베레아에서 다시 아테네로 피신한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서 그를 데살로니가로 보내어 그곳의 성도들을 위로하게 하였다. 사도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에 대한 인신공격이 있고 죽은 성도들로 인한 염려가 있음을 알려 왔으며 이에 사도는 그들에게 먼저 자신을 변호하고 박해에도 불구하고 충성을 다 할 것을 말하며 이미 가르친 적이 있는 진리를 확증하고 거룩한 삶을 살 것을 권면하였다.</p> <p>이것은 사도 바울이 모델 교회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였는데 이 교회는 나무랄 데가 거의 없는 순전한 교회였다. 이 교회는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였다. 그는 그들의 선택, 성령의 사역, 확신, 삼위일체, 재림, 성화, 부활과 휴거, 주의 날, 사람의 삼위일체 등을 가르쳤다.</p> <p>-핵심 장: 4장(휴거)</p> <p>-핵심 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 내신 예수님이시니라.”(1:10)</p> <p>-핵심 단어: 그리스도의 오심, 핵심 구: “그리스도 안에서”</p> <p>-데살로니가전서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주님, 영적 교훈: “그리스도는 확실히 다시 오신다.”</p>
데 살 로 니 가 후 서	<p>-기록자: 바울, 기록 시기: 주후 54년경, 성격: 교회를 위한 서신</p> <p>-수신자 및 이름: 데살로니가전서 참조</p> <p>-주제: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재림하시는 그리스도</p> <p>-목적: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거짓 가르침에 대해 경고를 주고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의 날의 관계를 바로 알려 주는 것</p> <p>-내용: 그리스도의 재림의 임박성에 대해 잘못 알고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일도 하지 않고 무질서하게 사는 것을 보고 사도는 이 문제를 바로 가르쳐 주기 위해 먼저 그들이 복음으로 인해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위로를 주고 주의 재림에 관하여 다시 한 번 설명해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 주며 무질서하게 걷는 자들을 지목하고 그런 사람들에게서 떠날 것을 권면한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은 특히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성전 건축, 적그리스도의 출현, 그때의 세상 풍조 등을 잘 보여 준다.</p> <p>-핵심 장: 2장(그리스도의 날과 죄의 사람), 핵심 절: “그러나 주께 사랑받는 자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과 진리를 믿는 것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이라.”(2:13)</p> <p>-핵심 단어: 기다리다, 핵심 구: “그리스도 안에서”</p> <p>-데살로니가후서의 그리스도: 속히 다시 오시는 주님</p> <p>-영적 교훈: “그리스도께서 올 때까지 깨어서 일하라.”</p>

데살로니가(Thessalonica) 이야기

데살로니가는 그리스 북쪽에 있는 마케도니아의 주요 도시 겸 큰 항구 도시로 로마 총독의 거주지였으며, 특히 여기에는 유대인이 많이 살아서 바울은 주후 52년경 이곳 회당에서 세 안식일에 연속해서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어떤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자 형제들이 몰래 그를 빼내어 베레아로 보냈고(행17:1-34), 바울은 아테네와 고린도로 가기 위해 마케도니아를 떠나면서 디모데와 실라를 데살로니가에 남겨 두어 자신의 사역으로 회심한 사람들을 돕게 하며 후에 데살로니가전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데살로니가 도시를 아래의 지도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죄의 도시

데살로니가는 고린도 도시와 여러 면에서 유사했습니다. 데살로니가도 '죄의 도시'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상을 섬겼으며(데전1:9비교), 그 도시는 온갖 사악함으로 가득 차 있었고 고린도에서처럼 음행의 죄가 큰 문제였습니다(36과 참조, 데전4:3 비교).

하나님은 죄 가운데서 생명과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친히 다가가셔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14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이들이 복음을 통해 부르심을 입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이루신 것 곧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들을 택하시고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과 진리를 믿는 것을 통해 이루신 구원의 큰 사역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누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사도행전 17장 1-9절에 나옵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데살로니가에 이르렀고, 유대인들의 회당에 자기의 관례대로 들어갔습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났어야 함을 설명하고 주장했으며, 자신이 선포하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구원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서는 몇 사람만이 믿고 바울과 실라와 사귀었으며, 오히려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은 시기심에 차서 천박한 불량배들을 데려다가 바울과 실라를 백성에게 끌어내려 하였습니다(행17:4-5). 그리고 마침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켜 바울과 실라가 그 도시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행17:5-10).

통상적으로 바울은 새롭게 믿음을 가진 자들을 위해 그들을 가르치고 믿음 안에서 강건하게 세우려고 그들과 함께 여러 달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새로운 믿는 자들을 염려해서 데살로니가 도시에 남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남아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다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되돌아가서 이 사람들을 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데전3:6,10).

바울은 비록 이들을 방문할 수는 없었지만 믿음 안에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강건하게 하고 위로하기 위해 위험한 선교 여행에 하나님의 사역자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동료 일꾼이 된 디모데를 보냈습니다(데전3:2 참조). 그리고 얼마 후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서 떠나 바울에게 돌아 왔습니다.

▶ 아래 표에서 디모데가 가져온 메시지는 무엇입니까?(살전3:6-7) 정답에 표시(o)를 해보세요.

1. “바울 선생님,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주께로부터 돌아서서 우상숭배로 다시 가버렸습니다.”	
2. “바울 선생님, 나쁜 소식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사람들이 더 이상 주를 사랑하지 않아요. 선생님도 다시 보길 원치 않아요.”	
3. “바울 선생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지금도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고 있어요. 그들은 선생님을 다시 보길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4. “바울 선생님, 믿지 않는 자들이 데살로니가의 모든 믿는 자들을 죽였어요. 남아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두 개의 편지

바울의 마음은 디모데가 가져온 좋은 소식을 듣고 기뻐하였습니다. 또한 바울은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이 가르쳤던 것들을 상기시키고, 여러 가지 문제에 처해있는 그들을 위로하고, 주님의 재림에 대한 것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데살로니가전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온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고(데후2장), 교회 지체들 사이에 보이는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데후3장) 데살로니가후서를 보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보낸 이 두 개의 편지들은 기독교 초기 서신으로 대략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후 약 20년이 지나서 기록된 것입니다. 이것들은 바울이 기록한 것 중 가장 초기에 쓴 두 개의 편지들로서 약 A.D. 51년에 기록되었으며, 바울이 이보다 더 일찍 기록한 유일한 편지는 A.D. 48-49년으로 추정되는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두 개의 편지들은 새로운 신자들 (New Believers)을 향해 쓴 것입니다. 또한 이 지침은 모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도 이해하고 깨달아야 할 것들임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여러분은 새로운 신자들이 이 말씀을 통해 이해하고 깨달아야 할 것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믿음-구원과 중생과 성화⁵⁵⁾

1) 우리는 죄인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믿는다.

2)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썩지 아니할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레17:11; 벰전1:18-19),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요구를 온전히 충족시키셨다(갈3:13).

3) 우리는 누구라도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믿는다. 이 세상의 행위나 도덕이나 규례 준수 등은 죄인이 하늘나라에 가는 데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다(사64:6; 요3:5, 18; 갈6:15; 빌3:4-9).

4) 구원을 받으려면 위로부터 주어지는 새 본성 곧 성령님께서 심어 주신 새 생명이 반드시 필요하다(요3:16; 행15:11; 벰전1:23; 엡2:8-9). 이런 중생은 행위와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요1:12; 3:16, 18, 36; 5:24; 6:29; 행13:39; 16:31; 롬1:16-17; 3:22, 24-26; 4:5; 10:4; 갈3:22). 이 같은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그것 자체가 따로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⁵⁶⁾

5)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행위와 상관없이 전적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의 구원은 영원토록 보장된다.

6) 우리는 중생이 일생에 단 한 번 순식간에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그 이후에는 평생토록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성화의 과정'이 있음을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이 마땅함을 믿는다.

55) 아래 내용은 사랑침례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우리의 믿음> 中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기억해야 할 내용(구원.중생.성화)을 발췌한 것입니다. 죄 가운데 죽게 된 인생을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아래의 내용을 자주 상기하는 것도 믿음의 기초를 다지는데 중요하리라 믿습니다.

56) 복음이 말하는 회개 즉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는 죄를 슬퍼하고 죄 지은 것을 미워하며 그것을 철저히 증오하면서 되돌아서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과 명령들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뜻한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참된 회개가 나타나며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은 죄들의 용서가 거저 주어진다(마4:17; 행3:19; 11:18; 20:21; 26:20). 따라서 사람의 구원에 있어서 회개와 믿음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다.-<에스라성경사전>

제40과 데살로니가전후서(2)

바울이 기록한 데살로니가전후서는 새로운 신자들(New Believers)을 향해 쓴 것이며, 더 나아가 모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도 이해하고 깨달아야 할 것들입니다. 이 시간에는 데살로니가전후서에 기록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새 신자들이 마음에 기억해야 할 12가지 지침들을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신자를 위한 12가지 지침⁵⁷⁾

1) 새 신자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장미꽃 밭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이것은 어려움이나 문제가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3장 3-4절,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과 6절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많은 역경, 고난, 환난, 핍박, 괴로움, 문제들, 시련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하나님께서서는 성도들이 고난을 겪도록 허용하셨습니까? (데전2:14; 데후1:5)
-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과 고난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습니까? (데전3:3-4)

주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그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환난과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16:33).

구원 받은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요16:33; 17:11). 또한 이 세상에는 환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은 평안을 누리고 기운을 낼 수 있습니다(요16:33).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을 승리하셨음을 알기 때문에 문제의 한 가운데서도 구원 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2) 새 신자는 항상 기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많은 환난, 고난, 박해 뿐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도 가지고 있었습니다(데전1:6).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썼을 때 그는 이것을 상기시키고 항상 기뻐하라(Rejoice evermore)고 말했습니다(데전5:16). 믿는 자들은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보낸 것과 같은 메시지였습니다(빌4:4).⁵⁸⁾

3) 새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습니다. 특히 말씀을 받아드릴 때는 온전히 준비된 마음이 중요하며(데전1:6 참조, 행2:41과 17:11 비교),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57) 당연히 새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이러한 지침들은 구원 받은 성도들 모두가 기억해야 할 지침으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제 막 그리스도인이 되었든지 또는 구원 받은 후 시간이 많이 흘렀더라도 항상 기초와 기본에 충실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58) 도덕적 기쁨은 무엇인가 선한 것을 해서 얻은 즐거움으로 화평, 평온함이라 부른다. 그러나 영적 기쁨은 성령의 선물이다(갈5:22). 이런 기쁨의 대상은 하나님(시43:4; 사61:10), 약속(빌3:3; 벰전1:8), 복음(시89:15) 등이며 이런 기쁨은 상황에 상관없이 발생하고 영원하며 말로 할 수 없다(요16:22; 빌4:4; 벰전1:8).

- ▶ 당신은 진실로 성경을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입니까?
- ▶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의하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the word of God)을 받았습니까? 맞는 답에 표시(0)를 해보세요.

1. 그들은 기록된 말씀 중 어느 한부분 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단지 사람의 말들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들(the words)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2. 그들은 의심과 불확실성을 가지고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확신하지 않았습니다.	
3. 그들은 그것을 받았지만 그리스의 다른 철학자들이 삶과 죽음에 대해 가르치는 것을 들을 자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4. 그들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전심으로 믿었습니다.	

4) 새 신자는 매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했습니다(데전5:17). 성도들은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매일 24시간 무를 꿋고 기도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임마누엘)⁵⁹⁾을 의지하고 그분께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말씀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나침반이 어디에 있든 늘 북쪽을 가리킬 수 있다는 표현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친구와 길을 걷는다면 당신은 그가 옆에 있다는 것을 압니까? 당신은 친구와 자주 대화하면서 갑니까? 당신은 친구와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비록 그분을 볼 수 없어도 그분의 현존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놀라운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를 통해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거룩한 왕가의 제사장입니다(벧전2:5; 9).

5) 새 신자는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수많은 고난과 박해로 인해 그들에게 불평이 가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데전5:18).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울 때라도 우리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고 계시는 일들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은 제한이 없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사실만으로도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 갈 수가 있습니다.

59) 이것은 신성과 인성을 지닌 채 사람들과 함께 거하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즉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에게 적용되었다(사7:14; 8:8; 마1:23). 이 말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상태를 나타내지 않고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킨다.-<에스라성경사전>

6) 새 신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자신의 삶에서 일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습니다. 또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자신의 거룩한 영을 구원 받은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데전 4:7-8).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삶 속에서 늘 거룩히 구별되길 원하십니다(데전4:3). 그렇지 만 종종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능력의 일들을 하시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데전5:19)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억누른다는 것은 믿는 자가 하나님께 “아니오.”라고 불순종할 때마다 성령님을 우리 안에서 슬퍼하시게 하는 것입니다(엡 4:30). 우리는 항상 주께 “예”라고 말해야 합니다.

“네,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겠습니다! 네,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곳은 어디 든지 가겠습니다! 네,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말은 무엇이든지 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마라”라고 말씀하실 때, 믿는 자가 “아니오, 저는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기록된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계 시된 대로 그분의 명령에 복종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7) 새 신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데살 로니가전서 4장 1-8절에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거룩함에 대해 썼습니다.

여러분!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사악한 도시 한 가운데 살고 있었 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살아계시고 능력이 많으시므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 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데전4:5)을 넉넉히 이기고, 그들과는 다르게 살도록 도우실 수 있는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8) 새 신자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바울은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문제에서 벗어나 다시 오실 주 예수님께 시선을 두도록 도왔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의 모든 장은 주 예수의 재림에 대해 말하면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절들을 찾을 수 있습니까?

1장	()장 ()절
2장	()장 ()절
3장	()장 ()절
4장	()장 ()절
5장	()장 ()절



9) 새 신자는 마귀에 대해 배워야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2절은 사탄과 그가 미래에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절들을 읽을 때 사탄과 사탄의 아들(죄의 사람, 적그리스도)과 사탄의 능력에 대해 배운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보다 사탄의 거짓말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0) 새 신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탄은 믿는 자들이 게으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을 하지 못할 때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좋은 증거가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자신의 손으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데(데전4:11; 데후3:10-12),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강하게 말했으며,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습니다(데후3:10).

사람이 구원받을 때 이것이 그 사람을 가난한 일꾼, 가난한 학생, 게으른 주부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일하는 사람, 최선을 다하는 학생이 되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기쁨이 되어드리기 위해 자신의 자리에서 최고는 아닐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1) 새 신자는 하나님께서 자신 위에 세우신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는 그들을 위해 수고하고 주 안에서 감독하며 훈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람들로 인해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고, 화목하게 지내라 말했습니다(데전5:12-13).

▶당신은 목사님이나 다른 교회 지도자들을 존경합니까? 당신은 매일 그들이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까? 당신은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그들을 도우려고 합니까? 당신이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12) 새 신자는 자신이 도착했다고 생각하는 지점까지만 가서는 안 됩니다.

비록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새 신자였지만 그들은 매우 잘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였습니다(데전1:3). 하지만 바울은 그들이 비록 잘 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더 잘하기를 원했습니다!

- ▶바울은 이들이 가졌던 믿음으로 인해 위로를 받았습니까? (데전 3:6-7)
- ▶이들의 믿음은 완전했습니까, 아니면 진보가 필요했습니까? (데전3:10)
- ▶이들의 사랑은 완전했습니까, 아니면 바울은 더욱 더 증가되기를 원했습니까? (데전3:12)
- ▶이들은 서로 사랑했습니까? (데전4:9-10)
- ▶바울은 그들의 사랑이 그대로 있기를 원했습니까, 더욱 증가하기를 원했습니까? (데전4:10)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리가 아무리 잘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바르게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을 더 많이 보여주고 더 잘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계속 정진해야 하며, 그분이 원하시는 것들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제41과 디모데전후서.디도서

-목회서신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첫 번째/두 번째 서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에게 보내는 바울의 서신: 디도서

디모데전후서.디도서

바울은 로마의 옥중에 죄수의 신분으로 있을 때 네 개의 편지(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기록했습니다. 이후로 바울은 약 2년간의 감옥 생활을 끝낸 뒤에 마침내 석방되었고, 자유로운 몸으로 믿는 자들을 돕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며 교회를 시작하고 강건하게 세우기 위해 여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유로운 시기에 바울은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바울은 그의 말년에 다시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딤후2:9 참조), 이것은 바울의 두 번째이자 마지막 수감이었습니다. 이 일 후에 그는 다시 석방되지 않았고,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바울은 지하 감옥에서 우리가 디모데후서라고 부르는 편지를 한 번 더 디모데에게 보냈습니다. 이 책은 바울이 마지막으로 기록한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바울의 마지막 편지였고, 그가 이것을 썼을 때 바울은 자신의 죽을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목회서신 이야기

바울의 다른 모든 편지들(빌레몬서 제외)은 교회에게 쓴 것이지만 이 세 개의 편지들은 디모데와 디도라는 두 사람에게 쓴 것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들은 교회의 지도자를 의미하는 목사(목자)였습니다. 목자가 양들을 돌보듯이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믿는 자들을 돌보는 책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 세 편지들은 <목회서신>이라고 부릅니다.

▶ 디모데는 목사로서 자신의 사역을 어디에서 수행했습니까? (딤후1:3)

▶ 디도는 어디에서 목사로 사역했습니까? (딤후1:5)

우리는 사도행전 16-20장에서 디모데에 대해 배웁니다(특히 행16:1-3). 디도는 사도행전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바울의 다른 편지(고후2:13; 2:13; 7:6,13,14; 8:6; 12:18; 갈2:1,3 참조)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편지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큰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편지들을 읽을 때 목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이해할 수 있고, 교회는 어떠한가 하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은가?” “나는 바른 교회에 속해있는가?”라는 질문도 해 보아야 합니다.

목사와 설교

우리는 이 세 책들을 살펴볼 때 목사와 설교에 대해 적어도 5가지 것들을 배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서로 나누며 놀라우신 주님과 구원자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처럼 아래의 5가지를 목사와 모든 믿는 자의 삶에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1) 목사는 바른 구원과 바른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대로 복음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세상의 많은 교인들이 매주일 수년 동안 교회에 다녔지만 “어떻게 구원 받는가?”라는 명확한 구원의 도리를 배우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에 편지를 썼을 때 그는 구원에 대해 많은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는 놀라운 구원에 대해 선포하고 가르치길 원했습니다.

- ▶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셨습니까? (딤후1:15)
- ▶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구원하시길 바라십니까? (딤후2:3-4)
- ▶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⁶⁰로 주셨습니까? (딤후2:6)
- ▶ 누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유일한 중재자이며 우리를 하나님께 데리고 갈 수 있는 분입니까? (딤후2:5)
- ▶ 우리는 누구에게 우리의 신뢰와 소망을 두어야 합니까? (딤후4:10, 6:17)
- ▶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됩니까, 자신의 선한 행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딤후3:7)

☞ 사람은 자신의 선한 행위⁶¹로 구원받지 못하며(디3:5, 딤후1:9), 또한 사람이 진짜로 구원받았다면(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하신다면) 그는 믿음의 선한 행위를 하게 될 것입니다(디2:14).

2) 목사는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증언을 밝히 말할 때에 말이나 지혜의 뛰어난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선포하고 알릴 것을 결심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정치나 철학을 선포하고 어떤 교회는 이웃을 돕고 사랑해야 한다고 선포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전쟁과 가난, 범죄를 반대하는 설교를 합니다. 어떤 교회는 종교(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것)를 선포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모든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디모데와 디도가 그리스도를 선포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인간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습니다.

60) “대속물”이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그리스도의 심판 아래 있는 죄들로 인한 완전 속죄를 지불하는 대속의 희생제물을 의미함

61) 믿음과 대조해서 쓰일 때 행위는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율법의 행위는 그 자체로는 선하지만 구원을 주지 못한다(롬4:2, 6; 갈2:16). 기독교를 제외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믿음 더하기 행위 혹은 행위로 인한 구원을 가르친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에는 오직 은혜든지 행위든지 둘 중 하나만 있을 뿐이다(롬11:6).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창조물이 자기 행위의 선함을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구원 받은 이후에 성도들은 선한 행위를 하는 데 힘을 써야 하며(엡2:10), 참 생명을 소유한 자는 반드시 선한 행위의 열매를 내게 되어 있다.-<에스라성경사전>

☛다음의 절들은 바울의 목회서신에서 선포된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의로우신 심판관	딤후4:1, 딤후4:8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한 중재자이시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딤펴2:5
★그리스도는 나의 주	딤펴1:2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	딤펴1:1, 딤후1:10 딤펴1:4, 딤펴2:13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심	딤펴2:6, 딤펴2:14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	딤펴1:1
★그리스도는 육체로 분명히 드러나신 하나님	딤펴3:16
★그리스도는 실제로 죽었다가 죽음에서 다시 일으켜 지신 실제 사람 (다윗의 후손)	딤펴2:8
★그리스도는 사망을 폐하신 분	딤후1:10
★그리스도는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위대하신 하나님	딤펴2:13

3) 목사는 성경전체를 선포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복음서만을 또는 시편 또는 자신이 좋아하는 구절만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으로, 목사는 진리의 성경 기록 전체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경륜을 잘 가르쳐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들은 항상 구원을 가르치지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할지를 이해시키고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분명 놀라운 절이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의 전부는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만 알기를 원하셨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아주 작은 성경만을 주셨을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했습니다(딤후 4:2).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려면 그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고 연구해야 합니다(딤후2:15).

☛다음 중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딤후3:16은 무엇이라 이야기 합니까?

- ①신약만 ②신약과 시편만 ③복음서와 시편과 잠언만 ④신구약 66권 모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디모데후서 3장 16-17절을 항상 기억하고, 성경 기록을 통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져서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을 바르게 준비하며, 선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나가길 소망합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4) 목사는 교회의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목사는 반드시 하나님이 자신의 교회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쓴 주된 이유이기 때문에 디모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인 하나님의 집에서 자신이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알았을 것입니다(딤후3:15).

목회서신은 지역교회나 지역 회중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들은 우리들에게 교회의 조직, 교회에서의 직분, 교회의 교리(가르침), 교회의 대적들, 교회에서의 예배와 교회의 미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실제로 무엇인지, 성경이 교회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잘 알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 많은 교회들 안에는 스스로를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목회서신에서 교회에 제사장들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까? 분명하게도 성경은 목사는 집사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교회에게 주신 직분(office)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딤후3:1-7; 딤후3:12, 딤후5:17).⁶²⁾

5) 목사는 입술이 아니라 삶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목사는 자신이 선포하는 것을 지키고 실행하기 위해 마땅히 훈련해야 합니다. 목사는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로 살아야 합니다. 디모데는 교리에 주의를 기울여야(자신의 가르침이 바른지 확인하는 것) 할 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자신의 삶이 바른지 확인하는 것)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딤후2:7 참조)에서 디모데는 믿는 자들이 디모데를 보고 바로 그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또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고 말했습니다(딤후4:7). 육체적 훈련도 중요하지만(딤후4:8) 영적 훈련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가 영적으로 강건하기를 원했으며, 디모데후서 2장을 보면 그들이 아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했을 것입니다.

a.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절	b. 수고하는 농부	----절
c. 우승하려고 애쓰는 사람	----절	d.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절

 **진리의 사람-바울**

사도바울은 진리를 가르쳤을 뿐 아니라 진리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잘 살면 잘 죽을 수 있습니다(빌1:21).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썼을 때 그는 감옥에 있었고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딤후4:6).

- ▶ 왜 그는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빌1:23)
- ▶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 자신이 살았던 길을 부끄러워했습니까? (딤후4:7)
- ▶ 그는 자신이 의로우신 심판자 앞에 서는 순간을 기쁨으로 기다려 왔습니까? (딤후4:8)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로마 사람들에게 처형을 당했지만, 곧바로 주님이 계신 셋째 하늘에서 주와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고후5:8; 빌1:23). 비록 로마 사람들은 바울을 죽였지만, 역사 속에서 바울이 선포했던 말씀은 자유로운 행로를 따라 결코 중단되지 않았으며, 더욱더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딤후2:9; 살후3:1).

“이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악을 행하는 자처럼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당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딤후2:9)

62) <목사와 집사>관련해 자세한 것은 아래 주소를 살펴보기 바랍니다.

http://www.keepbible.com/bbs/board.html?board_table=spe&write_id=63

http://www.cbck.org/bbs/board.html?board_table=spe&write_id=185

제42과 히브리서(1)

- 예수그리스도의 제사장직
-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 히브리서
- The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HEBREWS

이 책은 누가 썼습니까?⁶³⁾

킹제임스 성경은 히브리서의 본문 위에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The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HEBREWS)이라고 명시하면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바나바 또는 아볼로, 실라 등이 이 책을 썼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히브리서의 앞뒤 정황과 특별히 히브리서 13장의 정황을 보면서, 히브리 사람들의 전통과 그들이 지키는 여러 가지 율법 및 제사 의식에 정통하여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과 비교해 가면서 성경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당시에 사도 바울 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킹제임스 성경에 나와 있는 저자 이름 그대로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으로 이해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히브리서가 바울의 기록임을 증명하는 외적/내적 증거들⁶⁴⁾

1. 2세기 초의 시리아 페시타 역본과 구 라틴 역본 등이 바울이 기록자임을 언급함.
2. 동방 교회들과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초대 교부 클레멘트 등이 바울의 기록물임을 인정함.
3. 서방 교회들에서도 처음 히브리서가 베드로후서, 요한2,3서 등과 같이 정경성이 의심됐지만, 27권 신약성경이 정경으로 확정 되는 과정 속에서 A.D. 350년부터는 자연스럽게 바울의 기록물로 인식됨.
4. 히브리서 자체의 증언
 - (a) 히13:23: 저자는 디모데의 동료임/ 히10:34: 그는 결박 중에 있었음.
 - (b) 히13:18-19: 그는 감옥에 있고 자기가 곧 풀려나도록 기도해 줄 것을 요청(빌2:17-24).
 - (c) 히13:24: ‘이탈리아 출신의 사람들’ 역시 바울이 로마에 있었음을 보여 줌.
 - (d) 히브리서 교리가 바울의 교리와 정확히 일치-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유대인 사도), 기독교의 우월성 강조(갈1:11-24, 빌3:2-11).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이유: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도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이 서신이 바울의 것으로 알려지면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한 반감(그들은 그를 배도자로 여겼다-행28 등)을 갖고 있었으므로 그들이 편지를 읽지 않을 가능성이 컸을 것이라 생각된다.

63) 히브리서의 인간 저자에 대해 미들타운 바이블교회의 <주일학교 9학년 교재-신약성경 10과>는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인간 저자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히브리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령님이 성경의 참 저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침례교회 <중고등부 주제별 성경공부>인본 교재는 정동수 목사님의 <히브리서 강해 제1과>를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분명한 히브리서의 저자라는 내용으로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64) 사랑침례교회 <히브리서강해 제2과> 中



이 책의 독자들은 누구였습니까?

히브리서는 신약에서 로마서와 고린도전서 다음으로 세 번째로 긴 편지이며, 특히 13장은 어느 곳에서나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해야 할 풍부한 진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이 서신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졌는데, 이것은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이 유대인(이탈리아에 살고 있던)이었음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유대인 일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였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입니다(히3:1). 또한 히브리서의 일차적 수신자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며, 실제적 수신자는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히12:23).

히브리서가 기록된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들은 큰 고난과 박해를 받았으며(히10:32-33), 그들 중 일부는 세상의 많은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히10:34). 또한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항상 장미꽃 받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배워야 했던 것과 같은 진리였습니다.

당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어려움과 시련 때문에 믿음이 흔들렸고,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기독교에서 돌아서서 다시 유대 종교로 되돌아가기도 하였습니다.

주님은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씨는 바위 위에 떨어져서 썩을 났다가 수분이 부족해 곧 시들어 버렸습니다(눅8:6 참조).

누가복음 8장13절에 의하면 바위 위에 떨어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나 뿌리가 없어 잠시 믿다가 시험의 때에 떨어져 나가는 자들임을 알려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잠시 믿는 사람이며, 유혹과 어려움이 왔을 때 떨어져 나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사람들의 문제는 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눅8:13).

두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는 작고 얇은 뿌리를 가지고 있고 다른 하나는 땅속 깊이 내려간 거대하고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풍이 왔을 때 어느 나무가 그대로 서 있을까요? 어느 나무가 쓰러질까요?

히브리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려고 쓴 편지였습니다! 바울은 히브리서를 통해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깊게 뿌리를 내리고 굳세게 서도록 격려와 경고를 하였고,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세상 즉 육체나 마귀가 보낸 아주 큰 폭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언제 이 편지가 보내졌습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로마군대는 A.D. 70년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성전을 멸망시켰으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멸망 이후로 성전을 가지지 못한 상태로 유리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히브리서는 이러한 큰 멸망이 일어나기 전에 기록된 것이 틀림없는데, 그 이유는 히브리서 10장 11절을 보면, 성전이 여전히 서 있는 가운데 유대인 제사장들이 사역하고 있고, 동물 희생물이 드려지고 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은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된 이후로는 유대인들의 성전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편지가 확실히 대략 A.D. 66년경 곧 예루살렘의 멸망 전에 보내졌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이해하기

이미 언급되었듯이 이 책은 유대인들에게 보내졌으며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39권)에 익숙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약, 특히 첫 5권(창세기-신명기)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히브리서를 이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히브리서에서 우리는 제사장, 광야 생활, 안식일, 멜기세덱, 유다와 레위 지파, 모세의 율법, 성막, 진설병, 휘장, 금홍의 자리, 지성소, 희생물, 암송아지의 재(ashes)⁶⁵, 장자권을 파는 예서 등을 읽습니다. 당신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리스도, 목자와 지혜자 등을 잘 알고 있듯이 유대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이 구약을 잘 모른다면 그는 이 책에서 읽는 많은 것들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11장도 구약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교의 우월성

당시 어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로부터 돌아서서 다시 유대 종교(동물 희생물, 모세의 율법, 사람 제사장 등)로 되돌아 갈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줍니다. 이 책은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월하며 그리스도교(기독교)가 얼마나 우월한지를 보여줍니다. 기억하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사람만이 더 나쁜 것을 좇아서, 더 나은 것으로 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1절에 의하면 율법에 쓰여 있는 것들(동물 희생물, 성막 등과 같은 것)은 단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림자와 실체 중에서 어느 것이 우월하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아이스크림 그림자를 가지길 바랍니다, 아니면 실제 아이스크림을 가지길 바랍니다?

당신은 만 원권 지폐의 그림자를 가지길 바랍니다, 실제 만원을 가지길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의 희생예물에 비해 그리스도의 희생이 훨씬 우월함을 보여 주며, 특히 구약이 예표이며 그림자이고 신약이 실체임을 보여줍니다.⁶⁶

복음의 초기에는 대다수 성도들이 유대인이고 여전히 유대교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유대인 교사들은 기독교로 회심한 형제들에게 손을 뺀어 그들을 다시 유대교로 복귀시키려 하였습니다. 이에 사도는 유대인 교사들의 주장을 무력화하기 위하여 먼저 그리스도가 천사와 모세와 여호수아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레위의 제사장 체계와 그 안의 모든 희생물보다 우월함을 증명하고,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 율법의 신비를 아는 것과 그 안의 의식 법들이 제정된 목적과 용례 그리고 이제는 그것들이 실체가 옴으로써 완전히 폐기된 것 등을 논리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히브리서는 구약이 예표와 그림자라는 것과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한 실체로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65) 붉은 암송아지의 재는 정결하게 하는 예식에 사용되었다(민19:1-22).

66) 구약 시대의 많은 것들이 신약 시대의 예표가 되지만, 100%는 아닙니다. 또한 구약시대의 사건과 물건 등이 신약시대의 어떤 것과 아주 비슷한 점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구약시대의 모든 것이 신약시대의 예표라고 주장하면서 문맥에 맞지 않게 예표론을 주장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으며 종종 위험하기도 합니다.-<에스라성경사전 참조>

뛰어나신 그리스도

바울 사도는 히브리서 3장부터 4장 13절에서 기독교의 창시자가 유대교의 모세나 대제사장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임을 보여줍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유대교의 모세, 아론, 대언자들, 대제사장, 짐승 희생보다 뛰어나신 분이시며, 천사들과는 상대가 안 되는, 더욱 더 뛰어나신 분이십니다(히1:5-14). 예수님은 멜기세덱처럼 뛰어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시는 그리스도시며(히5:5-6; 9-10),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은 히브리 종교 체제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구약: 유대주의와 유대교	신약: 그리스도와 기독교
-죄를 제거할 수 없었던 황소와 염소의 피(히10:4) -죄를 일시적으로 덮음 -이스라엘을 위해서만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러지심(히10:10) -죄들로 인한 영원한 한 희생물이 되심(히10:12)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치 않으심(히10:17)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죄를 짓는 불안정한 인간 제사장-아론의 제사장(히7:23, 27,28)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른 흠이 없고 완전하며 영원한 제사장(히7:15,16,24,25)
옛 상속언약(히8:9)	새 상속언약(히8:8,10,12; 10:16-17)
그림자(히10:1)	실체(히11:13,39-40)
손으로 만든 땅에서의 성막(히9:1-2)	주께서 친히 치신(pitched) 하늘의 성막(히8:2)

☛이처럼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의 뛰어남을 보여 주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분께 초점을 두게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뛰어남을 본받고, 믿음이라는 뛰어난 원리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히11-13).

믿음으로 사는 삶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히10:38)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롬1:16-17)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엡2:8-10)

제43과 히브리서(2)

지난 시간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 구약의 율법 체제와 신약의 은혜 체제를 비교하였습니다. 또한 구약의 율법 시스템이 잠정적 그림자와 예표라면, 신약은 놀라운 실체가 되시는 뛰어난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은 히브리서의 <핵심 단어> 및 <믿음-히11장> 그리고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의 핵심 단어⁶⁷⁾

1. 더 나은(better)-13회 사용

기독교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히브리서의 핵심 단어는 '더 나은'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훨씬 더 나은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1) 그리스도는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히1:4)
2) 아브라함(낮은 자)이 더 나은 자(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음(히7:7)
3) 주님께서 더 나은 소망을 가져오심(히7:19)
4) 주님께서는 더 나은 상속언약의 보증이 됨(히7:22)
5) 주님께서 더 나은 약속들 위에 세워지심(히8:6)
6) 주님께서는 훨씬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가 됨(히8:6)
7) 주님께서는 자신을 더 나은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심(히9:23,26)
8) 하늘에 더 낮고 영구한 실체가 있음(히10:34)
9) 믿음의 사람들이 더 좋은 본향 곧 하늘의 본향을 사모함(히11:16)
10) 믿음의 사람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구출받기를 원치 않음(히11:35)

2. 완전하다(perfect, perfection)-11회 사용

'완전하다'는 말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이후 완전하고 흠이 없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존전에서 우리를 내려다 보셨을 때 우리의 위치가 완벽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 받았지만 참으로 죄 많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완전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런 완전함은 레위의 제사장 체계나(7:11), 율법으로도(7:19) 불가능하며 짐승의 희생물로도 얻을 수 없습니다(10:1).

☛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죄들로 인한 희생물을 드릴 필요가 없으며, 성도들은 영원토록 완전하게 되었습니다(10:14). 비록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 불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위치는 완전합니다.

67) 사랑침례교회 <히브리서강해 제1과>에서 편집함.

3. 영원하다(eternal)-5차례 사용

1)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히5:9)
2)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심(히9:12)
3)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심(히9:15)
4)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 되심(히5:6; 6:20; 7:17, 21)
5) 어제와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히13:8)

4. 단 한 번(once)-9차례 사용

예수님께서서는 단 한 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신을 영원토록 단 한 번 희생예물로 드리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단번 속죄라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많은 교회들은 예수님의 단번 속죄를 가르치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고 고백하고 또 죄를 짓고 또 고백하면서,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는다고 가르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로마 카톨릭 바티칸 사본에는 단번 속죄의 중요한 교리를 가르쳐 주는 히브리서가 없습니다. 카톨릭의 미사는 사제가 빵과 포도주에 기적을 일으켜서 실제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바꾸고 이를 천주에게 희생 예물로 드리는 예식을 말합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에 대해 “거룩한 미사 의식에서 빵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바뀌며 우리는 이것을 화체설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성체 성사에서 빵과 포도주의 실체는 그대로 남아 있지 않고 빵의 전 실체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포도주의 전 실체는 그리스도의 피로 바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단지 빵과 포도주의 외형만 남게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명백한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매일 같이 반복해서 예수님을 희생물로 드려야 한다는 천주교 교리는 이단 교리로서(히9:25-28),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드러내 놓고 그분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히6:6).

☛ 이제 이런 단어(더 나은, 영원한, 완전한, 단 한 번)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단번 속죄를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약 시대보다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론 구원 받은 이후에도 죄악 된 육신 속에 갇혀 있는 우리의 상태로 인해 참으로 많이 낙심되고 실망할 때가 많지만, 장차 우리가 입게 될 영화로운 몸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의 위치와 상태가 영원토록 동일하게 될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경고와 격려의 말들

히브리서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데려가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대제사장으로 나오시는데(히3:1; 4:15; 6:20; 8:1; 9:11, 24) 이 분은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시기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셨고, 하늘로 옮겨져서 영원히 사시며, 성소와 참 성막을 섬기시는 분이십니다(히8:2).

☛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그리스도에게로 자신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도록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히브리서를 읽을 때 반복해서 나오는 다음과 같은 두 개의 메시지를 계속 발견할 것입니다.

- 1)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오도록 그들에게 준 격려의 말들
- 2)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그들에게 준 경고의 말들

히2:3 ⇒ **경고:** 하나님의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히2:10 ⇒ **격려:** 하나님은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신다.

히3:1 ⇒ **격려:**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히3:8 ⇒ **경고:** 너희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라.

히3:12 ⇒ **경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라.

히4:16 ⇒ **격려:**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가라.

히5:11 ⇒ **경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주의하라.

히6:1 ⇒ **격려:** 그리스도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 완전함으로 나아가라.

히10:19 ⇒ **격려:**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다.

히10:22 ⇒ **격려:**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히10:23 ⇒ **격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잡자.

히10:25 ⇒ **경고:**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라.

히10:38 ⇒ **경고:** 하나님으로부터 뒤로 물러나지 말라.

히11:6 ⇒ **격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

히12:2 ⇒ **격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큰 믿음 장-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은 성도들에게 많은 위로를 주는 성경의 대표적인 <큰 믿음 장>입니다. 이 절들은 특히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조상의 믿음을 생각나게 하는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아주 잘 알아서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등 히브리서 11장에서 언급된 다른 모든 사람들의 삶에 친숙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우리와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었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행했던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전당’이라고 불리며, 과거의 큰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을 기념하면서 현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용기와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의 위험

히브리서를 읽는 어떤 유대인들은 배도의 위험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뿌리는 깊지 않았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계속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책은 그들에게 돌아서지 말라고 경고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꼭 붙잡도록 격려하며 절대로 그분에게서 떠나 멀어지지 말라고 보내진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어느 누구도 굳건한 기초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믿음을 지속하도록 크게 격려하고 있습니다(히3:6; 3:14; 10:39).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여전히 유대교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유대인 교사들은 기독교로 회심한 형제들에게 손을 뺀어 그들을 다시 유대교로 복귀시키려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도는 극심한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을 향해 그리스도로 인해 고난당하는 것을 참으라고 권면하면서 배도의 물결에 휘말리지 말 것을 촉구하였고, 구약시대 영웅들의 믿음 열전을 보여 주며 구약과 신약의 동일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우리의 참 소망이 하늘에 있음을 상기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 당신은 믿는 자로서 교회에 출석하고 성경과 영적인 것들에 관심을 보이며 기도도 하였지만 나중에 변해 버린 것 같은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 우리는 어떤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 교회의 지체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성화의 삶

히브리서 3장 6절의 하반절은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분의 집이니라”(if we hold fast the confidence and the rejoicing of the hope firm unto the end.)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if”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지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구원을 다루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이 구원이 아니라 소망의 확신과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동족들에게 따돌림을 당했고, 살길이 막막해서 유대교와 타협하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화의 삶을 포기하려는 상태까지 나아갔습니다.

성도가 성화의 삶을 포기하고 세상과 타협하여 적당히 살게 되면, 성도는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잃게 됩니다. 이것은 구원을 잃는 다는 것이 아니며, 구원 받은 이후에 성도로서 누려야 할 기쁨과 확신에 찬 소망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큰 고난이 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에게 고통과 고난이 임할 때, 그 자리에 주저앉기보다는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참아내게 될 때, 소망이 더욱 강건해지고 기쁨이 충만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벧전4:12-13).⁶⁸⁾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

참으로 구원받은 자는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히브리서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배워온 경고의 구절들의 일부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믿는 자들의 영원한 안전 보장을 강력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⁶⁹⁾ 구원 받은 사람을 끝까지 지켜주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른 성도는 바른 성경에서 명백한 구절을 찾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더 이상 명백할 수 없을 만큼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히5:9 그리스도는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심	히10:14 그리스도는 자신의 성도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다(과거)
히7:25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음	히10:17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들을 절대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심(히8:12)
히7:25 그리스도는 항상 살아 계셔서 중보하심	히12:6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징계(정죄가 아니라)하심
히9:12 우리의 구속은 영원함(영원한 구속)	히13:15 그리스도는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도, 절대로 버리지도 않으심
히9:15 우리의 상속유업은 영원함(영원한 상속유업)	

68) 사랑침례교회 <히브리서강해 제7과>에서 편집함.

69) <구원의 안전보장>과 관련해 좀 더 자세한 것을 보시려면, 아래의 “사랑침례교회 시리즈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bck.org/bbs/board.html?board_table=sermon3&write_id=82&cate_name=%EA%B5%AC%EC%9B%90

제44과 야고보서.베드로전후서

모든 성경 기록은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도록 바른 진리를 제시하는 책임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며,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도록(약1:22), 진리의 나침반으로서 우리의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 최종 권위가 되는 책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과에서 다룰 세 권의 책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매일의 삶 가운데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 선한 열매를 드러내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지에 대한 더욱 실제적인 책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살아있는 믿음에서 샘솟는 행동

야고보서는 누가 썼습니까? (약1:1) 성경에는 ‘야고보’라는 이름이 여러 명 나옵니다. 이 편지를 쓴 야고보는 세배대의 아들인 요한의 형제 야고보(큰 야고보)가 아닙니다(마4:21; 10:2 참조).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이며, A.D. 44년에 첫 번째로 순교한 제자였습니다(행12:1-2 참조). 또한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야고보라 불리는 다른 제자도 아닙니다(마10:3 참조). 이 사람은 알페오의 아들(작은 야고보)로 사도 중 하나였지만, 이 편지를 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써 예루살렘에 거하였습니다(행15:13). 또한 복음서는 분명하게 야고보가 요세와 유다와 시몬과 함께 예수님의 형제라고 밝힙니다(마12:46; 13:56; 막3:31; 6:3; 눅8:19).

▶ 예수님의 초기 사역 동안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요7:5)

우리는 훗날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놀라게 됩니다(행12:17; 15:13; 21:17-18).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실 야고보서 1장1절에서 야고보는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묘사합니다.

▶ 무엇이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데서, 구원받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가도록 변화시켰습니까? (고전15:7 참조)

야고보는 예수님이 ‘형(兄)’ 이상의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었기에 야고보는 자신이 사랑했던 그리스도를 위해 죽기까지 신실하였습니다.⁷⁰⁾



야고보서의 수신자

야고보가 썼던 편지는 아마도 가장 먼저 기록된 신약이었습니다. 야고보서는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일어나신 때로부터 20년도 안 된 A.D. 45-49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야고보는 자신이 누구에게 이 편지를 썼는지 말해 주는데, 그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로마에 있는 교회나 고린도 교회와 같이 어떤 한 교회나 한 개인(디모데나 디도와 같이)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70) 유대 역사가 프라우비오 요세푸스는 야고보가 유대인 폭동(AD 62) 때에 순교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두산백과>

야고보가 이 편지를 썼을 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이었으며, 그는 팔레스타인 지역 밖에 거하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약1:2 ‘형제들’ 참조).

훗날 바울의 선교여행을 통해 점점 더 많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왔지만, 초대 교회 시절 대부분의 믿는 자들은 유대인뿐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 적어도 일 년에 한번은 예루살렘에 찾아 왔는데, 예를 들어 사도행전 2장 1절과 5절에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오순절이라는 큰 명절을 위해 하늘 아래 모든 민족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방문했다는 것을 배웁니다. 당시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에게 영적인 도움과 지도를 구했습니다. 따라서 야고보는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던 이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며, 초기 사도 시대 때 팔레스타인 지역 밖에 거하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약성경을 인용하면서,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영적 성장을 이루며,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연히 야고보서 1장부터 5장에 나타나는 진리들은 A.D. 1세기에 살았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 모든 성도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살아있고 행하는 믿음

야고보는 독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란 행위 없는 믿음이 아니라(약2:17, 20, 26), 살아있고 행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기 원했습니다. 살아있어서 역동적으로 행하는 믿음은 매일 매일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에서(1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는 데서(1:22);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는 데서(1:27); 이웃을 사랑하고 부자라고 특별하게 대하지 않는데서(2장); 혀를 통제하는 데서(3장);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마귀를 대적하는 데서(4장); 우리의 계획에 하나님을 포함하는 데서(4:13-17);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5장) 언제나 선하고 아름답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이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행할 때에 성령님의 열매를 통해 드러날 것입니다. 아무리 어떤 기계가 그 성능이 좋아도 그것은 적절히 사용되어야만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는 믿는 자에게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며 살아갈지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주는 실제적인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어떤 면에서는 신약의 잠언과도 같습니다.



야고보서 오해풀기

야고보서에서 많은 사람이 크게 오해하는 교리가 하나 있습니다. 2장 24절에서 야고보는 “그러나 너희가 보거니와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되고 단지 믿음만으로 되지 아니하느니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이 바울이 로마서 3장 28절에서 말한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고 말하는 것과 모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야고보와 바울은 같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사실 바울과 야고보는 서로 잘 알았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하나 되었습니다(갈1:19; 2:9; 행15:2,4,13; 행21:18-20 참조).

- ▶ 바울은 믿음과 행위가 함께 가야 한다는 야고보의 의견에 동의했습니까? (엡2:8-10, 딤후3:8)
- ▶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하면서 실제로 믿음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야고보의 의견에 바울은 동의하였습니까? (약2:14, 딤후1:16 참조)
- ▶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바울의 의견에 동의했습니까?(약2:23; 롬4:3 비교)

야고보서와 로마서⁷¹⁾

믿음은 구원의 뿌리이며, 선한 행위들은 구원의 열매입니다. 로마서는 뿌리에 집중하고 야고보서는 열매에 집중합니다. 성도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약 2:14). 성도는 믿음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진짜 사과나무라면 사과를 보여줘!”입니다. 사람들은 나의 믿음을 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진짜 구원받고 의롭게 되었는지를 보기 위해 내 마음을 들여다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내가 생활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행위로 나타내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의 메시지는 사람이 진정으로 믿음을 가졌다면, 그는 선한 행위를 드러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야고보서는 로마서처럼 상세히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는 책이 아니라 구원받은 신자의 삶에서 어떠한 행위가 나와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실제적 생활 지침서입니다.

로 마 서	<p>◎질문-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다고 선포될 수 있을까?</p> <p>●답- 사람은 율법의 행위(구원 받기 이전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p>
야 고 보 서	<p>◎질문-나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나의 믿음을 보여 주며(약2:18), 내가 믿는 자이며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것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 줄 수 있습니까?</p> <p>●답-나는 선한 행위(구원 받은 이후의 믿음의 행위)로 이것을 보여 줍니다.</p>

베드로전서-고난 후에 영광

베드로는 야고보와 같이 교회와 개인뿐 아니라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두루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외국에 단기간 거하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편지를 썼습니다(벧전1:1). 베드로전서는 약 A.D. 65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며,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믿는 자들에게 보내졌습니다(벧전2:10; 4:3-4 참조). 당시 성도들은 로마의 박해로 인해 곳곳으로 흩어져 불같은 시험을 당했고, 마귀는 삼킬 자를 찾으려고 울부짖으며 돌아다녔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이 서신을 통해 성도들을 격려하고 소망을 불어넣으려 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삶과 생각을 잘 반영하는 이 편지는 구속과 다시 태어남과 성화와 보존의 은혜를 가르쳐 주며, 성도들이 은혜와 믿음과 소망과 사랑 등을 드러냄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를 입증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베드로는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 거류민, 순례자’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벧전1:1; 1:17; 2:11, 빌3:19-20).

여러분! 장차 우리가 하늘의 본향에서 갖게 될 영원의 시간과 비교해 볼 때, 이 세상의 삶은 얼마나 적은 시간이겠습니까? 베드로는 믿는 자의 여행(우리는 이 세상의 시민들이 미워하는 구원자를 그리워하면서 적들의 영토인 외국 땅에 있음-요15:18-21)이 <고난>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며(빌3:19-20),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천국 본향을 향해 여행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71) 이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좀 더 자세한 것은 <사랑침례교회-야고보서강해>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현실의 시련과 고난을 대처하는 법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현재의 고난이 앞으로 다가오게 될 영원한 영광과 기쁨에 비교하면 짧은 것이라고 가르쳤으며(벧전1:11; 4:13; 5:10), 믿는 자들에게 현실의 시련과 고난을 대처하는 법을 자세하게 전했습니다(벧전1:6-7; 2:19-23; 4:12-16; 5:10).

원칙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선하고 좋은 것을 따르면, 우리를 해하거나 대적하는 사람은 없어야 합니다(벧전3:13). 그러나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는 의로 인해 고난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5:3, 6, 10-12). 하지만 이렇게 의로 인해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행복한 자임을 기억하며, 세상 사람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않아야 합니다(벧전3:14).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해야 합니다(벧전3:15).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딤후1:5; 19-20) 행할 때, 거짓으로 비난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습니다(벧전3:16). 성경은 우리가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벧전3:17).⁷²⁾

베드로후서-베드로의 유언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의 마지막 말들을 담고 있어서, 바울의 마지막 책 디모데후서와 많은 면에서 비슷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곧 죽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벧후1:14). 베드로는 바울이 순교 당했던 시기(로마의 네로 황제)와 비슷하게 로마 사람들에게 의해 십자가 처형을 받았다고 역사가 말하고 있습니다.⁷³⁾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진리와 더불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기도 합니다(벧후1:12; 3:1 참조).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는 성경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벧후1:19-21; 3:15-18 참조). 베드로는 자신과 다른 사도들이 곧 없어질 것을 알았습니다! 얼마 후면 더 이상은 사도가 없게 될 것입니다! 사도들 없이 교회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더 이상 사도들이 없다 해도 사도들의 교리나 가르침(행2:42 비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도들이 전해 준 신약 성경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더 이상 베드로는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가 기록한 두 개의 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 바울도 현재 이 땅에 있지 않지만 우리에게 그의 편지들이 있습니다(벧후3:15-16 참조).

핵심단어-‘아는 것’

그리스도인은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야 합니다(1장, 3장). 영생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요17:3). 우리는 매일 그분을 더 많이 아는 데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벧후3:18). 이것은 단순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내 전 인격 속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는 진리가 되는 것이며, 바로 그 실제의 진리대로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와 신앙 여정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 많이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임을 몸으로 체득했을 것입니다(벧후1:2; 3:18).

72) 사랑침례교회 <베드로전후서 강해 9과> 요약

73)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자신이 자신의 구원자와 같은 자세로 처형 받을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머리를 아래로 향하게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합니다.

제45과 요한일서

요한일서는 요한의 첫 번째 일반 서신으로 요한복음의 동반서입니다. 요한은 요한일서를 통해 은혜와 진리 가운데 교회를 세우기 위해 힘을 썼으며, 특히 거룩한 사랑을 강조하였습니다.



사도요한과 에베소

갈릴리 벧새다 출신 요한의 성격에는 온유함과 강력함이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성격은 그가 매력적이고 평온하며, 겸손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전하지만, 그의 사랑 많고 조용히 묵상할 줄 아는 성격 속에는 강인함과 결정력도 들어 있었습니다(눅9:54; 요19:35). 그는 예수님 십자가 처형 당시도 그 자리에 있을 만큼 확고하고 두려움이 없는 제자였으며(요19:35),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나이가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일서의 기록자는 사도 요한이며(A.D. 90년 경), 그는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도 기록했습니다. A.D. 65년경 요한은 에베소로 가서 소아시아에 복음을 선포했으며, 사도 바울이 죽은 이후 그곳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요한은 A.D. 95년경 밧모 섬으로 유배되었고 거기서 계시록을 기록한 뒤, 에베소로 돌아와 오랫동안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말년을 에베소에서 보내며 복음서와 서신서들을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방문하여 교회를 세우고 3차 선교 여행 때는 직접 2년 이상 두란노라는 사람의 학교에서 목회를 한 곳입니다(행18-20 참조).

특히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눈물로 경고하며 세운 교회로서 영적으로 활기가 넘친 교회였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첫 번째 감독으로 임명했으며, 감옥에서도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어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 없이 하나가 되는 교회의 신비를 자세히 보여 주었습니다.

이렇듯 에베소 교회는 바울, 디모데, 사도 요한과 같은 훌륭한 말씀의 선포자와 교사들을 가졌던 교회였으며, 더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계시록에서 언급하시며 크게 칭찬하시고 동시에 엄숙한 경고를 주셨던 교회였습니다(계2:1-5).⁷⁴⁾



왜 요한은 요한일서를 썼습니까?

1) 충만한 기쁨(요일1:3-4)

요한은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증언하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참된 교제를 통해 기쁨이 충만하도록 이 서신을 기록하였습니다.

74) 에베소 교회는 600년 정도 지속된 이후에 사라지게 되었고, 결국 그곳의 등잔대는 그 자리에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부유하던 이 도시는 우상숭배로 인해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뛰어난 항구 도시는 역병이 들끓는 늪지가 되고 말았습니다.-<에스라성경사전>

2) 기록하고 순결한 삶(요일2:1)

이 책을 쓴 다른 이유는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옵니다. 요한은 믿는 자들이 기록하고 순결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또한 믿는 자들이 죄를 범했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기 원했습니다(요일1:9; 2:1).

3) 알게 하고, 믿게 하려 함(요일5:13)

요한이 이 책을 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나옵니다. 이 절에 의하면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게 하려고 기록한 것입니다.

4)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도의 기쁨과 안전과 확신

요한은 그의 노년에 그리스도의 몸을 가족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을 ‘나의 어린 자녀들아’라고 불렀습니다(요일2:1). 또한 그는 요한일서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세상 속에서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면서, 유혹과 고난과 박해를 뛰어넘는 성도의 기쁨과 안전과 확신을 강조하였습니다(요일1:4, 2:24-29).

5) 바른 교리

요한일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지 않았다는 영지주의가 널리 파급되었으므로 그는 성도들이 이런 이단 사상에 빠지지 않도록 교리적 안내 지침을 주었고(4:1-2), 성도들 안에 죄가 없다는 것과 성도들이 세상과 육신과 마귀를 사랑하면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 등을 강하게 정죄하면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자들의 논리를 강하게 논박하였습니다(5:7).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

요한복음	요한일서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요 20:31)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요일5:13)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해(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추천하기 좋은 책)	믿는 자들을 위해(구원받는 사람, 특히 새 신자들에게 추천하기 좋은 책)
사람들이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20:31)	믿는 자 자신이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알도록 (요일 5:12-13)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도록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도록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 받아서,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도록(요10:9; 12:46)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참 된 교제를 통해 기쁨이 충만하도록 (요일1:3-4)
사람들이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며,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5:24)	구원받은 자로서 의를 행하며 특히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힘을 쏟도록(요일3:9-11)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자녀가 가지길 원하시는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요일5:13).

성경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다시 태어난 자는 누구나 주님을 영접한 그 날부터 구원을 확신할 수 있으며 그것은 신자의 특권입니다(눅 10:20; 고후 5:1, 6-8; 요일 5:13). 이 확신은 각자 만들어낸 환상(가령 스스로 가치가 있다거나 영원한 구원에 적절한 자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이것은 전적으로 기록된 말씀에 근거한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사랑과 감사와 순종의 발로(發露)가 되는 것입니다(히10:22).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확신하고, 확신하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압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요일5:12)

오늘날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교회를 다니는 사람(종교적인 사람)일지라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셨고,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며, 이것은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에 근거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종교적 신자들은 구원의 확신에 대해 ‘그러기를 희망’하거나 ‘그렇다고 생각’하며, ‘그렇다고 아는’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할 기회를 가지게 된다면, 아래의 질문들을 통해 구원의 도리를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도 한 혼을 살리는 좋은 방법 중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 ▶당신이 만일 오늘 죽게 된다면 당신의 영과 혼은 어디에 있게 됩니까?
- ▶당신은 구원받았으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참으로 확신합니까?”
- ▶당신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 ▶당신은 왜 여기 있습니까?
- ▶당신은 어디로 갑니까?

당신은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우리는 사람이 살아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어떤 사람이 걸어가고 말하고 먹고 웃는 것을 본다면 당신은 이 사람이 확실히 육체적으로 살아 있다고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이러한 것들을 하지 못합니다!

이렇듯 육체적 영역에서는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 사이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차이는 영적인 영역에서도 비슷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를 은혜로 구원 하셨습니다(엡2:5).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진짜로 구원받았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어떤 표시들이 우리 삶에서 있어야 합니다. 육체적 생명의 표시들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생명에도 표시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정으로 내 안에 계시고(고후13:5) 그분이 진정으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면(빌2:13), 분명히 그분의 생명은 내 삶에서 여러 모습들로 보여 지게 될 것입니다.



죽은 자들 vs 살아 있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 있는 자들과 죄들 가운데 죽은 자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요한일서는 아주 분명하게 이 차이를 보여줍니다.

죽은 사람들	성경구절	살아 있는 사람들
여전히 사망에 거하는 자들	3:14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4:7-8	하나님을 아는 자들
마귀의 자녀들	3:10	하나님의 자녀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2:9-11	빛 가운데 있는 자들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	2:15-17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들	5:12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2:22-23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들
세상에 속한 자들(이 세상의 시스템)	4:5-6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해 주신 증언을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든 자들	5:9-10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 곧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에 관해 증언하신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



생각해 보기

참으로 믿는 자도 여러 면에서 실족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잃을 수 있고(시 51:12), 주님과 교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바로 세우시기 위해 징계하십니다(히12:6). 또한 성령님께서도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성도들의 위로자이시며, 죄들로 인해 고통 받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시며, 그들을 중보하고 인도하시며 성화의 삶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롬8:26).

성도가 죄를 범했을 때, 죄들을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하며 용서를 간구하는 것은 죄를 지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요일1:9). 하지만 성도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없고(히12:7-8 참조), 참된 뉘우침(믿는 자는 자신의 죄로 비참해야 합니다)과 죄의 고백이 없다면(성도가 계속 죄를 짓고 신경도 안 쓰는 것) 뭔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 이런 경우라면 그 사람은 아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느니라.”(요일1:6-10)

제46과 요한이서.요한삼서.유다서

지난 시간에 다룬 요한일서 다음으로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될 성경에 나오는 세 권의 책(요한이서, 요한삼서, 유다서)은 비록 적은 내용이지만(적은 단어수), 과거나 현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이서 & 요한삼서 살펴보기

요 한 이 서	<p>요한의 두 번째 서신: 요한이서 The Second Epistle of JOHN</p> <p>-기록자: 요한, 기록 시기: 주후 90년경, 성격: 가족 서신</p> <p>-수신자: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부인과 하나님의 모든 성도</p> <p>-주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p> <p>-목적: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것</p> <p>-내용: 요한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의 영향에 대해 경고를 주고 그리스도인들이 진리 안에서 서로를 사랑할 것을 권고한다.</p> <p>-핵심 절: “또 사랑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명령대로 걷는 것이요, 명령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 안에서 걷는 것이라.”(6)</p> <p>-핵심 단어: 사랑하라, 핵심 구: “교리에 거하라.”</p> <p>-요한이서의 그리스도: 진리</p> <p>-영적 교훈: “진리를 보존하라.”</p>
요 한 삼 서	<p>요한의 세 번째 서신: 요한삼서 The Third Epistle of JOHN</p> <p>-기록자: 요한, 기록 시기: 주후 90년경, 성격: 개인적인 서신</p> <p>-수신자: 가이오와 하나님의 모든 성도</p> <p>-주제: 겸손</p> <p>-목적: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증언하는 자들임을 보여 주고 사역에서 자기를 높이는 일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것</p> <p>-내용: 요한은 가이오에게 이 서신을 보내어 교회의 분열을 가져온 사람을 지목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를 조심할 것을 권고한다.</p> <p>-핵심 절: “내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p> <p>-핵심 단어: 진리, 핵심 구: “선한 것을 따르라.”</p> <p>-요한삼서의 그리스도: 합당한 이름을 지니신 주님(7)</p> <p>-영적 교훈: “그리스도는 진리이시다.”</p>



요한이서와 요한삼서--누구를 받아들이고 누구를 받아들이지 말 것인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이서와 요한삼서라는 두 개의 작은 편지는 형제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서 10절에서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교리를 가져오지 아니하거든, 그를 집에 받아들이지도 말고 그에게 축복 인사도 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요한삼서 8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위한 동료 조력자가 되기 위해 그런 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교리를 가져오지 아니하는 자에게 축복 인사를 하는 자는 ‘그의 악한 행위들에 참여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무엇을 행하든지 신실하게 행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형제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마땅한 일이며, <진리를 위한 동료 조력자>가 되는 일입니다(요삼5-8).

요한이 이 편지를 쓴 시대에는 바울이 세 차례 선교여행을 다녔던 것처럼 여러 지역을 다니는 설교자들과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다니면서 머물 장소와 먹을 음식이 필요했는데, 그 당시 공공 숙박시설과 숙소들은 형편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순례자들은 실제로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믿는 자들의 호의와 친절에 의존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이서와 요한삼서가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말할 때는 이 사람들에게 잠자리와 머물 집과 먹을 것을 제공하는 의미의 후원과 지원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 이런 식으로 바울을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행18:2-3, 7 참조).



바른 교사

요한이서에서 순회 설교자(선포자)들은 해로운 교리로 사람들을 속이면서, 구원받지 못한 거짓 교사들로 묘사됩니다(요이7-11). 이들은 그리스도의 대적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돕거나 지원하는 것은 현명한 처사가 못됩니다. 하지만 요한삼서에서 묘사되는 형제들은 다릅니다. 이들은 동기가 바르고 사역이 바르며 메시지가 바르기 때문에 형제들로부터 지원을 받을 가치가 있는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1) 올바른 동기: “그들은 그분의 이름을 위해 나아가면서”(요삼7)라는 말씀처럼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돈을 목적으로 선포하지 않았습니다(그들은 구원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아무 것도 받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음-7절).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했습니다!

2) 바른 사역: 요한삼서 7절의 “그들은 그분의 이름을 위해 나아가면서”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그분을 대표했으며, 그들은 그분의 증인들이었습니다(행1:18).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였습니다(고후5:20).

3) 바른 메시지: 요한삼서 8절은 우리가 그러한 사람을 도왔을 때 우리는 진리를 위한 동료조력자들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이 분명히 진리를 가르쳤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바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였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바른 사역과 바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그런 종류의 사역자들입니다(요삼8). 그러나 요한삼서에는 이러한 사람들을 받아들일 거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디오드레베’였습니다(요삼9).

디오드레베는 선한 형제들을 받아들일 거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을 지원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지원했던 자들을 교회에서 내쫓기까지 했습니다(요삼10).

디오드레베(Dioterphes)⁷⁵⁾는 오늘날 많은 사람이 그렇듯이 교만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으뜸이 되거나(요삼9), 첫째가 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는 일등이 되길 원했습니다! 그는 권력과 지위를 원했으며, 주님은 말할 것도 없고 어느 누구에게도 둘째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 골로새서 1장18절에 의하면 으뜸 또는 첫째가 되어야 하실 유일한 분은 누구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서 디오드레베가 아니라 가이오(요삼1)⁷⁶⁾와 데메드리오(요삼12)⁷⁷⁾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도 요한은 요한삼서를 통해 진리 안에서 극진히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하며, 무엇보다도 “네 혼이 형통하는 것같이 네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바라노라”고 간절히 소망했습니다(요삼1-2). 요한삼서를 보면 요한은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통해 사랑하는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걷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로 인해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요한과 가이오를 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주는 바른 교제가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며, 이러한 아름다운 교제는 우리들 각자가 진리 안에서 바로 설 때에 더욱 견고해 지리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 받은 성도들로서 형제자매들의 형편을 돌아보아 무엇보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의 혼이 형통하는 것같이, 그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서로 기도하는 아름다운 섬김과 교제도 지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유다서

유다서의 이름은 이 책을 기록한 유다에게서 유래되었습니다(유1). 유다는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였으며, 그는 야고보의 형제이며 예수님의 동생이었을 것입니다(막6:3). 처음에 유다는 열심을 내어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공통의 구원에 관해 쓰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필요를 느끼게 하셨습니다. 이에 유다는 믿는 자들에게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라는 권면과 함께 경건치 않은 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남용하는 것을 강하게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유다는 짧은 서신에서 삼위일체, 구약성경의 확실성, 천사들의 존재, 사탄의 존재와 권능, 심판과 보복,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스도의 신성 등과 같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하였습니다.

75) 초대 교회의 영향력 있는 회원이나 사역자. 그는 시기심에서 나온 야망과 선한 그리스도인들을 격렬히 거부한 것으로 인해 사도 요한에게 혹평을 받았다.-<에스라성경사전>

76) 성경에는 여러 명의 가이오가 나오는데, 요한삼서의 수신인으로서 가이오는 ‘사랑하는 가이오’로 되어 있다. 요한삼서의 가이오가 손님을 잘 접대한 것으로 볼 때, 그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회심시켰고,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그를 후하게 대접한 가이오일 수도 있다(롬16:23; 고전1:14). 이 이름은 로마 사람들에게 흔한 이름이었다.-<에스라성경사전>

77) 데메드리오(Demetrius)는 좋은 명성을 가지고 있던 그리스도인 제자 혹은 사역자였다(요삼12).

힘써 싸우라

3절의 '싸우라(contend)'는 단어는 믿는 자들이 믿음을 위해 싸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실제로 전쟁 중이며(엡6:12), 선한 그리스도의 군사들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활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유20-21).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은 군대에서 대장과 부하의 관계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마땅히 이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야 합니다(딤후2:3-4).

거짓 교사들에게 임할 심판

어떤 선생님께서 한 학생에게 “거짓 가르침이 무엇이지?” 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어린 소년은 “의사가 아픈 사람에게 잘못된 약을 주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좋은 비유입니다. 잘못된 약이 육체적 질병을 가진 사람에게 치명적 작용을 할 수 있듯이, 거짓된 가르침은 사람의 혼에 큰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것보다 가장 필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요17:17). 하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는 바른 진리와 바른 교리가 아닌, 거짓된 진리와 그릇된 교리를 가르치며 믿음에서 파선하고, 진리에서 떠나는 배교의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잘못된 교리는 치명적인 독약과도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믿음에 행위를 더하는 구원 교리, 구원 취소나 구원 반복 교리 등은 명백한 이단 교리입니다.

- ▶ 믿는 자들은 오늘날 어떻게 믿음을 위해 싸워야 합니까?
- ▶ 오늘날에도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까?
- ▶ 유다서에서 거짓 교사들에게 임할 끔찍한 심판을 묘사한 절은 어디입니까?
- ▶ 유다서에서 믿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강권하라고 격려한 절은 어느 절입니까?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위해 살고, 진리를 위해 죽기까지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들을 때, 그에게 더 큰 기쁨이 없었습니다(요삼4).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진리 안에서 걸어가는 것을 보실 때, 얼마나 더 크게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배도와 분리

현시대 현대 교회들은 많이 배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배도라는 말은 구원에 대한 교리와 대부분의 교리들이 올바른데 시간이 지나면서 구원 이외의 다른 교리들이 심각하게 타락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천주교나 불교가 배도했다는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또 신천지나 안상홍 파가 배도했다는 말도 의미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데에는 배도라는 말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건전한 것으로 알았던 교회나 교단이나 학교가 타락하는 것을 배도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는 한 마디로 배도와 분리의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리(separation)를 통해 진리를 순수하게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나 사람은 변합니다. 배도와 분리는 진리를 배격하는 것이며, 이러한 때에 바른 성도들은 가차 없이 분리해서 진리를 순수하게 지켜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⁷⁸⁾

78) http://www.keepbible.com/bbs/board.html?board_table=03_05&write_id=5669

제47과 요한계시록(1)

우리는 이미 신약성경 26권을 살펴보았고 이제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이사야, 에스겔, 스가랴 등의 많은 책들이 예언적 부분을 다루었다면, 신약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라는 위대한 예언(79)의 걸작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자신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것이 많지만,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며(요16:12),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요16:13).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계시록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미래의 일들)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계시록은 종말을 다루는 책으로 사탄, 교회, 유대인, 이방인, 민족들, 바빌론 체제, 땅과 우주 등의 마지막을 보여줍니다. 가끔씩 여러분은 사람들이 “이 세상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또는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이런 질문들에 답을 주는 책입니다. 현 시대 곧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마귀의 패망이 가깝기 때문에 계시록의 말씀들을 읽고(read), 듣고(hear)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keep) 자들에게 복이 된다는 말씀에 따라 계시록을 많이 읽고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계1:3).

성도들이 계시록을 올바르게 많이 읽고 공부하게 되면, 마귀가 주관하는 현 시대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되고, 어떻게 마귀와 그의 천주교 종교시스템이 세상의 정치, 종교, 문화 등을 장악해 나가는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구원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본분과 위치를 깨달아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를 많이 고민해 보는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 ▶ 우리는 구원 받은 성도로서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 ▶ 우리는 현 시대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벰전5:7-9)

79) 원래 이 말은 대언(prophecy)을 뜻하며 대언 중에서 특히 앞날을 예측하는 것을 예언(prophecy)이라 할 수 있다. 예언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미래를 미리 말하는 것으로 미래에 대해 막연히 좋을 것을 기대하거나 혹은 헛된 신탁을 받는 일과는 완전히 다르다. 또한 현대 교회에서 횡행하는 개인의 길흉에 관한 예언은 성경의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 참된 예언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며 또한 대언자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그 메시지가 하나님에게서 나왔음을 보여 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에스라성경사전>



요한과 요한계시록

요한은 소아시아 에베소 교회의 감독(목사)이었으며,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한때 요한은 로마 황제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인해 극심한 핍박을 받아 에베소에서 멀지 않은 예게 해(海)에 위치한 '밧모(Patmos)⁸⁰⁾'섬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한 자로서 밧모섬에 유배되었던 이유는 그가 사악한 범법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탁월한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했기 때문입니다(계1:9).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도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들의 믿음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벧후4:19; 5:10).

▶ 여러분은 성경 또는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현재 어떤 고난을 받으십니까?

계시록은 1세기 말(A.D. 96년경), 믿는 자들을 극심하게 박해하던 로마 도미티안 황제의 통치 기간에 기록되었습니다. 따라서 계시록은 기록된 성경 말씀 중 가장 마지막 책입니다.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22장 21절을 받아 적었을 때,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의 책 맨 끝에 마지막 마침표를 찍으신 것과 같았습니다. 문장에서 마침표는 문장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마지막 마침표는 더 이상 문장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요한이 마지막으로 '아멘'(계22:21)을 받아 적었을 때 성경은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들이 성경 기록으로서 모두 완성된 것입니다.⁸¹⁾

☛ 오늘날 우리는 아브라함, 모세, 다니엘, 침례자 요한, 베드로, 바울 등이 결코 가지지 못했던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존해 주신 완전한 성경(66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현 시대에 말씀을 번개하고 삭제하는 자들과 같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계22:18-19). 다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숨을 불어 넣어 완벽하게 보존해 주신 말씀들을 지키고, 읽고, 믿고,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⁸²⁾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

성경 66권 중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고, 미워하며 가장 오해가 많은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심지어는 많은 기독교인들도 너무 무서워하고, 내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가장 멀리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너무나 많은 이단과 사이비도 가장 애용하는 책이 계시록이고, 자신들의 교리를 세우는데 가장 많이 자유롭게 영해하는 부분도 계시록입니다.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한 때로부터 계시록은 신학적 싸움의 근원이 되었고, 특히 로마 카톨릭

80) 사도 요한이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 유배되어 간 곳(계1:9). 이곳은 바위로 된 섬으로 둘레가 45킬로미터이며 로마 사람들에 의해 죄수들을 추방시키는 장소로 사용되었다. 이곳은 밀레도의 곳(串)에서 64킬로미터 떨어졌으며 현재는 소수의 그리스 사람들이 살고 있다.-<에스라성경사전>

81) 참조-구약성경은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그 사본들을 간수했으며 정경 작업은 서기관 에스라 시대와 말라기 기록된 시대에 끝났고, 신약성경의 각 책은 사도들의 손으로 기록되어 주후 397년에 열린 카르타고 공회에서 일반적 동의에 이르게 되어 정경으로 정착되었다.-<에스라성경사전>

82)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들(단어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섭리로 보존되어 오류가 전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English King James Bible)이 지금 이 시간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들' 그대로 담고 있는 '완전한 성경'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에서 읽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암송하고 설교할 때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충실하게 번역된 '우리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만을 사용한다.-<사랑침례교회 우리의 믿음 중>

교회는 교황이 다스리는 현 시대가 천년왕국이며, 성경이 말하는 실제적인 천년왕국은 없다는 무천년설을 가르칩니다. 무천년설은 계시록 20장의 '천 년'을 문자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지 않고 '완전한 기간' 즉 그리스도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 사이의 전체 기간(신약 시대)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결국 이러한 견해는 성경 기록을 문자적으로 보기 보다는, 성경을 상징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⁸³⁾

보통 이단과 사이비들은 자신들의 교리를 세우기 위해 성경의 많은 부분을 문맥과 상관없이 영해하며, 비유적으로 해석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보는 사람에 따라 각양각색의 다양한 해석들이 나타나는 방식이므로, 좋은 해석 방법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일례로 문맥에 맞게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언약신학⁸⁴⁾(이스라엘 대체 신학)이 주장하는 것처럼 교회가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체한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시록 연구의 가치

1. 읽기만 해도 특별한 복이 되는 책이다(계1:3, 22:7).
2.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다.
3. 성경의 예언 특히 재림의 상세 사항에 대해 가장 명료하게 알 수 있다(계19-22).
4. 성경의 전체 요약과 결론을 알 수 있다(구약성경 39권 중 26권의 내용이 인용됨).
5. 하나님의 뜻이 역사를 통해 결국 절정을 이루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게 된다.
6. 성경의 처음과 나중을 앞으로 진리가 짝을 이루는 것을 알게 된다(진리의 원을 완성).

	창세기	계시록
1. 낙원	잃어버림(창3)	회복함(계21-22)
2. 생명나무	접근 금지(3:22-24)	먹음(2:7, 22:2, 22:14)
3. 인간의 반역	시작(3-4장)	종결
4. 살인 등의 죄악	시작	종결(21:27)
5. 죽음	시작(4:8)	종결(21:4)
6. 저주	시작(3:15-18)	종결(22:3)
7. 마귀	인간의 유혹자(3:1-15)	최후를 맞음(20:10)
8. 하나님의 말씀	변개(3:1-5)	변개에 대한 저주(22:18-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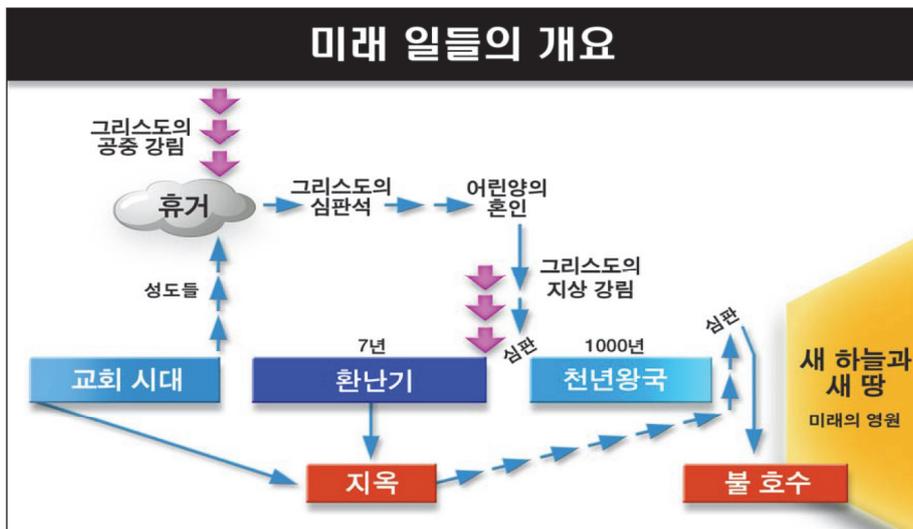
83) 해석은 진리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성경 구절의 정확한 뜻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성경의 각 구절이 오직 하나의 뜻만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이루어진다. 성경의 목적은 너무나 분명하므로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으며 어떤 신비주의적이며 비유적인 해석을 따를 필요가 없다. 성경 신자들은 문법적이며 역사적인 해석을 취한다. 문법적 해석이란 문맥에 맞추어 문자 그대로의 정상적인 의미를 취하는 것을 뜻한다. 역사적 해석이란 역사적인 시대, 수신자, 목적, 배경 등을 이해하고 문맥에 맞게 해석하는 것을 뜻한다.-<사랑침례교회 조직신학 강해 中>

84) 언약신학이란 개혁주의나 칼빈주의의 전통에 따른 신학의 한 형태로서, 성경의 모든 사상을 언약 또는 계약(covenant)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형성한 신학체계를 말한다.-<교회용어사전-생명의말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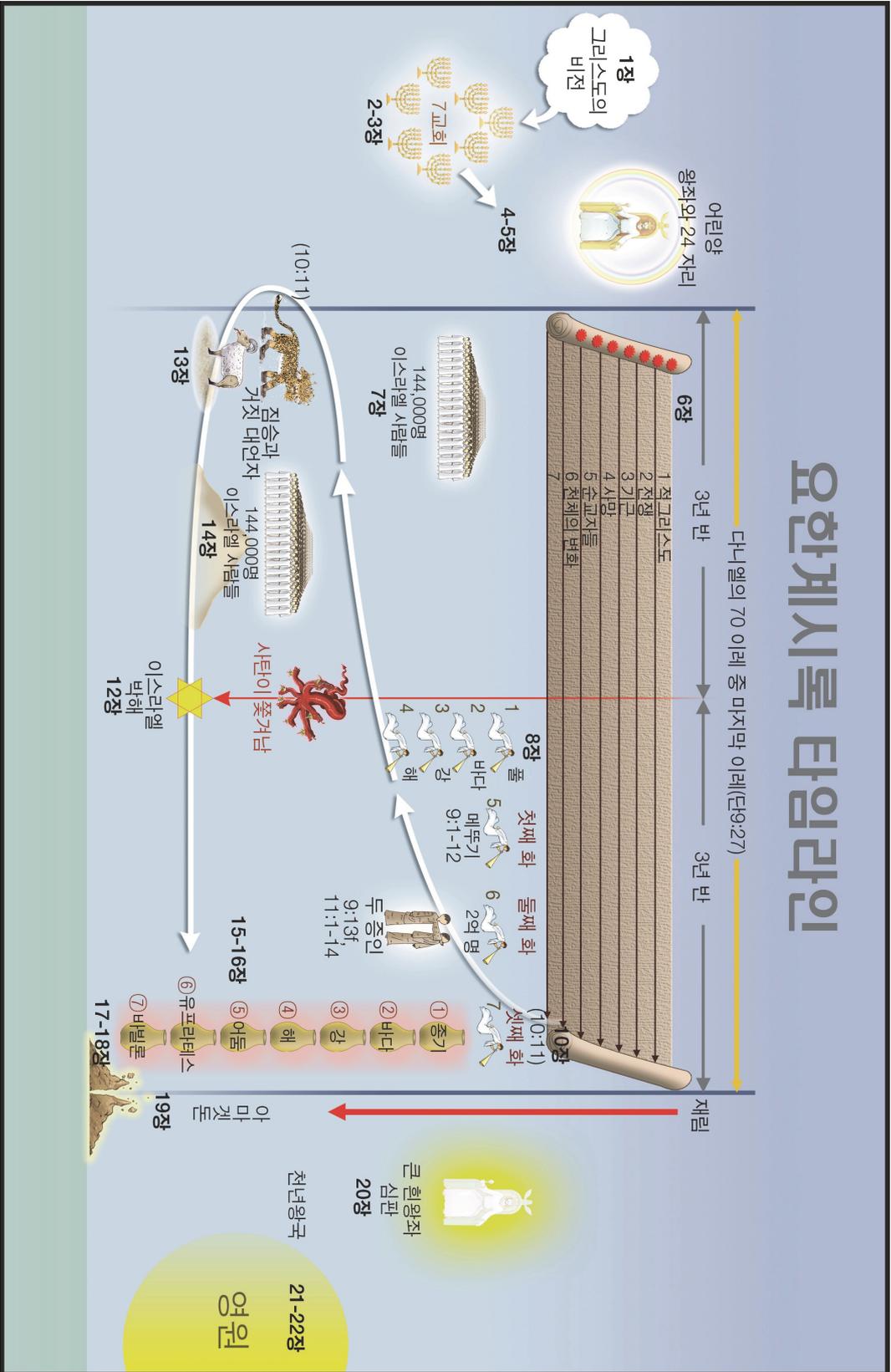
하나님의 계시

KJV에서 이 책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 성도 요한의 계시록(THE REVELATION OF ST JOHN THE DIVINE)’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도 요한은 단지 이 계시를 기록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요한계시록은 1장 1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이며, 따라서 예수님은 계시록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계시의 주체가 되십니다.⁸⁵⁾ ‘계시’라는 단어는 무엇을 벗기거나 걷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얼굴에 베일을 두르고 있다면 베일을 벗겨야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위대한 예술 작품(유명한 조각 작품이나 그림)이 전시될 때 작품을 흰 형겁으로 씌어 두었다가 걷어내는 제막식과도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 자신을 알리시고자 하는 위대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에서 미래를 여시고 앞으로 우리들에게 다가 올 것들을 보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기록을 통해 사람들에게 자신의 목적과 프로그램을 계시하시며, 그분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게 될 엄중한 심판을 계시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실 새 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기쁨을 계시하시며, 무엇보다도 그 이름이 ‘왕들의 왕’이요, ‘주들의 주’이신(계19:16), 자신의 복된 아들을 계시하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미래 일들의 개요



85) 사실 영어에서 'of'만큼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도 없을 것입니다. 주격, 소유격, 목적격 등 여러 가지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혹은 대한) 계시'로 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책의 제목이 '요한의 계시록'이기 때문에 계시록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기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며 이 경우 예수님은 계시의 대상이 됩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하면 예수님이 계시의 주체가 되며 이 경우 예수님이 계시록 전체를 주시는 분이 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어떤 번역을 취하느냐에 따라 많은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계시록이 '예수님의 계시'라고 믿습니다. 그 근거는 계시록 2, 3장에서 일곱 교회에게 계시를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며 4장 이후부터 일어나는 7년 환난 기간의 모든 계시를 주는 분도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께서 모든 계시의 주체가 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 계시를 적은 사람은 요한이므로 요한의 계시록이라 해도 이 또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www.keepbible.com 성경Q/A 요약>



제48과 요한계시록(2)

이제 우리는 주제별 성경 공부 <성경편-2> 마지막과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공부한 <성경편-1.2> 교제도 시작과 끝이 있듯이, 세상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고, 마침이 있습니다 (전3:1). 달리기 경주는 선수가 결승선을 지나야 끝이 납니다. 만약 성경에 계시록이 없다면 성경은 결론이 없는 이야기처럼 불충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계시록은 대결론이며 성경 기록을 마치는 책입니다.



창세기와 계시록

창세기에서 시작된 것은 계시록에서 종결됩니다. 창세기가 “어떻게 모든 것이 시작 되었는가?”에 대한 것이라면 계시록은 “어떻게 모든 것이 끝날 것인가?”를 말씀해 줍니다.

창세기-첫째 책	계시록-마지막 책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인간의 기원)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인간의 운명)
잃어버린 낙원(창3)	되찾은 낙원(계21-22)
원래의 하늘과 땅(우주) (창1:1)	새 하늘과 새 땅(우주) (계21:1)
저주가 선포됨(창3:15-18)	더 이상 저주가 없음(계22:3)
사망이 들어옴(창2:17; 3:19; 4:8)	더 이상 사망이 없음(계21:4)
고통(창3:17)	더 이상 눈물, 슬픔, 울부짖음, 아픔이 없음(계21:4)



사탄과 그의 운명

사탄은 사람의 혼의 가장 큰 대적자이며, 단순한 악의 원리가 아닌 한 인격체입니다(벧전5:8). 또한 사탄은 마귀, 타락한 천사들의 통치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고소하는 자입니다(욥 1:7, 12; 스후3:1-2; 계12:10). 그는 사람들을 유인하여 죄를 짓게 하고(대상21:1; 눅22:31),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육신적 도덕적 죄의 창시자이며 각종 재난 특히 죽음까지도 가져오는 악한 성향을 만드는 장본인입니다(눅13:16; 히2:14).

지금 이 순간도 사탄은 사람들을 부추겨 죄를 짓게 하고 기독교를 가로막는 모든 방해 요소의 근원이며, 이런 방해 요소들을 사용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마음과 삶을 개혁하려는 것을 크게 저지하고 있습니다(마4:10; 요13:27; 롬16:20; 엡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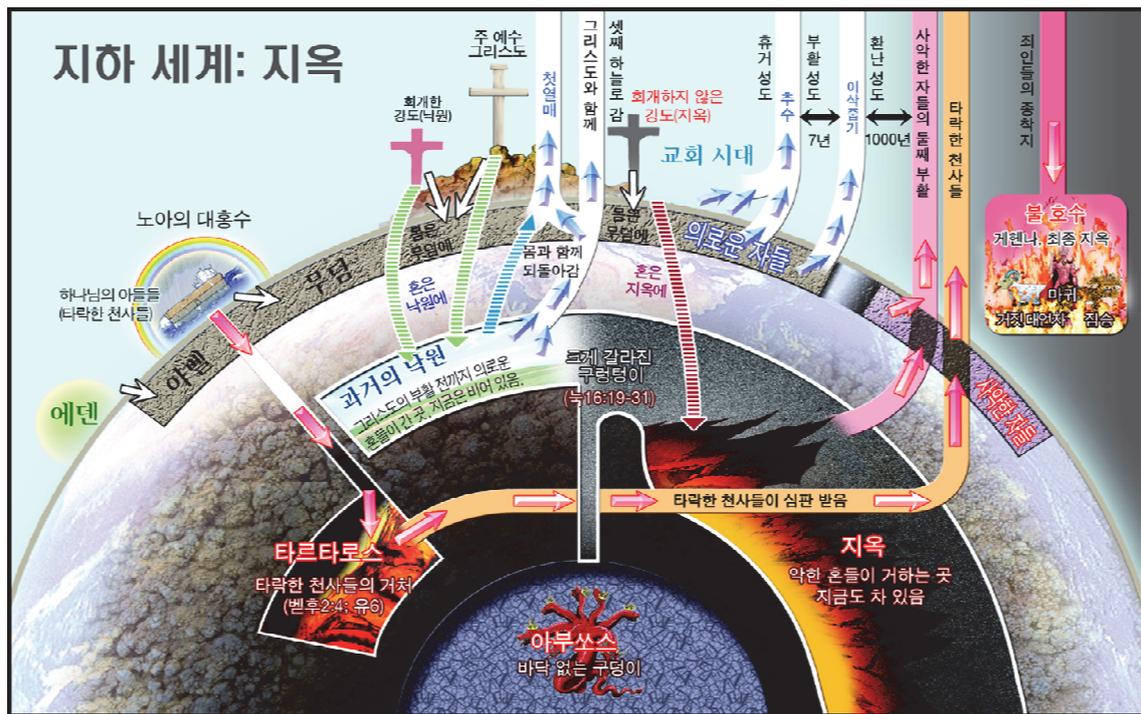
많은 사람들은 현재 사탄이 자신의 천사들과 더불어 지옥에 감금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 사탄과 그의 천사들은 자유로운 상태에 있으며, 욥1:7; 2:2, 벧전 5:8, 고후4:4 등은 이를 잘 보여 줍니다. 지금 이 시간 사탄은 여전히 자신의 처소를 하늘에 속한 곳에 두고 있으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하늘에 속한 곳에서 쫓겨나 곧 땅에 거할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계12:9-12). 그리고 그 이후에 사탄은

자신의 때가 단지 3년 반밖에 남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분노하게 되며, 그의 분노로 인해 지구에는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때에 그는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계13:2-8). 결국 7년 환난 기간 종말에 이르러서 그의 짐승과 거짓 대언자는 산채로 불 호수에 던져질 것이며, 하늘로부터 내려온 한 천사는 사탄을 사로잡아 이미 만들어진 거대한 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끝없이 깊은 구덩이 속에 던져 버릴 것입니다(계20:1-3). 그 후 천 년이 다 찰 즈음에 사탄은 잠시 동안 풀려날 것이지만 그는 곧 그의 천사들과 함께 그를 위해 오래 전에 예비 된 불 호수(Lake of fire)⁸⁶에 영원토록 던져질 것입니다(계20:7-10; 마25:41). 이로써 마침내 하나님의 의가 거하는 ‘시대들의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사탄의 운명

1. 땅으로 내쫓김 (계12:9-12)	2. 바닥없는 구덩이로 떨어짐 (계20:1-3)	3. 불 호수로 떨어짐 (계20:10)
환난기 중반에 일어날 것임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때 일어남	천년왕국 이후 일어남

지하세계 선도



86) 불과 유황이 타는 최종 지옥(계19:20; 21:8)으로, 사망과 지옥도 불 호수에 던져지고 누구든지 생명 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 호수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불에 잠겨 불 침례를 받는다(계20:14-15; 참조 마3:11-12). 지옥에는 희망이 없으며 지옥에 있는 자들은 산 채로 불 호수에 던져져서 영원히 산 채로 남아 있어야만 하는데 이것이 바로 지옥의 본질이다(계19:20). 예수 믿지 않은 악인들이 궁극적으로 영원토록 살 불 호수 즉 불로 가득한 호수의 위치는 성경에 정확히 언급되어 있지 않다(계 19:20; 20:14).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계20:10).-<에스라성경사전 중>



요한계시록과 7년 환난기

하나님께서서는 믿는 성도들에게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게 하시려고 미래에 대한 정보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계시록에 대한 바른 이해는 성도들에게 험난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용기와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계시록은 원래 소아시아에 살았던 믿는 자들에게 보내진 것이었습니다(요한이 계시록을 보냈던 7교회를 주목-계1:4). 당시 이들은 아주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로마의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절하고 경배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것을 거부한 그리스도인들은 극심하게 박해를 받아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은 로마의 박해보다 더 큰 박해의 때인 7년 환난기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은 6장부터 19장에 걸쳐서 다니엘서의 마지막 한 이레 즉 마지막 7년에 이루어질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1260일(42달)이라고 기록된 기간은 성경의 예언의 햇수로 정확히 3년 반이며 두 증인⁸⁷⁾이 사역하는 기간입니다(계11:3-4). 그래서 환난기는 전반부 3년 반과 후반부 대환난기 3년 반을 합쳐서 정확히 7년이 되는 것이며, 보통 이 기간 전체를 '7년 환난기'라 부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엄청난 공포의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 즉 예수님의 피 값으로 대속된 자들은 영적으로 어린 자든 장성한 자든 모두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 하늘에서 어린양의 혼인 만찬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살전4:13-17). 물론 이런 환난기에도 엄청난 수의 성도가 구원을 받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 교회가 아닙니다(계7:9-17). 아마도 그들은 두 증인과 144,000명의 유대인 증인들의 전도와 그리고 성경이나 기독교 서적을 읽음으로써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계14:6-7).

이처럼 요한계시록은 7년 환난기 동안 발생할 구체적인 사건들에 대해 자세히 언급되어 있으며, 신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기간에 대한 모든 예언들을 취합하여 그 의미를 완전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재앙

현 세상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또한 성경과 그 진리를 거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세상은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어려운 시대가 될 미래의 고난의 날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마24:21).

“그때에 큰 환난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난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이것이 지구상에서 그토록 힘든 시간이 되는 이유 중 하나는 교회의 휴거 이후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재앙과 심판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우리는 이집트 땅에 내렸던 10가지 재앙과 심판에 대해 배웁니다. 특히 두 번째 재앙은 출애굽기 8장에서 묘사된 것처럼 개구리 재앙이며, 이것은 성경이 묘사하는 것과 똑같

87) 구약 시대는 한마디로 율법과 대언자의 시대이며, 특히 구약 시대 때 율법과 대언자를 대표하는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천년 왕국의 때에는 이 두 가지가 다시 복원이 되기 때문에 율법과 대언자를 대표하는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가 다시 이 땅으로 내려와서 두 증인의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이 많은 근본주의 성경학자들이 보는 견해입니다.-<사랑침례교회 성경 맥 잡기 03 중>

이 일어났습니다. 왜 우리는 이 사건을 믿습니까? 그것은 성경의 본문이 이 사실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본문은 이 재앙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말하며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 재앙은 출애굽기에 묘사된 대로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 잠시 이집트의 재앙들과 계시록에 나오는 재앙들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의 재앙들	환란기의 재앙들
10개의 재앙들	21개의 재앙들 (7개 봉인, 7개 나팔, 7개의 병 또는 대접)
출애굽기에 나옴	계시록에 나옴
해당지역: 이집트 땅	해당 지역: 전 세계
묘사된 대로 일어났음(역사)	묘사된 대로 일어날 것임(예언)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했던 강압한 통치자에 대한 심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존중히 여기기를 거부했던 온 세상에 대한 심판



참혹한 실상

대표적으로 다음 재앙들을 살펴보면 계시록에 묘사된 재앙들의 참혹한 실상을 보게 됩니다.⁸⁸⁾

1. 여섯 번째 나팔 재앙(계9:15; 9:18)	▶ 세상 인구 중 삼분의 일이 죽게 됨.
2. 두 번째 나팔 재앙(계8-9)	▶ 바다의 삼분의 일이 피가 되고, 바다 창조물의 삼분의 일이 죽으며 배의 삼분의 일이 부서짐.
3. 네 번째 병 재앙(계16:8-9)	▶ 해가 사람들을 큰 열기로 태움.

이 모든 재앙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올 것입니다. 우리는 액면 그대로 성경의 본문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재앙은 묘사된 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성경을 믿는다고 주장하면서 계시록에 묘사된 재앙들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주의자들(대부분의 재앙들은 이미 성취되었다고 믿는 자들)은 이 재앙들이 이미 A.D. 70년경에 성취되었다고 믿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대환난도 이미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재앙들이 일부분 문자 그대로 A.D. 70년에 일어났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다의 삼분이 일이 피가 되고 바다 창조물의 삼분이 일이 죽었으며 배들의 삼분이 일이 부서졌던 때는 결코 없었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결코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일은 미래에 성취되어야만 합니다. 성경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해하고, 일관되게 문자 그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심판들이 다가올 환란기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까지 세상이 알고 있던 고통 중에서 가장 큰 환란의 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마24:21).

88) 비록 다니엘의 70이레의 마지막 반인 후반부 3년 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큰 환란'(마24:21)과 예레미야 대언자가 언급한 '야곱의 고난의 때'(렘30:7)가 될 것이지만 그 이레의 전반부 3년 반 동안에도 하나님의 가혹한 심판이 땅 위에 있게 될 것이다. 계시록의 두 증인은 땅 위에 전쟁, 기근, 역병, 지진, 해일, 불, 운석 폭발, 짙은 암흑, 심지어 지옥의 구덩이에서 무서운 마귀 형상의 떼들을 불러내는 큰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경고하는 것이다. -<에스라성경사전>

계시록 개요

계시록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단원 구분이 있고, 계시록 1장 19절 말씀에 따라 세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장에서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신 분이며, ‘알파’⁸⁹⁾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고, 전에 죽었으나 영원무궁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1:10-18). 이렇게 영광스럽고 놀라운 위엄을 가지시고 심판자의 모습으로 요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일들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네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할지니(계1:19)

과거(1:10-20)	현재(2:1-3:22)	미래(3-22장)
“네가 본 것들”	“지금 있는 것들”	“이후에 있을 것들”
요한이 환상을 받을 때의 상황과 내용이며, 요한의 환상은 계시록 1장에 묘사됨.	이것은 요한의 시대에 존재했던 아시아의 7교회를 말함. 이 교회들은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묘사됨.	이것은 아래의 것들을 포함해 계시록 4-22장에서 묘사되고 있는 미래의 것들을 말함. 1)환난기(4:1-19:21) 2)그리스도의 지상 강림(19장) 3)천년 왕국(20장) 4)새 하늘과 새 땅-계시록 21-22장

만물의 회복



89)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다.”라는 주님의 말씀은 그분이 영원한 분이요 만물의 기원이요 끝이 되시는 분임을 보여 준다(계1:8; 11; 21:6; 22:13; 비교 사44:6; 48:12; 골1:15-18).-<에스라성경사전>

